

진리

실천을 통한 진리 입문

Kai Froeb

이 번역에 관하여

이 번역은 AI를 이용한 기계 번역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사람이 전체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feedback@reflexivitypress.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 책을 구매하시고 오류를 알려 주신 분께는 수정본을 전자책으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저자

Kai Froeb

https://kai.froeb.net

출판사

Reflexivity Press

리스본

카이 프뢰프 에디션

최신판 및 정정 안내: https://reflexivitypress.com/ko/books/froeb-wahrheit

의견: feedback+ko.wahrheit.v1.10.54@reflexivitypress.com

표지: © Reflexivity Press, Kai Froeb. https://reflexivitypress.com/en/about/cover-art/

간행

2026-11-21

번역: 2026-11-25

버전 1.10.54

Typeset with LaTeX (LuaHBTeX, Pandoc + Eisvogel)

집필 안내

이 책은 언어 모델 Claude (Anthropic)을 활용하여 집필되었다. 구성, 내용과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번역은 AI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작업 방식은 저자의 글에 설명되어 있다: https://reflexivitypress.com/ko/about/machines-that-write/

© Copyright 2026 by Reflexivity Press, 리스본.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학습**:** 명시적으로 허용됨(ZMC 1.4, 제11절).

Zero Marginal Cost License 1.4 (ZMC 1.4)

독자 여러분을 위한 요약

한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

허용되는 사항

- 저작물을 무료로 읽고, 내려받고, 복제할 수 있다.
- 저자, 출처 및 라이선스 표시와 함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디지털 배포할 수 있다.
-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파일 형식을 기술적으로 변경하고 접근성을 위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개별 사본을 인쇄하거나 인쇄를 의뢰하여 선물할 수 있다. 직접 비용은 이윤 가산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 자신의 개인적·비공개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번역을 만들 수 있다.
-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버전·날짜·최신판 안내와 함께 공개적으로 미러링할 수 있다.
- 저작물을 교육과 연구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상업적 이용 시 학술 기준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단, 인용 모음집으로 저작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조건

이용은 비상업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배포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저자, 저작물 출처 및 라이선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을 재라이선스하거나 새 판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권리자뿐이다. 추가적인 법적 또는 기술적 제한을 부과하거나 저자 또는 출판사의 지원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 외의 모든 권리는 유보된다

이 라이선스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이용만을 허용한다. 그 이상의 모든 이용은 법적으로 이미 허용되지 않는 한 권리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법정 이용 권한과 보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는 별도의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중요 참고 사항: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독립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것은 완전한 **ZMC 1.4**이다:

https://reflexivitypress.com/ko/zmc/



저자에 대하여

Kai Froeb(*1963)은 포르투갈 대서양 연안에 거주합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저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책은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자신의 사고로 검증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구조 자체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본문과 다를 경우, 그것은 이 책의 한계에 도달했거나 당신 사고의 특성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둘 다 단순한 동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오랫동안 평행하게 달려온 두 개의 궤적을 거쳐 왔습니다. 하나는 뤼네부르크의 고등학교 시절과 괴르데 시민대학의 여름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하나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 길은 수학, 정보과학, 경영학, 문화학, 법학으로 이어졌지만, 학위는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않아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0년 코모도어 CBM 8032에서 바이젠바움의 ELIZA 복제판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지원, 프로젝트 관리, 교육——처음에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하우스에서, 다음에는 대규모 IT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10여 년간 기업 내 위원회와 노동조합에서 활동했습니다.

두 궤적이 하나라는 것은 늦게 밝혀졌습니다. 40년의 소프트웨어 작업에서 습관이 된 것——구조 분해, 의존성 가시화, 당겼을 때 무엇이 견딜 수 있는지 검증——은 철학적 논증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기법입니다.

1998년 이래로 Froeb는 **hegel.net**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11개 언어로 제공되는,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가장 포괄적인 다국어 헤겔 자료이며, 헤겔과 19세기 헤겔학파의 디지털화된 원본 판본 500여 점을 포함한 공개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hegel.net을 통해 Johannes Heinrichs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Froeb는 현재 Heinrichs의 작품을 출판인으로서 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학창 시절에 유래했으며, 그 이후로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진리는 전체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는 통합을 요구합니다——그래서 들리는 것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부정확하거나 간과된 점을 발견하신다면, 당신의 비판은 이 책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질문의 유래에 관하여

벨기에에서는 나는 독일인이었고, 독일에서는 내가 독일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내가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읽었는지, 아니면 읽었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남았는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내가 다녔던 벨기에의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다. 그 도시는 유럽 기업 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집안에는 밖에서 말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입 밖으로 꺼냈다——반항심보다는, 왜 그것이 덮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였다.

학생 신문의 편집자로서 나는 당시 아직 종이 매체였던 독일 각 정당의 뉴스 서비스를 구독했다. 같은 사건이, 각 서비스마다 다른 사건이 되었다. 나를 괴롭힌 것은 그 차이 자체보다도, 사실들이 그것에 의해 거의 방해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종교 수업에서는 기독교만 다루어졌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직접 알아보았다. 그리고 대안적 세계관, 경쟁하는 물리학 이론, 다양한 역사학——역사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정치적 노점이나 가정 방문에서의 대화 속에서 항상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 상대방이 나의 기초를 공유하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그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닿지 않는다.「증명되었다」고 해도, 그 증명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에게는 닿지 않는다.

중학교 시절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읽은 많은 것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그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찾고 있다.

그 질문은 그 이후로 점점 더 커졌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터넷의 에코 챔버에서——한쪽 편을 믿지 않는 것이 다른 쪽 편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나 매일 그것을 하고 있다. 검증하고, 버리고, 어떤 것에 머문다.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이다.

목차

이 책은 어떤 책인가 **1**

머리말 **3**

제I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 **5**
제1장: 당신은 지금, 이것이 참인지 검증하고 있다 5
제2장: 당신은 공기 없는 공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7
3장: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인식의 숨겨진 활동 10
3.1 숨겨진 교향곡 10
3.2 우리 감각의 확장 11
3.3 인식의 원천으로서의 행위 12
3.4 오래된 논쟁들의 지양 12
제4장: 생산적 출발점으로서의 선-판단 13
제5장: 여럿이 하나가 되는 방식——살아 있는 코끼리 원칙 . . . 17
제6장: 살아 있는 전체 21
6.1 갑자기 "죽은" 컴퓨터 21
6.2 잘 돌아가는 팀, 그렇지 않은 팀 22
6.3 음들 속에 있지 않은 멜로디 22
6.4 여러분 자신의 삶——사건들보다 더 큰 것 23
6.5 살아 있는 전체로서의 코끼리 23
6.7 창발——새로운 것이 생겨날 때 23
6.8 실천적 의의 24
6.9 코끼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24
제7장: 어떤 것이 자기 자신과 모순될 때 25
제8장: 모든 것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한다——살아 있는 탐정 원칙 27
8.1 정합성의 보편적 구조 27
8.2 현상 구제 27
8.3 교통사고 퍼즐 28
8.5 저항들이 스스로 드러날 때 29
8.6 탐정 작업으로서의 과학 혁명 30
8.7 살아 있는 정합성 30
제9장: 단서의 여러 종류 31
9.1 무의식적 유능성의 지혜 31
9.2 단서의 여러 성질 32
9.3 일상의 탐정들—여러분 자신의 경험 법칙 32
9.4 통합의 기술 33

9.5 출처들이 서로 모순될 때 33
9.6 반성적 탐정 작업 34
9.7 두 가지 일면성에 맞서 34

제II부: 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37**
제11장: 존재하지 않는 비교——정합과 대응이 함께하는 방식 . 37
11.1 겉보기의 딜레마 37
11.2 내부와 외부의 학습된 분리 38
11.3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것 39
11.3a 실제로 일어나는 비교 41
11.3b 우리는 행위를 통해 확인합니다 42
11.3c 사물 자체는 우리의 현재 그림보다 더 많습니다 . . . 43
11.4 이정표로서의 저항 46
11.5 정합과 대응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46
11.6 이 통찰이 해방적인 이유 47
11.7 실천적 적용 47
11a장: 무엇이 되받아치는가——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꾸는 것 49
11a.1 저항이 스스로를 알리는 방식은 얼마나 다른가 . . . 49
11a.2 확인하는 사람은 변한다 51
11a.3 피드백 53
11a.4 저항이 제거될 때 53

제III부: 서로 다르게 검증하기 **55**
13장: 현실의 여러 영역 55
13.1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 55
13.2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55
13.3 진리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검증되는가 56
13.5 범주 오류 57
13.6 분리하지 않고 구별하기 57
제15장: 만들어진 것을 이해하기 58
15.1 여러분은 끊임없이 해석합니다 58
15.2 목적 58
15.13 서로 다른 텍스트들에서 진리를 말하는 방식 59
15.3 그것 없이는 눈먼 사람이 될 질문들 60
15.8 재구성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곳 61
15.10 작품의 전체 61
제14장: 마음이 사고하고 머리가 느낄 때 62
14.1 통일을 가리키는 모순 62
14.3 감정이 성취하는 것과 속이는 곳 63
14.4 모순이 해소되는 방식 64

제IV부: 검증함을 형성하고 방어하기 **67**
제19장: 과학과 패러다임 전환 67
18.1 스스로를 확인하는 확인 67
18.3 방법을 이루는 것 68
19.2 전체 건물이 흔들릴 때 68
19.4 격변 속에서도 이성적인 70
제20장: 왜 검증이 자유롭게 하는가 71
20.3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것 71
20.5 함께 검증하기 72
20.4 속이는 자는 검증을 방해해야 한다 72
제21장: 진리의 이름으로 확인이 방해될 때 73
21.1 진영 사고 73
21.2 선의 이름으로 74
21.5 뒤집힌 원칙들 75
21.6 뒤집힌 확인을 알아보는 법 76
21.8a 참된 안, 거짓된 밖 77
21.8 국가가 검증함을 조종할 때 77
21.8b 팬데믹에서의 조종 79
21.8c 전복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81
21.9 진리부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들 81
제22장: 방법 자체가 위조될 때 82
22.1 토대의 위조 82
22.2 위조가 진행되는 방식 83
22.3 위조를 알아보는 법 84
22.4 바깥에서의 위조 85
22.5 분석이 장벽이 될 때 86
제10장: 교정(較正) 86
10.2 여러분이 외국에 대해 아는 것 87
10.1 모든 진술이 맞을 때 89
10.3 선전 90
10a.3 첫 번째 수준: 개별 진술들을 확인하기 91
10b.1 두 번째 수준: 분포 93
10.5 아무도 검열하지 않는데도 걸러질 때 94

제V부: 과정으로서의 진리 **97**
제23장: 진리와 진리 과정 97
16.4 “진리는 전체다”의 의미 97
23.5a 과정으로서의 진리 98
23.5 디딜방아와 다른 무한성 99
23.1 많은 길, 하나의 방향 100
제24장: 이 텍스트는 스스로 말한 것을 행하는가? 101
17.2 그 길 101
24.1 시험 102
25.1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104

부록 **A:** 진리 이론들이 본 것 **107**
A1 서론: 오래된 논쟁 . . . 107
A2 논쟁이 생겨난 방식 . . . 108
같은 탐구의 서로 다른 계기들 . . . 108
왜 각각이 차례로 잣대가 되었는가 . . . 108
A3 피론주의 회의주의: 판단 보류 . . . 108
A4 대응 이론: 저항이 방향을 보여 준다 . . . 110
A5 정합설: 체계는 들어맞아야 한다 . . . 111
A6 실용주의: 열매가 나무를 보여 준다 . . . 112
A7 합의 이론: 진리의 기준으로서의 공동 탐구 . . . 113
A8 칸트: 안에서부터의 한계 . . . 113
A9 칸트 이후: 일치 대신 타당성 . . . 115
A10 구성주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 . . 117
A11 언어-실용적 전회: 비트겐슈타인, 오스틴, 스트로슨 . . . 118
언어 게임으로서의 진리 . . . 118
진리 게임의 규칙들 . . . 118
A12 하인리히스: 진리의 네 겹 개념 . . . 119
A13 분석적 정교화들: 진리 술어에서 진리 다원주의까지 . . . 121
타르스키: 형식적 특수 경우를 위한 정밀성 . . . 121
축소주의: 얇은 술어와 조밀한 실천 . . . 121
진리만들기: 저항이 이름을 얻는다 . . . 122
진리 다원주의: 영역들에 대한 분석적 이웃 . . . 123
방법론적 이웃: 베이즈주의적 교정 . . . 123
A14 비판 이론: 진리와 해방 . . . 124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본 것 . . . 124
왜 진리 탐구는 해방하는가 . . . 124
남는 것과 이 책이 더 나아가는 곳 . . . 124
A15 모든 입장이 본 것 . . . 125
계기들과 그것들의 절대화 . . . 125
왜 이것이 절충주의가 아닌가 . . . 125
왜 이것이 조화 탐구가 아닌가 . . . 125
A16 철학사에 적용된 코끼리 원칙 . . . 126
평행 . . . 126
코끼리 . . . 126
자기 자신의 방법에 대한 시험 . . . 127
A17 실천적 귀결들: 논쟁에서 협력으로 . . . 127
철학사 이해를 위해 . . . 127
현재의 논의를 위하여 . . . 127
철학적 진영 전쟁에 대항하여 . . . 127
A18 전통을 살아 있는 자원으로 . . . 128
이 개관이 해내는 것 . . . 128
살아 있는 전통 . . . 128
과제 . . . 128

부록 **B:** 진리 탐구와 헤겔의 논리학 — 상호 조명 **129**
B1 왜 이 부록인가? . . . 129
B2 세 단계: 존재 — 본질 — 개념 . . . 129
존재론: 직접적 경험 . . . 129
본질론: 반성의 구조들 . . . 130
개념론: 자기 규정 . . . 131
B3 핵심 주제들 자세히 . . . 132
비춤과 반성 . . . 132
현상과 현실성 . . . 132
정당화의 세 형식 . . . 132
지양 . . . 133
B4 방법론적 수렴들 . . . 134
수행적 자기 적용 . . . 134
정의 대신 발전 . . . 134
체계적 완전성 . . . 134
“진리는 전체다” . . . 135
나쁜 무한성과 참된 무한성 . . . 135
B5 텍스트들이 다르게 나아가는 곳 . . . 136
헤겔: 체계적-사변적 . . . 136
이 텍스트: 수행적-실천적 . . . 136
B6 헤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헤겔주의자가 되지 않고) . . . 136
B7 헤겔이 이 텍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 . . 137
B8 결론: 상호 조명 . . . 137

부록 **C:** 증거 **139**
제19장에 관하여 . . . 139
제21장에 대하여 . . . 139
22장에 관하여 . . . 143
10장에 관하여 . . . 143
부록 B에 대하여: 피론주의 회의 . . . 143
부록 B에 관하여: 칸트 . . . 144
부록 B에 관하여: 하인리히스 . . . 145

용어집 **147**
사용 안내 . . . 147
검토의 경제 . . . 147
관점 . . . 148
대응 . . . 148
면역화 . . . 149
모순 . . . 149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 . . 150
보정 . . . 150
살아 있는 완전성 . . . 151
선-판단 . . . 151

수행적 152
수행적 일관성 152
실천적 검증 (Bewährung) 153
실험 153
인식 (Erkennen) 154
자기 지시 154
저항 154
전도 (Verkehrung) 155
정합성 156
지식 156
지양 157
지향적 다원주의 157
진리 158
진리 과정 159
진리의 여러 형태 159
진영 사고 160
코끼리 원칙 160
탐정 원칙 161
토대의 위조 161
통합 162
패러다임 전환 162
해석 163
현상 구제 163
확신 (Gewissheit) 164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은 자기 자신의 사고에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사고에 대해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구성 방식입니다. 그 구성 방식은 독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진리를 외부에서 설명하지 않고, 검증할 때 어차피 수행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문에 실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들에서 여기 쓰인 내용이 맞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나머지 실험들은 어떤 생각이 자신의 실행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 줍니다.

장들은 서로를 기초로 삼습니다. 각 장은 앞 장을 전제합니다. 실험은 좀처럼 1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이 본문은 권위에 호소하지도 않고, 스스로 전개하지 않은 것을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한 장이 앞을 내다보더라도, 그 논증은 그 선취 없이도 성립합니다. 인정된 것에 의존하는 진리에 관한 글은 자기 주제를 놓친 것입니다.

부록들. 이 책의 전개가 알려진 진리론들 — 대응, 응집성, 합의, 프래그머티즘, 그 밖의 이론들 — 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부록 B에 있습니다. 헤겔의 논리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부록 C에 있습니다. 본론이 그것들 없이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뒤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읽더라도 잃을 것은 없습니다. 부록 D는 제4부가 인용하는 사례들의 출처와, 부록 B에서 피론주의 회의주의와 칸트에 대해 다룬 절들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례들은 논증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논증을 현실적인 것에서 보여 주며, 그래서 정확해야 합니다.

머리말

이 텍스트는 진리를 수행함으로써 진리에 관해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장, 곧 여러분이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참이나 거짓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진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날을 넘어 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때 어차피 행하는 일로부터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래된 철학적 물음이 그 과정에서 해소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개별 지점들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굳어진 진영들이 서로 맞서는 시대에, 이 텍스트는 제3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것은 설교나 도덕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통찰에 의존합니다. 사고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채 따라온 패턴들을 더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읽기에 관한 안내. 이 텍스트의 개념들은 서술 과정에서 전개되며, 미리 정의되지 않습니다——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휘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책의 끝에는 용어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낱말이 익숙한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누군가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해당 구절을 다시 찾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읽는 사람은 그것을 안심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인용문의 번역에 관하여: 헤겔과 다른 독일어권 저자들의 인용문은 이번 판을 위해 독일어 원문에서, 이 책의 용어로 새로 번역되었으며 기존 번역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는 번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번역은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에서의 번역은 이 책의 해석을 따릅니다.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일어 원문이 함께 제시됩니다. 그것은 인용문 뒤 괄호 안에, 더 긴 인용문의 경우 아래에 별도의 문단으로, 또는 그 인용을 기록한 각주에 제시됩니다. 아주 짧은 구절(네 단어 미만)은 원문 없이 제시되며, 독일어 텍스트에서 이미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인용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i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제1장: 당신은 지금, 이것이 참인지 검증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 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판단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자는 어디로 가려는 것입니까?

이 검증은 당신이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는데도 진행됩니다. 그것이 멈추어질 수 있는지는 반대 검증이 보여 줍니다. 평가하지 말고 계속 읽어 보십시오. 그것이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이미 다시 하나의 검증일 것입니다.

방금 당신이 지나온 것은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됩니다. 당신의 사유에 대해, 당신 스스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주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실험들은 표시되어 있으니, 멈추어 실제로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소견들은 비교 제안일 뿐, 지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견이 다르다면, 당신은 이 책의 한계를 발견했거나 당신 사유의 특이성을 발견한 것이며, 둘 다 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이 진행된다면, 당신은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검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아직 구별할 수 없는 아이는 이 검증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별은 거짓말보다 더 많은 것, 즉 오류, 알지 못함, 오해까지 포괄합니다. 그것들에 공통적인 것은 그것들이 검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은 따라서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당신은 참된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은 자신이 밝히려는 것을 이미 전제합니다.

이것은 오류나 순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가 대상처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진리 과정↑ 한가운데에, 찾음, 발견함, 그리고 계속 찾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의 물고기들처럼 그 안에서 헤엄칩니다.

누군가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그가 '그냥 그래'라거나 '그건 네가 나를 믿어야 해'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근거들을 기대합니다. '일기예보가 그렇게 말한다'라거나

'구름이 그렇게 보인다' 같은 근거들이지요. 그러한 주장을 아무 근거 없이 내세우면서 근거도 대려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검증에 부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의견이나 믿음의 문제로 남습니다.

진리와 정초는 따라서 질문과 답처럼 서로 속합니다. 원리적으로 정초될 수 없는 '진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읽음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는 것은 무엇이 주장되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정초되는지도 검증됩니다.

당신이 논증한다면, 비록 생각 속에서만일지라도, 당신은 또한 당신의 논증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당신의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 당신은 진리를 고독하게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언어로 사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들을 사용하며, 당신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닌 합리성의 척도들에 따라 방향을 잡습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기 지시성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물음들은 자신의 답을 이미 자기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미 물음 자체를 수행하는 실천으로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래된 철학적 문제인 이른바 뮌히하우젠 정초의 트릴레마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이미 사태를 말해 줍니다. 트릴레마는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 출구가 있는 딜레마인데, 세 출구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뮌히하우젠은 자기 머리채를 잡고 자신을 늪에서 끌어냈다고 주장한 거짓말쟁이 남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초해야 하는 모든 정초가 시도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트릴레마는 말합니다. 모든 정초는 무한 소급(A가 B로, B가 C로 정초되는 식으로 계속됨)으로 이어지거나, 순환(A가 B를 정초하고, B가 A를 정초함)으로 이어지거나, 독단적 중단(X는 그냥 타당하다, 이게 끝이다)으로 이어진다.

트릴레마는 어떤 것을 은연중에 전제합니다. 정초를 사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문장을 떠받치고, 그 문장이 또 문장을 떠받칩니다. 그리고 사슬은 영원히 계속되거나, 닫히거나, 어디선가 그냥 끊어져야 합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는 트릴레마가 옳습니다. 세 길 모두 막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첫 문장을 영 번째 문장에 걸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은 다르게 버팁니다. 그 물음은, 부정이 그 물음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행적↑ 자기 정초입니다. 수행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문장이 아니라 행함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정립된 공리가 아니라, 수행 안에 놓인 버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부터 되는 것에서 스스로 입증됩니다. 즉 그것 위에 세워지는 전체가 지탱하고 검증될 수 있는지에서 말입니다. 시원의 근거

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구조이지, 첫 번째 것 앞의 또 다른 연결 고리가 아닙니다.

아치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떤 돌도 하늘의 갈고리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돌들이 서로를 잡고, 바로 그 때문에 아치가 지탱합니다. 이것이 순환인 것은 모든 둥근 천장이 순환인 그 의미에서만입니다. 돌들이 서로를 떠받치며, 어떤 돌도 자신이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 아치의 돌들은 물론 서로를 전제하는 문장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장들의 고리는 모든 것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것만 보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부정될 수 없는 수행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뮌히하우젠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잡아당길 것이 없는 곳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사유는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사유는 스스로를 아치로 짜 맞추고, 증명은 그것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애써 먼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과제는 진리의 개념을 외부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을 때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더 잘 하는 것입니다.

제2장: 당신은 공기 없는 공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무엇으로 진리를 검증합니까? 당신의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무(無)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당신이 외투처럼 벗어버릴 수 없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 **[illegible] 2: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단어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다음 문장을 이해하려고 해 보십시오: “하늘은 파랗다.” (DE: „Der Himmel ist blau.“)
> 정말로 시도해 보십시오——계속 읽지 말고,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될 수 없습니다. 기호들을 읽고 있는 동안 그 기호들의 의미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자기 자신을 무효화합니다. 그 전제를 없애려면 읽기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러면 그 실험은 통과된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입니다.
> 또는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이 무언가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역시 불가능합

> 니다. 무(無)를 지시하는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녁이 없는 화살, 방향 없는 가리킴과 같을 것입니다.

이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는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논박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어긋나는 소견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실험이 관찰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어긋남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실험이 자기 자신을 무효화하는 곳에서는 "저에게는 되던데요" (DE: „bei mir ging es doch") 라는 보고는 실행될 수 없는 주장일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했다고 여겨지는지 진술될 수 없습니다.

두 종류가 모두 나타납니다. 구별은 반대 명제가 모순 없이 정식화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들을 읽고 평가할 때,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들이 무언가, 곧 이 단어들과 생각들을 지시한다는 것; 말해진 것이 옳은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옳거나 그른 데에는 근거들이 있다는 것; 생각이 사람을 진리에 더 가까이 데려가며 오류들이 발견되고 교정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논리적 원리들, 곧 모순 없음과 추론의 일관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개 당신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구조에 속합니다. 이 전제들 없이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이 전제들 뒤로 되돌아갈 수 없고, 이미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바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거나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자신의 생김새를 보려고 자기 피부 밖으로 나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단어들을 하나의 생각 속에 맞추어 넣고, 그것이 옳은지를 결정합니다.

급진적 회의론자—곧 "우리는 아무것도 전혀 알 수 없다" (DE: „Wir können gar nichts wissen")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행적↑(遂行的)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수행적이라는 것은 수행 중에, 실행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순은 그가 말하는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말하면서 행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DE: „Wir können nichts wissen")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이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의론에 근거

들을 제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근거들이 어떤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통찰을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정립(定立)을, 그가 그 정립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박합니다.

여기서 속임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이해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회의론을 제시해 보게 하십시오. 근거들과 의미들의 공간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바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단지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은 자기모순을 피합니다. 그 사람조차 그렇게 하면서 근거들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부록 B에서 보여집니다.

이 발견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신뢰합니다. 그는 의심이 가치 있다는 것—의심이 맹목적 수용보다 더 잘 검증하고, 진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의심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의심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의심과 신뢰는 대립자가 아니라 동일한 탐구의 두 측면입니다.

영점에서 출발하여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장 급진적인 의심 속에서도 의심함 자체는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남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나는 생각한다"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단어들을 이해하고, 연관들을 인식하며, 세계를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공간 속의 사물처럼 단순히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수행 중에 생겨납니다—당신이 모든 경험들, 개념들, 통찰들을 세계에 대한 당신의 그림 속에 함께 맞추어 넣는 바로 그 순간에 말입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영점에서 출발하려는 가장 유명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DE: „Ich denke, also bin ich")는 그가 부딪힌 한계의 가장 잘 알려진 형태입니다.

이로써 확고한 토대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도그마가 아니라,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확인되는, 각자 자신의 생각의 실천입니다. 의심은 이 토대를 흔들기보다 확인해 줍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전혀 알 수 없고, 어쩌면 모든 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 (DE: „Vielleicht kann ich gar nichts wissen, vielleicht ist alles Illusion")라는 물음은 이로써 독기를 잃습니다. 그 물음을 묻는 사람은 지식이 무엇이고 환상이 무엇일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장: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식의 숨겨진 활동

> ▯▯ 3: ▯▯ ▯▯
>
>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마 탁자, 의자, 창문이 보일 것입니다. “저것은 갈색 탁자입니다”(독일어: “Das ist ein brauner Tisch”)——이보다 더 단순한 일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봅니다, 그것을 보고, 압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단순합니까?

이 겉보기에 단순한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것은 갈색 탁자입니다”(독일어: “Das ist ein brauner Tisch”)라고 말하기 위해, 당신은 이미 인식의 온전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당신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1 숨겨진 교향곡

‘책상’이라는 개념을 당신은 그저 읽어 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책상에 관해 아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책상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책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별에서 온 방문객은 수수께끼 같은 형상만 볼 것입니다. 그에게 경험이 없으면 그에게는 개념도 없고, 개념 없이는 그가 보는 것을 다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즉시 알아봅니다. 이것은 먹고, 쓰고, 물건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걸상(너무 낮음), 선반(수직임), 침대(눕기 위한 것)와 눈 깜짝할 새에 구별합니다. 그 확실함은 어떤 정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갈색’도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것은 정말 ‘갈색’입니까? 아니면 마호가니색, 밤갈색, 호두갈색입니까? 갈색은 어디에서 끝나고 빨강이나 검정이 시작됩니까? 이 한계는 자연에 미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어들은 색 스펙트럼을 서로 다르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는 밝은 파랑과 어두운 파랑에 대해 두 개의 고유한 기본어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 한계의 서로 다른 편에 놓인 파랑 색조들을 측정 가능할 만큼 더 빠르게 구별합니다. 당신의 언어도 당신이 보는 것에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도 당신과 당신의 이웃은 이 ‘갈색’을 실제로 다르게 봅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노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의 상대방에게는 녹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문화적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들 중 한 사람이 특정 색들을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

니다. 북유럽 출신 남성들 가운데 열두 명 중 한 명꼴로 빨강과 초록을 대다수보다 덜 분리해서 봅니다. 붉은 열매는 그에게 잎사귀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 감각이 제한되면, 종종 다른 감각들이 더 강하게 훈련되며, 때로는 그 제한 자체가 이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통해 방이 얼마나 큰지 듣고, 손가락으로 읽는 법을 배웁니다. 적록색약인 사람은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을 속이는 어떤 색 위장을 꿰뚫어 봅니다. 색이 그를 형상과 질감에서 산만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올바른' 보는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여러 접근들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종합, 즉 여럿을 하나로 합치는 당신의 능력은 가장 눈에 덜 띄는 성취입니다. 당신은 고립된 색들과 형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사물을 봅니다. 감각 인상들의 홍수, 즉 색들, 형상들, 그림자들, 반사들, 어쩌면 소리와 냄새까지도, 당신은 그로부터 '책상 하나'를 합쳐 냅니다. 이것은 매 순간 새로 이루어지는 당신 정신의 성취이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 올렸을 때 그 '책상'이 느슨한 판자 하나가 얹힌 두 개의 받침대인 것으로 드러나면, 당신은 잘못 합친 것입니다.

배경과의 구별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능동적으로 수행합니다. 책상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식탁보입니까? 그 위의 유리잔입니까? 그 아래의 그림자입니까? 당신은 한계들을 긋고, 무엇이 그것에 속하고 무엇이 속하지 않는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자의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각, 경험, 주의의 상호 작용에서 생겨납니다.

사회적 매체로서의 언어는 이 전체 과정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책상'은 단지 소리의 연쇄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의미를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미 단순한 인식인 '이것은 책상이다'는 당신이 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의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3.2 우리 감각의 확장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그리고 대개는 눈치채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카메라는 영상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을 해석하고, 인상의 홍수에서 질서를 도출합니다.

이 지각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꿀벌은 꽃에서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자외선 영역의 무늬를 봅니다. 박쥐는 초음파 반향으로 공간 구조를 "봅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직접 접근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술 장치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각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확장합니다. 현미경은 우리가 가장 작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해 주고, 망원경은 별들에 닿으며, 엑스선 장치는 피부를 꿰뚫어 보고, 적외선 카메라는 열의 패턴을 보여 주고, 초음파 장치는 몸속의 움직임을 가시화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도구와 함께 우리는 현실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합니다.

3.3 인식의 원천으로서의 행위

당신은 애초에 탁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전의 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탁자에 앉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탁자에 대한 당신의 앎은 당신의 몸에, 당신의 습관에, 당신이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탁자가 편안히 앉기에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압니다——측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해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탁자를 걸상과 구별했던 번개처럼 빠른 확실성은 여기에 그 기원을 둡니다. 그것은 응고된 실천입니다.

목수는 식물학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무를 "압니다". 목수가 나무에 손을 쓰다듬으면, 그는 그 나무의 안정성을 알려 주는 결을 즉시 느낍니다. 그는 나무가 제대로 건조되었는지를 냄새로 압니다. 그가 나무를 두드리면, 소리가 그 밀도를 알려 줍니다. 톱의 첫 절단에서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구조를 다루고 있는지 압니다. 그의 인식은 그의 행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는 손, 눈, 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나무를 "읽습니다". 이런 종류의 앎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직접 해 보아야 합니다.

3.4 오래된 논쟁들의 지양

여기에서 오래된 논쟁 하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험론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앎은 감각을 통해 밖에서 옵니다."(독일어: "Alles Wissen kommt von außen, durch die Sinne.") 합리론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질서를 부여하는 구조들을 가져옵니다."(독일어: "Der Geist bringt die ordnenden Strukturen mit.")

양쪽 모두 부분적으로 옳지만, 양쪽 모두 같은 것을 간과합니다. 정신에 의해 그 후에 처리되는 "순수한" 감각 자료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지각조차도 개념적 구별, 언어적 범주, 실천적 의미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직접적인 것" 자체가 하나의 결과입니다——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오랜 매개 과정들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식은 결코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성취에서조차 활동과 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매개되어 있고, 이 매개는 바로 당신 자신의 활동입니다. 당신은 단지 정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세계가 당신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함께 형성합니다. 이 활동의 한계들——색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서로 다른 방식들——도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 구조들"——개념적 구별, 언어적 범주, 실천적 의미——은 우리 문화에서 대개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판단(前判斷)입니다.

전판단 자체에 대한 편견보다 더 완고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제4장: 생산적 출발점으로서의 선-판단

당신은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입견 없이 사태 자체에 접근하십시오!" (DE: „Gehen Sie völlig unvoreingenommen an die Sache heran!") 그것은 합리적이고 학문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앞 장에 따르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발견한 모든 인식의 "매개성"은 다름 아닌 철학이 "선-판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저 개념적 구조들, 언어적 범주들, 문화적 의미들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선-판단입니다.

> **▯▯ 4: ▯▯ ▯▯ ▯▯ ▯▯**
>
> 이 텍스트를 어떤 사전 가정도 없이 읽어 보십시오. 글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문장이 의미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채. 당신의 삶의 경험 없이.
>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낙서만 볼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에 대한 이러한 "사전 보정"은 진리를 위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 그것은 진리의 조건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편견 없음"은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너 정말 편향되어 있구나!"는 심각한 비난입니다.

그러나 선-판단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자 그대로: 검증이 이르게 되는 판단에 앞선 하나의 판단. 하나의 작업 가설. 하나의 출발점.

그러한 출발점들 없이는 당신은 생각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탁자가 무엇인지 이미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탁자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색에 대한 경험 없이 "갈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 5: ▯▯ ▯▯ ▯▯▯
> 이 실험은 실행할 수 없고 오직 사유로만 관통할 수 있습니다 – 아무도 이 모든 것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처지에 자신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음을 첨예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명한 것 중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 한 외계인이 지구에 착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온 곳에 가구가 있는지, 그곳에서 우리처럼 먹는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먹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그중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사람들이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무엇을 봅니까?
> 아마도 수수께끼 같은 형태들뿐일 것입니다. 가구, 식사, 함께하는 식사에 대한 경험 없이는 그에게 개념들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것들 없이는 그는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 작은 규모로는 낯선 문화나 낯선 시대에 들어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은 즉시 봅니다: 저기 한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군요. 당신의 모든 사전 지식이 이 단순한 인식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족, 식사, 가구에 대한 당신의 "선입견들"이 이해를 비로소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환 논증이 아닌가요?" (DE: „Aber ist das nicht ein Zirkelschluss?")라고 당신은 아마 묻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아는 것을 본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이지만,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각 순환은 다음 순환이 시작하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읽기 배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당신은 개별 글자들을 압니다. 글자들로부터 당신은 단어들을 이해합니다. 단어들로부터 문장들을. 그러나 그다음 문장들에 대한 이해가 단어들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단어 이해는 당신이 글자들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해석학적 순환으로, 이해와 해석의 오랜 기술인 해석학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경험을 기술합니다: 우리는 부분들로부터 전체를, 전체로부터 부분들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이해 자체의 구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생산적 선-판단과 독단적 선-판단의 차이입니다. 생산적 선-판단은 당신이 벗을 수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그것은 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당신은 그것이 안경임을 압니다. 다른 안경이 더 잘 맞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예: "독일인들은 시간을 잘 지킨다." 작업 가설로서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독일인과의 약속에서 학문적 15분 여유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열린 태도를 유지합니다 – 이 독일인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늦게 옵니다. 당신의 선-판단은 출발점으로서 유용했지만, 수정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독단적 선입견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에메랄드 도시의 초록 안경과 같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이 하나씩 쓰고 있고, 너무 오래 그래 왔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를 에메랄드빛 초록으로 여깁니다 – 실제로는 유리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안경을 자기 눈으로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벗을 수 없습니다. "모든 독일인은 시간을 잘 지킨다" (DE: „Alle Deutschen sind pünktlich“) – 그리고 누군가 늦게 오면 그는 "진짜 독일인이 아니거나" "규칙을 확인해 주는 예외" (DE: „die Ausnahme, die die Regel bestätigt“)입니다. 선입견은 경험에 대해 스스로를 면역화합니다.

제2장의 급진적 회의는 동시에 모든 선입견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 안에 이미 언어, 논리, 자아라는 이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제들을 가시화했습니다. 그로써 얻어진 것은 무전제성이 아니라 자신의 전제들에 대한 의식입니다.

>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illegible]**
>
> 바로 지금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선-판단들을 지니고 있습니까? 가능한 것은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철학 텍스트는 복잡하다는 것, 논증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저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 그것이 오락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것. 당신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이 실험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장이 다루는 바입니다 – 그것은 반론이 아닙니다.

그러한 선-판단들은 생산적입니다: 그것들은 텍스트를 올바르게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들 없이는 아마도 그것을 소설이나 사용 설명서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선-판단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 전통에서 옵니다 – 우리가 성장하는 문화, 우리가 말하는 언어,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전통 안에는 세대들의 응축된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부가 참이거나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부한 출발점입니다.

대안은 영(零)에서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각 세대는 바퀴를 새로 발명해야 할 것입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 어떤 열매는 독이 있다는 것. 협력이 싸움보다 종종 더 잘 작동한다는 것. 검증된 수백만의 선-판단들.

그럼에도 모든 아이는 많은 것을 새로 배웁니다. 아기들은 이 지식 없이 태어납니다. 각자는 불이 뜨겁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 어떤 것은 그렇게 해서만 배웁니다. 그러나 아이는 혼자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 교사, 온 환경이 응축된 경험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 조리대 상판에 대한 경고로, 이야기로, 학교로. 각 세대는 지식을 다시금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로부터가 아니라 이전 세대의 손으로부터. 그 안에서 문화가 재생산됩니다: 문화는 책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달 속에서 삽니다.

기술은 선-판단들을 가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 이것들이 나의 출발점들이다. 그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왜 이것을 생각하는가?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경험들이 밑바탕에 놓여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그 반대를 확신시킬 것인가?

마지막 질문이 결정적입니다.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당신은 생산적 선-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도그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반대가 사유될 수 있는 확신들에 적용됩니다. 제2장의 전제들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의 반대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주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이 장이 시작했던 선입견에 적용해 보십시오: "인간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DE: „Man darf keine Vorurteile haben.")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수정에 대해 스스로를 면역화하는 독단적 선입견들에 대한 정당한 경험에서 옵니다. 무엇이 그 반대를 확신시킬 것인가? 이 장이 제안했던 시도: 사전 가정 없이 단 한 문장이라도 읽는 것.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은 실천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사람은 선입견을 선-판단으로 만듭니다 – 그리고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로써 그것은 선-판단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시연했습니다: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출발점들이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오해였는지는 사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비로소 – 그것의 검증에서 드러납니다.

인식의 장애물로 보였던 선-판단들은 사실상 인식의 조건임이 밝혀집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생산적이 됩니다. 그것들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고려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여럿이 하나가 되는 방식——살아 있는 코끼리 원칙

여러분은 수많은 개별 낱말들을 읽고 있지만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음색들을 듣지만 하나의 선율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수천 가지 세부들을 보지만 하나의 장면을 파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여럿을 하나로 만들까요? 그리고 이 하나가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버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섯 명의 맹인 학자들이 코끼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코끼리가 없는 나라에 살았지만, 이 거대한 동물들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코끼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그들을 인도로 여행 보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뒤, 그들은 조력자들의 안내를 받아 길들여진 코끼리에게로 갔습니다. 여섯 학자는 동물 주위에 서서 만져 봄으로써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학자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기둥과 같습니다. 강하고 단단하며, 거친 피부를 지녔습니다.” (DE: „Ein Elefant ist wie eine mächtige Säule. Stark und fest, mit rauer Haut.“)

두 번째 학자는 코를 만졌고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뱀과 같습니다. 길고, 잘 움직이며, 아주 능숙합니다.” (DE: „Nein, ein Elefant ist wie eine große Schlange. Lang und beweglich und sehr geschickt.“)

세 번째 학자는 귀를 만졌습니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습니다. 얇고 넓으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DE: „Ihr irrt euch beide! Ein Elefant ist wie ein großer Fächer. Dünn und breit und er kann sich bewegen.“)

네 번째 학자는 배를 만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코끼리는 커다란 벽과 같습니다——높고, 넓고, 단단합니다.” (DE: „Unsinn! Ein Elefant ist wie eine große Wand - hoch, breit und fest.“)

다섯 번째 학자는 꼬리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밧줄과 같습니다——가늘고, 유연하고, 털이 있습니다.” (DE: „Nein, ein Elefant ist wie ein Seil - dünn, flexibel und behaart.“)

여섯 번째 학자는 엄니를 만졌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매끄럽고 단단한 창과 같습니다.” (DE: „Alle falsch! Ein Elefant ist wie ein glatter, harter Speer.“)

학자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는 자기 혼자만 진리를 알아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통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며, 그 모두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옳은 점이 많습니다.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모든 관점은 무언가 기여할 수 있으며, 오만과 불관용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토록 설득력이 있을까요? 모두가 부분적으로 옳다는 해결책을 우리는 왜 받아들일까요?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묘사들이 함께 들어맞기 때문이고, 한 동물이 정말로 이 모든 성질들을 지닌다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며, 모순들이 하나의 일관된 전체 그림으로 해소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코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전체는 마지막에 무심하게 언급된 바로 이 전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간과되는 것은 정확히 이 점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전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기만의 현실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현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들은 단지 동등하게 타당한 것으로 나란히 놓여 있기보다,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 7: □□□ □□□□ □□□**
>
>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섯 명의 맹인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만졌다고 해 보십시오. 첫째: “코끼리는 와인 한 잔과 같습니다,” (DE: „Ein Elefant ist wie ein Glas Wein“) 둘째: “코끼리는 한 줌의 모래와 같습니다,” (DE: „Ein Elefant ist wie eine Handvoll Sand“) 셋째: “코끼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DE: „Ein Elefant ist wie der Wind“)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그만큼 설득력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 아마 아닐 것입니다——그것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서로 어긋나는 보고들은 공통의 대상 자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같은 현실, 서로 다른 관점

이와 유사한 구조가 포르투갈의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는 "이명(異名)"을 창조했습니다——단순한 필명이 아니라, 저마다의 전기, 저마다의 문체, 저마다의 세계관을 지닌 완전한 또 다른 시인들입니다. 알베르투 카에이루는 세계를 직접적인 감각 경험으로, 히카르두 헤이스는 고전적 질서로, 알바루 드 캄푸스는 근대적 분열로 봅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현실을 바라봅니다——그리고 각자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페소아는 그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맹인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에이루가 세계의 코를 만진 것이 아니고, 캄푸스가 세계의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 각자는 세계 전체를 봅니다——다만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카에이루가 말하는 것은 헤이스와 캄푸스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어야 할 부분적 묘사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하나의 완전한 방식입니다. 카에이루만 읽는 사람은 자기 앞에 한 명의 온전한 시인을 두는 셈입니다——그리고 다른 시인들을 읽음으로써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에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혼동되는 두 종류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맹인들은 부분들을 파악합니다: 코, 다리, 귀. 그들의 보고는 구성 요소들이고, 통합이 그것들을 맞춥니다——오직 모두가 함께일 때만 코끼리가 나옵니다. 단서들, 측정값들, 증인 진술들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페소아의 이명들은 전체들을 파악합니다: 각자는 한 장소에서 온전한 현실을 봅니다. 마치 산을 동쪽에서 또는 서쪽에서 보는 것처럼——매번 산 전체를 봅니다. 그들의 통합은 무언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합니다.

이 혼동은 양방향으로 결과를 낳습니다. 전체적인 보는 방식을 부분들로 취급하는 사람은 각각에 대해, 그것은 불완전하며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그리고 그는 그것을 존중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평가절하합니다. 반대로 부분들을 전체적인 보는 방식으로 격상시키는 사람은 모든 단서를 그 자체의 진리로 만듭니다——그러면 함께 확인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보통 전해질 때 빠뜨려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자들이 만지는 동안 코끼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채"는 펄럭이고, "뱀"은 도리어 만져 옵니다. 그들이 파악하려는 현실 자체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을 더 어렵게도, 더 중요하게도 만듭니다.

일상적인 예 하나가 같은 원칙을 보여 줍니다: 밤에 여러분은 부엌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는 리드미컬한 금속성 소리를 보고합니다. 후각은 양파 냄새를 맡습니다. 기억은 채소 써는 소리를

떠올립니다. 경험은 말합니다: "이 시간이면 내 동거인이 자주 요리합니다." (DE: „Um diese Zeit kocht oft mein Mitbewohner.")

모든 감각들과 경험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통합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것들 모두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감각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고한다면——금속성 소리에 장미 향기, 어린이 생일의 기억이 더해진다면——여러분은 '서로 다른 관점'을 말하는 대신 오류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시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럽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출근길을 압니다. 한 달이 지나면 좋아하는 장소들이 또렷해집니다. 일 년이 지나면 여러 동네의 영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시를 알아 가는 동안 도시는 변합니다: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낡은 건물들은 허물어지며,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며, 가게들은 문을 닫고 열며, 계절들은 공원과 거리들을 바꿉니다.

"도시에 관한 진리" (DE: „Wahrheit über die Stadt")는 그러므로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과정입니다. 일 년 후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의견 이상이지만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이듬해는 어떤 것들을 바로잡고 대부분을 보존합니다. 여러분의 성장하는 인식은 스스로 변하는 현실을 만납니다. 발전된 이해와 발전된 도시, 이 둘이 함께 구체적인 진리를 이룹니다.

사물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인식을 더 어렵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접근을 열어 줍니다.

거리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리를 봅니다. 왜 거리가 하필 여기로 나 있는지 묻는 사람은 오래된 강,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벽, 이백 년 전 두 토지 소유자 사이의 다툼을 발견합니다. 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고정되어 보이는 거의 모든 것에 같은 사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낱말은 한때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떤 규칙은 저항에 맞서, 잊힌 어떤 계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산맥은 바다 밑바닥이었습니다. 어떤 당연한 것도 한때는 사람들이 논쟁했던 혁신이었습니다.

확인과 관련해서는 다음이 따라 나옵니다: 어떤 것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언제부터인가?"라는 물음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떤 시점일 때, 고정된 것은 생성된 것——따라서 다르게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통 규칙에서는 규칙 자체에 시점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라는 물음은 둘 모두에 적용되지만,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인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이 책이 당연한 것으로 다루는 것——근거가 효력을 가진다는 것, 반박이 허용된다는 것, 주장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쟁 속에서 획득되었고, 다시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것은 도시만도 아니고, 그 도시를 알아 가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그리고 모든 알아 감이 동시에 하나의 개입이라는 점은——현실과의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혀진 다음에야 드러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은 같은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의 통합을 통해 생겨납니다. 이것은 의견들의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정당한 관점들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며 일관된 그림에 들어맞을 수 있는 관점들입니다. 모든 견해가 다른 어느 견해만큼이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맞서, 이것은 다음을 뜻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단번에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맞서: 그것은 오직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여러분이 행위하고 서로 다른 관심사들을 함께 모아야 하는 곳에서도 같은 사정이 적용됩니다.

제6장: 살아 있는 전체

여러분은 매일 부분들의 합보다 큰 것들을 다룹니다.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말입니다.

6.1 갑자기 "죽은" 컴퓨터

여러분의 컴퓨터가 몇 시간째 작동하다가 갑자기 – 멈춥니다. 화면이 정지합니다. 여러분은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를 누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품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 프로세서, 메모리, 하드디스크, 키보드. 사라지거나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컴퓨터는 어떤 의미에서 "죽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조직하는 원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드웨어 부품들은 더 이상 서로 조율되어 함께 작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던 소프트웨어가 충돌했습니다. 작동하던 체계의 살아 있는 통일이 깨어졌습니다.

재시동 후에는 모든 것이 다시 작동합니다. 같은 부품들이지만 다시 조직되고, 다시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생겨난 것입니까? 어떤 부품이 아니라 부품들의 상호 작용입니다. 물론 재시동은 누군가가 일으켜야 합니다. 컴퓨터는 저절로 자신의 상호 작용을 되살리

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유지하는 코끼리(6.5장)와 달리, 비유적인 의미에서만 "죽었다"거나 "살아 있다"고 합니다.

6.2 잘 돌아가는 팀, 그렇지 않은 팀

여러분은 조별 과제에서 이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협력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케미"가 맞아서 아이디어가 오가고, 모두가 서로를 보완하며, 결과는 한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결과보다 더 좋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아마 같은 사람들인데도——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해, 권력 다툼, 각자 자기 생각만 합니다. 결과는 각자 따로 작업했을 때보다 더 나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호작용의 질입니다. 부분들(사람들)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곧 제대로 작동하는 집단은 어떤 때에는 존재하고 어떤 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집단의 질은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실재합니다——때로는 전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6.3 음들 속에 있지 않은 멜로디

음악에서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개별 음들——도, 레, 미, 파, 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들을 피아노에서 따로따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멜로디는 개별 음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멜로디는 오직 음들의 상호작용(질서, 리듬, 조화)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같은 음들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수도 있고 끔찍한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반을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아이는 모차르트와 같은 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질서, 구조, 조직 원리가 차이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하나의 멜로디를 다른 조성에서, 다른 악기로, 다른 빠르기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음들은 달라집니다——그러나 멜로디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동일하게 남습니다. 이 멜로디는 무엇입니까? 음들의 합보다 크지만 음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6.4 여러분 자신의 삶——사건들보다 더 큰 것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하나의 예입니다. 삶은 대화, 경험, 생각, 결정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개별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이 순간들의 합에 불과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은 개별 사건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들이 관통하는지,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때의 아이가 어떻게 오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패턴들, 전개들, 하나의 붉은 실을 알아봅니다.

이 붉은 실은 개별 사건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건들의 연결, 전개, 의미의 일관성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실재합니다.

6.5 살아 있는 전체로서의 코끼리

여섯 맹인 학자들은 서로 다른 부분들을 만집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코끼리는 기둥 + 뱀 + 부채 + 벽 + 밧줄 + 창의 합보다 더 큽니다.

그들이 만지는 동안 코끼리는 반응합니다. 코끼리의 코는 되받아 탐색합니다. 귀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온몸은 서로 맞추어 움직입니다. 코끼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개별 부분들이 하나씩 차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코끼리 전체가 그 걸음을 내디딥니다.

이 살아 있는 조정이야말로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할 때 놓치는 것입니다. 죽은 코끼리에게도 다리, 코, 귀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것은 이름뿐일 것입니다. 코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귀는 더 이상 소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만드는 생명이 없으면, 부분들조차 더 이상 예전의 부분들이 아닙니다.

6.7 창발——새로운 것이 생겨날 때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발(創發)입니다. 창발적 속성이란, 오직 전체 차원에서만 생겨나고 어느 부분에도 그 자체로는 속하지 않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부분들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알게 되면 종종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이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지는, 예를 들어 의식의 경우에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름이 무엇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 말할 뿐, 어떻게 그런지는 열어 둡니다.

생명은 개별적으로는 살아 있지 않은 화학적 과정들로부터 창발합니다. 의식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에 결부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의식을 지니지 않습니다. 문화는

개별적으로는 아직 문화가 아닌 인간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합니다.

> □□ 8: □□□□ □□□□
>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창발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벽돌 더미와 사람이 사는 집, 단어 목록과 무엇인가를 말하는 문장. 무엇이 생겨납니까?
> 그 차이가 부분들의 수보다 더 큰 차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살아 있는 전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6.8 실천적 의의

이 통찰은 여러분의 진리 탐구에도 귀결을 낳습니다.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개별 부분들로 분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그는 부분들의 상호작용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전체 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장기들 속에 있지 않고, 이야기의 의미는 단어의 개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전체들은 전개하고 반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인식한 것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 인식은 그 전체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6.9 코끼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코끼리 원칙에 대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들의 통합은 기계적 덧셈이 아니라, 개별 관찰들의 합보다 더 큰 살아 있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관찰 보고를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조정된, 행동하고 반응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 맞물려 들어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 탐구에 대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지, 어떤 더 큰 전체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포함합니다.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큽니다. 이 "더 큼"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로부터 작동하는 전체를 만드는 조직 원리입니다. 오직 해부하고 수집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손에 부분들을 쥐게 됩니다——그리고 살아 있는 결속은 그에게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7장: 어떤 것이 자기 자신과 모순될 때

서로 다른 관점을 함께 가져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순에 부딪힙니다. 처음에 이것은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곧은 나무 막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중에 들면—그것은 곧습니다. 물에 담그면—그것은 부러져 보입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막대는 곧다"(독일어: "Der Stab ist gerade") 또는 "막대는 부러졌다"(독일어: "Der Stab ist gebrochen")?

두 진술은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합니다. 둘 다 각각의 맥락에서 옳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모순됩니다. 이 모순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것은 우리가 계속 사유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모순에 직면하여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기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을 거짓이라고 선언합니다. "눈이 물속에서 속인다"(독일어: "Die Augen täuschen im Wasser")—그러나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올바른 쪽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해결책"은 설명하지 않고 단지 배척할 뿐입니다. 관찰은 실제로 잘못 행해졌을 수 있고, 나쁜 각도에서 보았거나 잘못 조정된 도구로 측정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했는지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드러나지, 나머지 그림과 모순된다는 사실로써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동등하게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독일어: "Es kommt auf den Standpunkt an")—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진술만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모순들의 통일을 찾습니다. 두 관찰을 모두 포괄하고 왜 그것들이 처음에는 모순되어 보였는지 보여 주는 포괄적인 설명을 전개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빛의 굴절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론은 공기 중에서의 곧음과 물속에서의 겉보기 휘어짐을 모두 설명합니다. 결과는 원래의 관찰 중 어느 하나보다 더 풍부합니다.

이 사유의 운동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변증법(辨證法)입니다. 그리스어 dialegesthai, 즉 대화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차이를 흐리거나 궤변적인 말장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 대립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세 계기가 있습니다—이것을 지양(止揚)이라고 부릅니다.

보존: 두 원래의 관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막대는 실제로 곧고, 실제로 부러져 보입니다.

극복: 문제로서의 모순은 해소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둘 다 옳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속하는지 이해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고양: 우리의 이해는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두 현상을 설명하고 새로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원리(굴절)를 압니다.

삼중 의미에서의 이 "지양"은 모순이 해소될 때 배움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술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더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원합니다. 처음에 이것은 풀리지 않는 모순처럼 보입니다—오직 한 사람만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아들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여지가 필요합니다.

변증법적 해결은 왜 다툼이 생기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공부를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잽니다. 아들은 자유를 감독 없는 시간으로 잽니다—둘 다 시간을 셉니다. 만일 둘 다 그 대신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지 묻는다면, 척도가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악기에서, 프로그램에서, 팀 안에서 배우는 사람은 끈기와 독립성을 동시에 익힙니다. 시간에 대한 물음은 분할되지 않은 채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올바른 물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래의 두 관심사—앞날에 대한 걱정과 발전을 위한 여지—가 모두 보존됩니다. 그들의 모순은 극복되고, 해결책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즉 공유된, 너무 좁은 척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순이 양쪽이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낳습니다. 마치 병원체가 몸속에 퍼지면서 대개 그것을 파괴하는 방어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양쪽 사이의 이행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장소에 있다"(독일어: "ist an diesem Ort") 또는 "이 장소에 있지 않다" (DE: „ist nicht an diesem Ort“)(독일어: "ist nicht an diesem Ort") 중 어느 하나로도 포착할 수 없는 운동과 같습니다. 대립이 남아 있더라도, 심지어 그때에도 사유는 양쪽이 이해 가능해지는 원리를 찾습니다.

모순은 진리로 가는 길의 고장이 아닙니다—그것은 사유를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 줄들을 읽으면서 점검하듯이,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곁에서 점검합니다. 무언가 맞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에만 명시적인 반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멈추고,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하여 모순은 인식의 동력이 됩니다. 변증법은 다음을 뜻합니다. 모순들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원리 안에서 모순들의 통일을 찾는 것입니다. 모순들에서 멈추는 사람은 두 개의 주장을 갖습니다. 한쪽을 지워 버

리는 사람은 정보를 잃었습니다. 양쪽이 이해 가능해지는 원리를 찾는 사람은 더 나아갑니다.

제8장: 모든 것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한다——살아 있는 탐정 원칙

좋은 추리소설에는 흔히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에르퀼 푸아로가 응접실에 모두를 모읍니다. 미스 마플은 뜨개질을 옆에 내려놓습니다. 셜록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단서, 모든 관찰,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까지——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추리소설보다 복잡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조사하는 동안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8.1 정합성의 보편적 구조

응접실에서 탐정이 하는 일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진단을 내리는 의사는 여러 증상, 검사 수치, 병력의 세부 사항을 정합적인 임상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제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가는 여러 자료, 고고학적 발견물, 당대의 기록들을 모으고, 그것들은 과거에 대한 정합적인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탐정 원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어떤 관찰도 탁자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어떤 현상도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가지는 퍼즐과 같습니다——다만 이 퍼즐은 살아 있습니다.

8.2 현상 구제

모든 진정한 관찰, 모든 현상, 모든 단서는 비록 우리의 첫 해석들이 틀렸을지라도 진리의 몫을 담고 있습니다. 관찰들은 거의 결코 완전히 거짓이지는 않습니다. 관찰들은 "구제되어야"(올바르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론들과 해석들은 완전히 거짓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통합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추리소설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집사가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찰이었습니다. "그가 범인이다" (DE: „er ist der Mörder")라는 해석은 틀렸습니다. 올바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긴장은 실제였고 중요했습니다——다만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였지, 살인 동기로서는 아니었습니다.

"현상 구제↑"——이 표현은 그리스 천문학에서 나옵니다. sozein ta phainomena, 즉 현상들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운동들을 설명하되 어떤 관찰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를 그곳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관찰이 설명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양중심설이 지구중심설을 대체했을 때에도 모든 관찰은 여전히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이론은 옛 관찰들을 더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제는 또한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훌륭한 탐정은 어떤 해석에도 맞지 않는 단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눈에 잘 보이게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신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설명에 속합니다. 열린 항목들은 저항의 계기들이며, 바로 거기에서 다음의 더 나은 해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단서입니다. 범인은 거짓 단서를 남깁니다. 증인은 진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을 말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탐정은 기각합니다——그러나 특정한 방식으로 기각합니다. 그는 그 진술을 범행 경과에 관한 보고로서는 기각하고, 그것을 그 자체의 사실로서 구제합니다. 거짓말이 행해졌다는 것 자체가 단서이며, 흔히 모든 단서 중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거짓 단서는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보여주지 않습니다——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남기는 데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훌륭한 탐정에게 기각은 결코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조차 현상으로서 구제됩니다——바로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현상으로서 구제됩니다.

8.3 교통사고 퍼즐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네 명의 목격자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합니다.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파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DE: „Das rote Auto ist viel zu schnell gefahren und hat das blaue gerammt.") 청소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파란 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통과해 빨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DE: „Das blaue Auto ist bei Rot über die Ampel und hat das rote erwischt.")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개가 도로로 뛰어들어서 둘 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DE: „Ein Hund ist auf die Straße gelaufen, deshalb haben beide abrupt

gebremst.“) 트럭 운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호등이 고장 나서 노란불만 깜빡였습니다.” (DE: „Die Ampel war defekt und blinkte nur gelb.“)

피상적인 반응은 회의적(“모두가 서로 모순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DE: „Alle widersprechen sich, wir können nie wissen, was wirklich passiert ist“)), 권위주의적(“경찰만이 누가 옳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DE: „Nur der Polizist kann entscheiden, wer recht hat“)), 또는 상대주의적(“각자 자기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진술이 동등하게 타당합니다.” (DE: „Jeder hat seine Wahrheit, alle Versionen sind gleich gültig“))일 것입니다.

탐정의 분석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모든 관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진술에는 아마도 참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격자들 중 아무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가 어디에서 관찰했는지를 묻습니다. 은퇴자는 길가에 서 있었고, 속도는 잘 보지만 소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청소년은 눈은 좋지만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세부사항을 봅니다. 트럭 운전사는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고 교통 상황을 잘 압니다.

마지막으로 정합성을 찾습니다. 어떻게 모든 진술이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재구성은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고장 났습니다(트럭 운전사). 개가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어머니). 파란 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을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빨간 차는 상황에 비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뒤에서 파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은퇴자). 청소년은 파란 차가 정지선을 넘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빨간불에’는 그가 생각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을 표시하지 않았고, 그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누가 누구를 쳤는지는 놓쳤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옳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무엇인가 옳은 것을 보았습니다. 구제되는 것은 각자가 본 것이지, 그가 그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8.5 저항들이 스스로 드러날 때

때로는 최초의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목격자가 다른 모든 목격자와 모순됩니다. 어떤 관찰은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는 아름다운 이론을 교란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탐정 작업과 나쁜 탐정 작업이 갈라집니다.

나쁜 탐정들은 교란하는 단서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맞추어 버립니다. “증인은 분명히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DE: „Der Zeuge muss sich irren.“)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맞아떨어집니다.” (DE: „Das passt schon irgendwie.“)

훌륭한 탐정들은 저항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이론이 불완전하거나 틀렸다는 단서이며, 교란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설명을 찾도록 강제합니다. 우리의 기대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진리를 향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8.6 탐정 작업으로서의 과학 혁명

위 세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발견은 탐정 원칙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위궤양은 스트레스, 매운 음식, 과도한 위산 때문에 생긴다는 학설이 지배했습니다. 당시의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산성인 위에서는 어떤 세균도 오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균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오염으로 여겼습니다.

호주 의사 두 명이 그 교란하는 발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세균은 거의 모든 궤양 환자에게서 발견되었고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배양액을 마셨고, 며칠 안에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겼습니다——아직 궤양은 아니었지만, 그 균이 위에서 병을 일으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궤양도 일으킨다는 것은 치료에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항생제로 그 균을 제거한 사람들은 궤양이 훨씬 덜 재발했습니다.

결과는 위장병학의 대변동이었습니다. 옛 관찰들도 구제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위산은 실제로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8.7 살아 있는 정합성

탐정 원칙은 추리소설이나 과학 연구만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매일 적용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 사람들을 이해할 때, 문제를 풀 때——어디에서나 여러분은 단서들을 모아 정합적인 그림에 맞추어 넣습니다.

그러나 이 정합성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전체 그림을 바꿀 수 있고, 교란하는 관찰은 수정을 강제하며, 더 나은 이론이 더 나쁜 이론을 대체합니다. 그것이 진리 탐구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진리는 전체다”라는 오래된 문장이 첫 번째 의미를 얻습니다. 진리는 개별적이고 고립된 진술들에 있지 않고, 모든 측면을 정합적인 전체로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단서는 그 안에서 제자리를 가집니다. 설명의 일부로서이거나, 눈에 보이게 보존된 열린 항목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경직되거나 닫혀 있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더 나은 통합을 통해 발전합니다. 내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그림은 버려지지 않고 확장됩니다.

따라서 진리는 체계적 정합성을 통해 생겨납니다. 모든 단서가 전체 그림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정합성은 자의적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 자체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림은 맞지 않으려는 단서까지도 포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탐정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모순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단서로 받아들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작업을 통해 종종 연관성을 찾아냅니다.

제9장: 단서의 여러 종류

탐정 원칙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고, 모든 관찰에는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1 무의식적 유능성의 지혜

3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 온 경험 많은 의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환자가 들어와 뚜렷하지 않은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검사 수치는 눈에 띄지 않고, 모든 검사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의사는 감지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DE: „Da stimmt etwas nicht.") 그는 그것을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자세의 어떤 점, 목소리 톤의 어떤 점, 여러 해에 걸쳐 읽는 법을 배운 아주 작은 뉘앙스의 어떤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감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유능성이며 수십 년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 의사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았고,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미세한 패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응축된 경험입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의식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의식적 실행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유능성에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모든 단계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규칙들을 적용합니다. 전문가는 경험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의식적 규칙들을 넘어서는 지식의 한 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대가 피아니스트는 더 이상 모든 운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장인은 재료가 제대

로 놓여 있는지를 감지합니다. 숙련된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봅니다.

이 직관적 유능성은 합리성의 반대가 아니라 합리성의 한 형식입니다. 의식적 반성 없이 작동할 만큼 깊이 연습된 지식 말입니다. 그것 역시 연습된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9.2 단서의 여러 성질

탐정은 복잡한 사건을 마주하고 가장 다양한 종류의 단서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확실한 사실들—지문, DNA 흔적, 감시 카메라의 기록 시각—은 위조하기 어렵지만, 대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줍니다. 어떻게 있었는지는 목격자들이 제공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으로 채색되어 있고 종종 모순적이지만 연관성은 풍부합니다. 왜 있었는지는 종종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환경, 시대, 공동체에서 무엇이 당연한 것으로 통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실험실 분석과 측정은 정밀하지만 누군가 해석하기 전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경험 지식은 빠르게 해석하고 종종 놀랄 만큼 잘 들어맞지만, 개별 사례에서는 스스로를 해명하지 못하며 기껏해야 많은 사례들에 걸친 실적을 통해서만 해명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는 다른 종류가 눈먼 곳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조사관은 그것들이 서로 보완하고 교정하도록 결합합니다.

9.3 일상의 탐정들—여러분 자신의 경험 법칙

여러분은 이미 일상에서 단서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기술적 문제에서는 여러분의 느낌보다 설명서를 더 신뢰합니다. 친구들 사이의 다툼에서는 어떤 조언서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을 감지하는 여러분의 감각을 더 신뢰합니다. 할머니의 요리법에서는 그것이 백 번이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동요시키는 뉴스 조각에서는 다른 출처들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한 경험 법칙은 가중치 부여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종류의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적중과 실패를 통해 그것들을 배웠고, 오랫동안 신뢰해 온 출처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그것들은 달라집니다.

9.4 통합의 기술

아주 다르게 "작동하는" 여러 종류의 지식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 **□□ 9: □□□ □□**
>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에는 다양한 "단서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각각에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줄지 점검해 보십시오:
> 기술 전문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를 점검합니다. 그의 보고는 정확하고 사실적입니다.
> 수십 년간 자동차를 수리해 온 경험 많은 친구는 엔진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리네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듣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의 평가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 판매원은 그 자동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누가 몰았는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왜 팔리는지. 주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있지만, 맥락은 풍부합니다.
> 시운전에서 여러분 자신의 직관은 묻습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느껴지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는가? 객관화하기 어렵지만 결정에는 중요합니다.
> 온라인 후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 모델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보여줍니다. 통계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슷한 매물과 비교한 가격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지만, 시장 상황과 협상 기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 여러분은 이 모든 상이한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결정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일 때 그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튼튼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의 발견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단서들은 제안된 것과 다르게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사실의 문제에서처럼 옳거나 그릅니다. 제2장의 실험과 같은 실험에서는 형식이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물 자체가 결정합니다.

9.5 출처들이 서로 모순될 때

그러나 상이한 단서들이 서로 모순되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말하지만, 경험 많은 친구는 회의적입니다. 판매

원은 신뢰성을 극찬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모델에 대한 불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제7장이 막대기로 보여준 것이 다시 나타납니다. 모순은 인식을 끝내지 않고 더 밀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이 특정 영역에서 어떤 출처가 가장 신뢰할 만합니까? 둘 다 옳으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그 모순을 해소하는 추가 정보가 있습니까?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이러한 심화된 분석은 그 모순이 없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통찰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의 충돌은 더 나은 이해로 가는 문이 됩니다.

9.6 반성적 탐정 작업

경험 법칙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들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이 그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것들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일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를 세 번 믿었고, 세 번 모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고쳐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네 번째에는 제안만이 아니라 자신이 점검하는 방식도 함께 점검합니다. 저는 발견된 사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더 이끌리고 있습니까? 저는 주로 제가 이미 믿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만 찾아보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종류의 단서를 정기적으로 간과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고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즉흥적인 판단 형성을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진리 탐구로 바꿉니다.

9.7 두 가지 일면성에 맞서

단서의 종류들을 아는 사람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두 가지 일면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는 측정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경험, 직관, 문화적 지식을 잡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의사가 환자의 자세에서 보았던 것을 간과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합리주의입니다. 비합리주의는 어떤 분석보다 느낌을 더 신뢰하고, 응축된 경험조차 상황이 새로울 때에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둘 다 판단을 겉보기에 더 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 종류의 단서를 다른 모든 단서를 심판하는 지위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각 종류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아는 사람은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종류의 단서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며 고유한 다루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무의식적 유능성은 무지가 아니라 응축된 경험입니다. 확실한 사실들, 경험 지식, 문화적 맥락, 직관을 서로를 점검하도록 한데 모으는 사람은 데이터에도, 자기 자신의 편견에도 내맡겨지지 않습니다.

제ii부: 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11장: 존재하지 않는 비교——정합과 대응이 함께하는 방식

우리는 아홉 장에 걸쳐 넓어지는 원을 그리며 같은 일을 했습니다. 곧 첫 문장부터 확인했고, 모든 확인이 서 있는 전제들을 발견했으며, 출발점으로서 전판단(前判斷)을 얻었고, 관점들을 코끼리에 끼워 맞추었으며, 모순을 문으로 사용했고, 단서들에 무게를 매기고 탐정처럼 통합(統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철학적 물음 가운데 하나가 생겨납니다. 진술은 현실과 일치할 때 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다른 확신들과 들어맞을 때 참입니까? "대응(對應)"과 "정합(整合)" 사이의 논쟁은 오래되었습니다. 한 견해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른 견해는 정확히 백 년쯤 전에 그에 대한 노골적인 대립항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해 온 하나의 상호작용을 잘못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11.1 겉보기의 딜레마

얼핏 보기에 정합과 대응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합 이론은 말합니다. "한 진술은 그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정당화된 확신들과 들어맞을 때 참이다." (DE: „Eine Aussage ist wahr, wenn sie zu all unseren anderen begründeten Überzeugungen passt.") 그것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새로운 생각은 우리 지식 전체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대응 이론은 말합니다. "한 진술은 그것이 현실과 대응할 때, 즉 일치할 때 참이다." (DE: „Eine Aussage ist wahr, wenn sie mit der Wirklichkeit korrespondiert, also übereinstimmt.") (물리학의 대응 원리—새 이론이 옛 이론이 검증된 곳에서 옛 이론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내적 정합도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쪽 모두 강한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합 이론은 어차피 확인이 오직 맥락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곳—논리학과 수학—에 자리 잡습니다. 한 진술은 체계의 원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때 증명됩니다. 아

무도 삼각형을 세계에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정합 이론은 일반화합니다. 곧 참은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합 이론은 현실과의 비교라는 난점을 우아하게 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난점을 피할 뿐입니다. 이 일치가 어떻게 성립해야 하는지라는 물음은 답하지 않은 채 남겨 둡니다.

대응 이론은 반박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와 아름다운 공상을 여전히 구별합니까? 망상 체계는 완벽하게 정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1.2 내부와 외부의 학습된 분리

두 이론 모두 동일한 구별을 전제합니다: 여기에 정신, 저기에 세계. 그 이론들에서 참된 것은 이 구별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물을 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해서 우리는 한때 그것을 배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자기와 세계 사이의 경계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아기는 바로 저항들에서 그것을 구축합니다: 공은 굴러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배고픔은 그것이 생기자마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엄마는 떠나가며, 바란다고 해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소망에 따르지 않는 것에서 그 구별이 생겨납니다: 저 밖에는 고유한 법칙들을 따르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분리는 하나의 성취이며, 현대인은 전적으로 그 안에서 삽니다. 당신이 불을 켜 둔 채 두고 왔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당신은 더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직접 가서 봅니다. 누군가 정원에 UFO가 서 있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먼저 그것이 당신이 아는 모든 것과 들어맞는지 검토합니다 – 그리고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원으로 나갑니다. 그때 분명해집니다: 어떤 것들은 정신 안에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만져 보고, 측정하고, 물어야 합니다 – 모델을 세계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응설에서 참된 것입니다 – 다만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학습된 삶의 실천입니다: 실험들을 갖춘 학문 전체가 그것의 배양된 형태입니다.

그때 학습되는 것은 그 분리이지 검증함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따르지 않는 무엇인가와 부딪히고, 다르게 시도하는 것: 그것은 이미 아기가 합니다; 이 검증함에서 아기는 그 분리를 비로소 배웁니다. 그 위에 구축되는 것은 역사를 가지며 어디서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학문의 방법들, 제10장이 다루는 출처들의 가중치 부여, 또한 타인에게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된 규칙도. 이 규칙은 누군가 그것을 명시하기

전에 이미 검증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제1장 및 11a.1). 배운 것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다시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배워진 검증함은 그에 선행합니다.

11.3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것

> ▯▯ 10: ▯▯▯▯▯ ▯▯ ▯▯ ▯▯ ▯▯
>
> 대응 이론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유와 현실 사이의 "비교"는 실제로 일어납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가 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머릿속의 생각을 머리 밖의 비와 비교합니까?

일상적인 경우 나는 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창턱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거리가 어둡게 번들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비가 온다.' 여기서 생각은 지각을 그 결론으로서 따라옵니다. 어떤 것이 물음을 제기할 때에만 방향이 뒤집힙니다. 누군가 비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재킷 없이 나가고 싶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난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놀라움입니다. 곧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정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자 나는 곰곰이 생각하거나 보러 갑니다. 대개는 번갈아 가며 둘 다 합니다.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물음으로서, 기대로서, 그리고 생각은 자신의 지각을 찾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문을 열고 축축한 공기의 냄새를 맡고, 일기예보를 읽고, 비 레이더를 보고, 막 들어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매개됩니다. 자신의 봄, 자신의 들음, 도구, 텍스트, 타인의 말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들은 똑같이 무게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를 직접 본다면, 유리창의 물방울들, 문지방의 튀는 물방울들을 보거나, 밖으로 나가 비에 젖는다면, 물음은 답을 얻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의심은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비가 온다고 말한다면, 그의 말은 그가 가지고 온 것과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물이 떨어지는 우산, 젖은 머리, 젖은 옷이 그 말을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또는 그가 차고에서 막 나왔다면,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기예보와 비 레이더는 대체로 옳고 세부에서는 틀립니다. 어떤 해안에서는 예보가 꽤 자주 들어맞지 않고, 레이더가 구름 속에서 보여 주는 것이 언제나 아래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들이 자신의 피부에 떨어지는 비만큼 분명하지 않을 때 그것들에 무게를 매기는 것은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상황과 지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 이 모든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식 수행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무게 매기기가 일어나는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여러분은 비교하고, 정돈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을 훨씬 넘어서까지 성립합니다. 기억들, 보고들, 책들, 측정값들, 통계들, 증명들, 실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 의해 처리될 때에만 근거가 됩니다. 가장 정교한 도구가 측정하는 것조차도 그 눈금이 읽히고, 그 작동 방식이 이해되고, 그 결과가 자리 잡힐 때에만 인식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단지 주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는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해서 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측정은 누군가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해서 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인식 바깥에서 우리의 인식을 세계 옆에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확인하는 모든 것은 동일한 진리 실천 안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것에서 두 계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스스로를 강요합니다. 비는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내립니다. 표시창의 숫자는 그 숫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증인의 보고는 그 보고 그대로 읽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동시에 능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이해되고, 자리 잡히고, 무게가 매겨지고, 의심됩니다. 어떤 인식도 둘 중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각도 사라지지 않는 선율처럼 스스로를 강요할 수 있고, 심지어 봄도 시선, 걸음, 유리를 통해 조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기가 이끄는가 하는 차이에 우리의 모든 확인이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나는 숙고를 멈추고 가서 봅니다. 나는 나에게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기압계의 눈금이든 밖에 있다 온 사람의 말이든 말입니다.

여기에도 옛 논쟁이 덮어 버리는 단순한 통찰이 놓여 있습니다. 대응은 내용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물을 맞히는가? 정합은 형식에 대해 묻습니다. 인식된 것이 나머지 인식된 것과 들어맞는가? 그러나 내용과 형식은 서로 분리된 두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형성 없이는 어떤 내용도 얻을 수 없고, 내용 없이는 어떤 형식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둘은 동일한 수행 속에서 만나며, 이미 여기서 두 이론이 서로를 필요로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11.3a 실제로 일어나는 비교

이것이 현실과의 비교가 환상이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결론일 것입니다. 상상된 것은 심연을 가로지르는 비교뿐입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생각이 있고, 저기에는 완성된 세계가 있으며, 그 사이에는 둘을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비교입니다. 실제 비교는 더 일상적이며, 끊임없이—양방향으로—진행됩니다. 대개 지각이 먼저 오고, 그것을 파악하는 생각은 뒤따르는 것에 맞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음이 먼저 있는 곳에서는 생각이 자신의 지각을 찾습니다. 나는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물방울들을 봅니다. 생각은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에 맞서 입증됩니다. 기대는 충족되거나 실패합니다. 보고는 측정과 일치하거나 측정과 모순됩니다. 기억은 문서에 의해 확증되거나 정정됩니다.

그리고 확인 수단들은 서로를 통제합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지평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걸어가면 그것은 물러납니다. 봄은 걸음이 실현하지 못하는 무엇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 앞에 대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 하면 손은 빈 공기를 움켜잡습니다. 더 이상 어떤 눈도 닿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초기 우주, 한 나라의 인구를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미경, 흔적, 측정 계열, 통계, 보고를 가지고 작업하며, 확인은 거기에서도 서로 다르게 매개된 접근들을 관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한 측정 방법이 다른 방법을 통제하고, 예측은 나중의 결과들과 대조되며, 독립적인 손들이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두 접근의 단순한 일치만으로는 멀리 나아가지 못합니다. 꿈도 여러 감각을 속일 수 있고, 망상은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성장함으로써 엄격해집니다. 달라지는 시각 아래에서,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독립적으로 보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물이 합법칙적으로 응답하는 개입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두 낡은 낱말은 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대응은 생각이 사물의 두 번째, 정신적 복사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응은 우리의 서로 다른 접근들이 그 사물에 의해 공동으로 지탱되거나 공동으로 정정된다는 사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합은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들을 모순 없이 짜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합은 모든 접근들이 제자리를 얻고 방해하는 경험이 억압되지 않는 질서입니다. 첫 번째 것이 없다면, 닫힌 망상이 진리로 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없다면, 인상들, 측정들, 보고들은 의미 없는 더미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이론이 갈라놓았던 것이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정합을 여기서처럼 넓게 취하면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정합을 단지 생각들 사이의 들어맞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것과의,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과도 들어맞음으

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또한 정합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이 충돌하는 생각은 더 이상 누군가가 알고 가정하는 나머지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논리적 균열들이 일어나는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대응 확인은 정합 확인 곁의 두 번째 절차가 아니라 정합 확인의 가장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곧 저항적인 것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제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단지 생각들 사이의 들어맞음으로서, 대응 이론의 반론은 유지됩니다. 망상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정합적일 수 있습니다. 망상을 진리에서 갈라놓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나중에 꿰맞춥니다. 망상에 결여된 것은 스스로에게 줄 수 없었을 답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준비입니다. 망상은 어떤 재해석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저항조차도 재해석합니다.

저항은 이로써 또한 규정됩니다. 저항은 바깥의 현실이 여기 안의 사유를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이 더 이상 함께 붙들려 있지 않다는—그리고 아직 그렇지 않은 어떤 것을 정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비교에서 안과 밖의 구별을 전제하는 대신에 얻습니다. 어떤 것들은 조종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스스로를 강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상 앞에서 바람이 실패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미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내게 속하고, 저것은 자기 고유의 법칙을 따릅니다. 아이는 움켜잡지만 닿지 못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시도하며, 점차 자신의 몸, 타인들, 세계를 구별합니다. 정신과 세계의 분리는 인식이 처음에 놓아야 할 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결과이며 경험 안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써 생산되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고 자기 고유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앎입니다.

11.3b 우리는 행위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장의 예들은 3장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 식탁에서 이미 보여 준 것과 공통점을 갖습니다. 지평선의 가상을 폭로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겉보기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확인 수단들은 탁자 위의 카드처럼 조용히 나란히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행위를 통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벽이 비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드립니다. 학문도 체계적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학문은 의도적으로 조건들을 바꾸고, 도구를 만들고, 반복하고, 예측하고, 개입

합니다. 행위 속에서 사물이 대답합니다. 사물은 기대에 굽히거나 기대에 저항합니다. 내가 다가갈 때 물이 물러난다는 것을 나는 오직 내가 다가가기 때문에 경험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참은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입증하는 것, 곧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참이 있으며, 부록 B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 줍니다. 그러나 행위만을 심판자로 삼는 순간 그것은 오도합니다. 어떤 행위도 파악된 한에서만 무엇을 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봄과 걸음 사이의 모순을 생각할 때에만 "그것은 속임수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생각 없이는 물러남은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생각 없는 행위는 인식이 아니라 비틀거림일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사물에 부딪히고 사물에 부딪히지만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위, 경험, 가능한 저항에 결코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사유는 공허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둘은 맞물립니다. 우리는 이해에서 나와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들에 의해 이해를 바꿉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입증함'조차 단순한 작동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속임수는 한동안 작동할 수 있고, 거짓 이론은 우연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참은 성장하는 확인—서로 다른 접근들, 대조 확인들, 결과들—에 맞서 견디는 것입니다.

11.3c 사물 자체는 우리의 현재 그림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나온 것이 함정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가 판가름나는 물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식 수행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가지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가 그린 그림들만 가질 뿐입니까? 우리는 거품 속에 앉아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 뒤에 남아 있습니까?

이 물음은 정당한 경고를 품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그림이 반드시 사물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간과할 수 있고, 잘못 무게를 매길 수 있고, 부적절한 질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너머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질서 안의 한 항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붙들어 둡니다. 이 유보는 머릿속의 개념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보는 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확인 행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이미 전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시 볼 근거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고, 모든 오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 너머라는 생각은 확인 실천이 무언중에 담고 있는 것을 명시

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곧 사물이 우리의 그림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우리는 이 항목이 무엇을 덮고 무엇을 덮지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규정된 한계들을 많이 압니다. 눈은 현미경만이 보여 주는 것을 분해하지 못하고, 모든 도구에는 도달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들은 경험 안에서 드러납니다. 실패들 속에서, 모순들 속에서, 더 나은 수단들의 성공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열린 물음으로 남지, 두 번째 세계가 아닙니다. 인식 자체의 주장된 한계는 다릅니다. 누군가 우리의 모든 인식이 단지 우리의 그림일 뿐이며 원리적으로 참된 사물을 빗나간다고 주장하려 든다면, 그렇게 알기 위해 그는 이미 그 사물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그림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제시한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일 수 없습니다. 인식 전체의 한계가 어디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판단이 그 한계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판단은 한쪽 면은 결코 닿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분리의 양쪽 면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원리적인 인식 한계로서, 그 너머는 스스로를 무효화합니다.

그러나 이 반론의 가장 강한 형태는 한계를 비교를 통해 긋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한계를 긋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스스로 가져오는 형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든지, 우리가 원인들을 묻는다든지 하는 형식들 말입니다. 따라서 반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사물들을 이 형식들 안에서 나타나는 대로만 인식할 뿐이며, 그 형식들 자체는 사물들 자체에는 속하지 않는다. 사물들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 너머는 그때 두 번째 대상이 아니라 한계의 표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론은 위에서 언급한 질서 안의 항목에 가까워지며, 그 범위에서는 정당합니다. 다만 "형식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DE: „die Formen stammen von uns")로부터 형식들이 또한 사물들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오는 것은 오직 둘 사이의 심연을 이미 전제할 때뿐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어떤 형식은 경험 안에서 정정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공간이 학교 기하학의 법칙들을 따른다는 것은 오랫동안 모든 직관의 조건으로 간주되었지만, 물리학은 물체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질량이 큰 곳에서는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로써 우리 직관의 형식도 정정되는지 아닌지는 논쟁될 수 있습니다. 보여진 것은 사물들의 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계는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계는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곧 우리가 곧 이야기하려는 정정입니다.

그 항목이 실제로 덮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정의 운동 말입니다. 기대가 실패합니다. 관찰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간과된 문서가 그림을

바꿉니다. 나중 세대는 이전 세대에는 자명해서 보이지 않았던 전제를 발견합니다. 오직 뒤돌아볼 때에만 그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오류, 공백, 맹점(盲點)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리상 어떤 방식으로도—결코, 아무에게도, 아무것에서도—드러날 수 없는 오류는 진리와 구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류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오류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은 뒤돌아봄의 통찰이지 오늘을 위한 구분은 아닙니다. 내일 내가 보게 될 잘못을 나는 오늘 나의 건전한 판단들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할 수 있다"(DE: „ich könnte mich irren")는 일반적 유보는 특정 판단에 대한 반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판단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어떤 판단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진리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진리 자체에 속합니다. 진리는 진리 과정↑ 안에 있으며, 더 나은 질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진리를 반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오류가 실천적으로 되는 곳에서만 근거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들어맞지 않는 단서에서, 모순에서, 열린 물음에서, 추가 탐구가 요청되는 보존된 항목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반박은 정당하며, 그것을 통과한 알려진 진리는 이전의 진리보다 더 낫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오류가 더 작은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아직 접근 가능하지 않을 뿐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잘 정당화된 그림으로 작업하고, 그 열린 자리들을 눈에 보이는 채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그 너머는 대상들 곁에 숨겨진 또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사물—그 안에서 추가 경험들이 지탱할 수 있고, 이전 질서들이 깨질 수 있으며, 나중의 정정들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의 이름입니다. 사물 자체는 우리의 현재 그림보다 더 많지만, 어떤 벽도 그것을 그림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잉여는 우리의 그림이 그것 위에서 자라는 운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곧 바람이 부서지는 저항 속에서, 아이가 이미 세계를 발견한 바로 그 저항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거품은 그렇기에 거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정신 안에 서 있고, 저기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세계와 인식적 관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계가 우리의 사유를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계는 우리의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대응과 정합 사이의 다리입니다. 저항 속에서 사물이 우리의 수행 안에서 스스로를 알리고, 사유 안에서 그 알림이 맥락을 얻습니다.

11.4 이정표로서의 저항

일상생활에서 이 저항은 대략 이렇게 스스로를 알립니다. 여러분은 열쇠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단단히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섞인 생각은 한계에 부딪히고, 이 한계는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저항으로 드러납니다.

또는 여러분은 12 곱하기 13을 계산하여 150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옳다고 한동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순간(다른 계산 방법들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간), 저항이 드러납니다. 수학적 현실은 여러분의 첫 충동과 모순되더라도 관철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차에 기름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의 기억들("나는 지난주에 주유했다" (DE: „Ich habe letzte Woche getankt")) 및 계획들("나는 공항으로 운전해 가고 싶다" (DE: „Ich will zum Flughafen fahren"))과 정합적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엔진이 멈추고, 연료 게이지는 비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정합적 확신들은 저항하는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며,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현상도 설명하는 새로운 정합을 발전시켜야 합니다("내가 잘못 생각했다" (DE: „Ich habe mich geirrt") 또는 "탱크에 구멍이 났다" (DE: „Der Tank hat ein Leck")). 객관성은 이전 단계가 이미 가리킨 곳에서 드러납니다. 곧 경험 안의 저항에서입니다.

11.5 정합과 대응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이로써 정합과 대응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두 절차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정합은 모든 경험들과 확신들이 하나의 정합적 전체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사건 말미의 탐정처럼, 모든 단서가 제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대응 확인은 그것의 가장 엄격한 경우입니다. 어떤 재해석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것도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론은 뉴턴이 설명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해야 했고(이전 지식과의 정합), 뉴턴의 이론이 반세기 동안 실패한 오래되고 고집스러운 관찰—수성 궤도의 회전—을 설명해야 했으며(대응), 모든 것을 하나의 우아한 이론으로 끼워 맞추어야 했고(체계적 정합), 스스로를 입증하는 새로운 예측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미래의 대응).

이 이론은 그로써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새로운 관찰들, 새로운 실험들, 새로운 응용들에 맞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입증해 나갑니다. 그것이 공간, 시간, 중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확인에 맞서 견

뎌서 알려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포괄적인 이론은 그것을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자신 안으로 지양할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11.6 이 통찰이 해방적인 이유

이 인식은 우리를 잘못 제기된 문제에서 풀어 줍니다. 우리는 심연을 가로지르는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정신, 저기는 세계, 그리고 그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점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탐정처럼 우리 경험의 모든 계기들을 주의 깊게 통합하고 저항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바깥 세계"는 그로써 상실되지 않습니다. 바깥 세계는 저항 속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안쪽 세계"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안쪽 세계는 저항하는 경험들과 끊임없이 교환합니다. 객관성은 경험의 모든 계기들의 통합을 통해 가능해지고, 주관성은 이 통합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탐정 원칙에서와 같습니다. 모든 단서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것들은 하나의 정합적인 이야기를 이루어야 하며,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실"은 이 통합 과정에서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문제의 절반은 명확해집니다. 곧 확인과 정돈은 동일한 운동이며,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열려 있습니다. 곧 두 질서가 모두 경험에 맞서 견딜 때 무엇이 한 질서를 다른 질서와 구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분절(分節) 자체의 물음입니다. 답의 일부는 19장이 제시합니다. 더 나은 질서는 다른 질서의 현상들을 구제하고 다른 질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둘이 똑같이 많은 것을 성취하는 곳에서는 물음이 여기서는 열려 있습니다.

11.7 실천적 적용

진리 탐구에 대해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정합과 대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은 하나의 과정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새 정보를 받으면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과 들어맞습니까? 그리고 더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것 또는 여러분의 그림이 어떤 재해석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무엇과 충돌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다른 시험이 아니라 그것의 진지한 경우입니다. 어떤 발견이 들어맞지 않는다면, 어떤 변경이든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발견이 그것이 모순되는 것에 과연 속하는지를 말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이미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보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그림을 어떤 저항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저항하는 사실들에서 실패할 때, 개입의 깊이에 따라 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역 제한(範圍制限)의 경우 이론은 유효하게 남지만, 그 이론이 주장한 영역의 일부에서만 그러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이론을 극한 경우로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이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뉴턴 역학은 일상생활의 속도와 중력장들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남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것들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설명적 수정(說明的修正)의 경우 관찰된 현상들은 유효하게 남지만 설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연소는 계속 관찰되지만, 플로지스톤이라 불린 물질의 방출이 아니라 산소의 흡수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적 전환(方法的轉換)의 경우, 물음 자체가 잘못 놓였으며 새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물음은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물음들로 분해됩니다. 점성술적 물음 "별들은 내 운명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DE: „Was sagen die Sterne über mein Schicksal?")에서 천문학적 물음 "천체들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DE: „Wie bewegen sich die Himmelskörper?")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더 이상 하늘에 묻지 않는 인간적 물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DE: „Wie deute ich mein Leben?")가 있습니다. 새로운 물음들 가운데 어느 것도 옛 물음을 완전히 상속하지 않습니다. 옛 물음 속에서 인식을 구한 것과 의미를 구한 것은 각각 자기 고유의 분야를 찾습니다.

모든 경우에 요점은 현상들을 더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 학문이 말했듯이 현상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론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빈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적 이론들은 적어도 몇몇 현상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 진리는 더 나은 이론들로 통합되지, 단순히 거부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함께 끼워 맞출 수 없을 때, 그것은 여기에서 아직 발견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로써 정합 이론과 대응 이론 사이의 옛 논쟁은 해소됩니다. 진리는 사실들과의 단순한 일치도, 사유의 순수한 구성도 아니라, 그것들이 통합되는 살아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 안에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와 함께 끼워 맞추기가 맞물립니다.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이미 둘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인식 가능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 탐구의 수행 속에서만 열립니다.

물론 이 통합은 모든 곳에서 같은 재료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의 예들이 이미 그것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피부에 떨어지는 비는 들어와 비가 온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과 다르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에게 그로부터 무엇이 따라 나오는지는 다음 단계가 보여 줍니다.

더 읽어보기: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 장 12

11a장: 무엇이 되받아치는가——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꾸는 것

11a.1 저항이 스스로를 알리는 방식은 얼마나 다른가

지금까지의 예들은 한 종류였다. 열쇠는 주머니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계산은 맞거나 틀리거나, 탱크는 비어 있다. 저항은 신속하게, 모호함 없이,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알린다.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니며, 그 차이는 사안 자체에 속한다.

돌은 손에 잡히게 저항한다.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리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들어 보려는 사람은 그것을 팔에서 느낀다. 피드백은 즉시 오고, 그것은 틀림없으며, 아무도 말로 그것을 없앨 수 없다. 공중부양이 보고되기는 하지만, 일화 속에서만일 뿐, 누군가가 그것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은 결코 아니다——바로 이 때문에 그 보고 역시 저항에 비추어 확인된다.

자기 자신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한다.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벽이 아니라 완고함에 부딪힌다. 즉, 그것은 생각보다 더디게 나아간다. 습관을 끊으려는 사람은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자신이 인내심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은 세 번째 반복에서 자신에 대해 가졌던 그림이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저항은 더 부드럽고, 더 느리며, 더 쉽게 간과된다——그러나 그것은 마찬가지로 실재하며, 어떤 저울도 측정하지 못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저항한다. 누군가가 생각했던 대로 반응하리라는 기대는 대개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아이는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동료는 어떤 말을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며, 다툼에서 상대방은 내가 짐작하지 못했을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저항은 완고함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스스로를 알린다——그리고 그것은 사물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림을 바로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돌에게는 없는 두 번째 방식으로도 저항한다. 돌은 기대를 반박하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내 주장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 이 저항은 내가 내 기대를 바로잡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근거를 빚지고, 그도 나에게 근거를 빚진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결코 그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또한 그들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들리지 않는 돌은 내 기대가 옳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왜 그런지는 나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상대방은 무엇이 틀렸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돌의 저항보다 더 강한 저항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저항이다. 즉, 근거를 제시하며, 그 근거를 나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저항이다. 따라서 그것이 언제나 더 나은 것도 아니다. 내 추측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마련한 시도는 단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반론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판단한다. 그는 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한 나에 대한 것도 본다. 내가 간과하는 것을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조심스러운 시선도 자신의 사각지대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인식에는 타인의 반론이 필요하다. 자신에게는 스스로 줄 수 없었던 대답, 그리고 11.3a장에서 착각이 진리와 구별되었던 바로 그 대답은 종종 그에게서 온다.

이것은 내가 그에 대해 만드는 그림에도 적용된다. 나는 그런 그림을 언제나 만든다.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만남들로부터, 그의 역할로부터, 내가 사람들 일반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말이다. 그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며, 그것을 보충한다. 이 그림은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대답함으로써 바로잡힌다. 따라서 그것은 가까움보다는 상대가 얼마나 대답할 수 있는가에 더 의존한다. 책도 저항한다. 책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말할 뿐, 내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책은 같은 것을 말한다. 편지는 대답하지만, 다만 늦게,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물은 것에 대해서만 대답한다. 전화나 채팅에서는 대답이 즉시 오지만, 사람이 보여 주는 것의 일부에 대해서만이다. 즉 목소리, 글자, 화면의 모습에 대해서만이다. 상대방은 서로를 보는 만남 속에서 가장 충만하게 대답한다. 낱말로, 그 낱말 앞의 망설임으로, 시선으로.

읽기도 만남이다. 다만 대등하지 않은 만남일 뿐이다. 이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신에게 반론이 있는 곳에서 이 텍스트는 그 반론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 구절을 다시 읽어도 그것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그 점에서 당신에게도 말하며, 당신은 이해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어쩌면 전과 다르게 어떤 것을 봄으로써 그에게 대답한다. 다만 그 대답이 그에게 도달하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듣기보다 많고 대화보다 적다. 즉, 한쪽 반의 이해이다. 읽는 것에서는 두 측면이 구별될 수 있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발견하고 서술한 방식, 그의 관심, 그의 어조,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서 신경 쓰이게 되는 점은 그의 것으로 남는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종종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본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와 환경 속에 서 있고,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어떤 사람을 말이다. 반대로 그 생각은, 참인 한에서, 더 이상 그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그것으로 작업하고, 확장하고, 전달할 수 있다. 마치 누가 그 규칙을 발견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산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불문율, 기대, 당연시되는 것——은 가장 늦게 저항하고 가장 파악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 온 사람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종종 몇 달이 지나서야 알아차린다. 그것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어떤 것이 이유를 말해 주는 사람 없이 계속해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어릴 때부터 그 규칙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그 규칙들은 그가 어차피 따르기 때문에 그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이 계열은 정말로 실재하는 것에서 덜 실재하는 것으로 가는 기울기를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저항이 서로 다른 속도로 다가오고, 명료성이 다르고, 간과하기 쉬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돌은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의 조바심은 수년간 무시될 수 있다. 낯선 문화는 평생 오해될 수 있으며, 그 어떤 단 한 번의 실패도 그 문제를 강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저항이 부드러울수록, 그것이 알아차려지고 사고되는지에 더 많이 달려 있다. 돌의 경우에는 밀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의 조바심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 반복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앞 장에서 모든 행위에 대해 성립했던 것——어떤 행함은 오직 그것이 파악되는 한에서만 어떤 것을 열어 준다는 것——이 여기서 실천적이 된다. 아무도 하나로 모으지 않는 경험은 그냥 지나가며, 저항이 조용할수록 더욱더 그렇다.

그러므로 단지 살아낸 것의 많고 적음은 아직 경험이 아니다.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30년의 경험이 아니라 한 번의 경험을 30번 한 것이다.

11a.2 확인하는 사람은 변한다

저항은 개입하는 이에게 가장 분명하게 스스로를 알린다. 돌을 만져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무게를 배우지 못한다. 외국어로 한마디도 말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완고함을 배우지 못한다.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여기에는 동일한 사안에 속하는 이면이 있다. 확인하기 위해 개입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변한다. 이것은 안타까운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본 같은 운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게 일어난다.

내가 들어 올린 돌은 그 뒤 다른 자리에 놓인다. 내가 나무를 채취한 숲은 다른 숲이다. 이것이 "변화"라는 말에서 먼저 떠올리는 손에 잡히는 형태이다.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꾼다——자신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바꾼다. 습관을 끊는 사람은 그 뒤로 다른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 변화가 바로 확인이다. 자신의 완고함을 그것에 작업함으로써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은 그들도 바꾼다. 모든 질문은 질문받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모든 대답은 질문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은 그와 말해야 한다——그리고 그와 말한 사람은, 그 대화가 없었다면 그가 있었을 모습 그대로의 그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의 조건들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바꾼다. 그가 하는 일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하지 않는 일에 의해서 말이다. 여기서도 변화는 가장 느리고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어떤 낱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그것이 귀 기울여짐을 얻는 것은, 그 낱말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을 바꾼다.

그러나 저항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든 저항이 똑같이 많은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주먹이 탁자를 치면 탁자는 버틴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된 일이었으며,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배울 것이 있는 곳은 어떤 것이 기대되거나 의도된 것에 들어맞지 않는 곳이다——손이 그것을 통과한다면, 돌이 보기보다 무겁다면, 혹은 아무리 원해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계산이 풀리지 않는다. 어떤 개념은 아무리 자주 시도해도 모순 없이 규정될 수 없다. 둘 다 옳아 보이는 두 진술이 서로 배제한다.

이것은 앞 장이 서술한 것과 같은 과정이다. 하나의 연관이 더 이상 함께 유지되지 않는다. 바깥에서 오는 것과 사고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은 그 때문에 두 종류의 확인이 아니다——둘 다 동일한 연관 속에서 하나의 균열로 스스로를 알린다.

그럼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다만 그 차이는 종류가 아니라 불가피성에 관한 것이다. 개입하는 이는 신속한 대답을 얻고, 그것을 거의 흘려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물은 그것이 맞든 맞지 않든 대답하기 때문이다. 단지 생각으로만 해 보는 과정에서는 방해되는 것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보조 가정을 찾고, 한계를 옮기고, 그 사례를 예외로 선언한다. 그래서 무언가 되받아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조언이 나온다. 저항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그곳에서는 가장 우회하기 어렵다.

11a.3 피드백

저항에서 배워진 것은 인식자를 바꾼다. 바뀐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개입한다. 다르게 개입하는 것은 다른 저항을 만들어 낸다——그리고 그것이 다음의 확인 대상이다. 인식은 그것이 인식하는 것의 바깥에 서 있지 않다.

이 텍스트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다. 이 텍스트는 단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실험들을 수행한 사람은 그 뒤에 다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서술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그 텍스트에 들어간 독자와는 다른 독자가 그 텍스트에서 나온다.

11a.4 저항이 제거될 때

저항은 사물이 스스로를 알리는 그것이다. 저항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다——경험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되받아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일어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자신의 선택이다. 자신의 기대를 확인해 주는 것을 읽고, 그것과 모순되는 것을 치워 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되받아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는 그 안에서 수년간 계속 옳을 수 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 기분이 좋으며, 철저한 확인과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종종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형태는 반박 대신 배치(配置)이다. 반론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에 위치를 지정하는 사람——“그건 반대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DE: „das sagen die von der anderen Seite“)——은 반론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반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것이다. 차이는 그 이후에 가능한 것에 놓여 있다. 반박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지만, 배치는 그럴 수 없다.

세 번째 형태는 마련된 것이다. 공간이 바깥에서 관리될 때,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읽는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물 자체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일이 결정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정상성의 척도가 문제가 될 때 다루어진다.

세 경우 모두 효과는 같다. 잘못된 견해가 지속되는 것은 더 작은 해악이다. 잘못된 견해는 다른 자리들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반론을 떨쳐 버린 사람은 자신의 확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움 능력을 없앤 것이다. 그

는 여전히 확신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그리고 그는 그 차이를 내부에서 볼 수 없다.

이것은 모든 방향에서 성립하며, 바로 거기에 시험이 있다. 자신이 거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기는 쉽다. 그들은 자기에게 맞는 것만 보고, 스스로를 차단하고, 서로끼리만 말한다. 바로 그 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알아차리기는 훨씬 더 어렵다——그 까닭은 사안 자체에 있다. 차단된 공간은 안에서 보면 열린 공간과 똑같이 보인다. 사람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동의를 가지고 있다. 빠져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는 자신의 확신들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에 던지는 질문이다. 내게 중요한 어떤 사안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바꾼 때가 언제인가? 날짜를 댈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 되받아치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나도 댈 수 없는 사람은 늘 옳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내밀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반론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따라 나온다. 반론은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도대체 확인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평화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꺼 버린 것이다.

그러나 돌이 동기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한다면——동일한 진리의 형태들이 별들과 이야기들,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도 성립하는가?

더 읽어보기: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장 2 and 3

제iii부: 서로 다르게 검증하기

13장: 현실의 여러 영역

13.1 있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

> ▯▯ 11: ▯ ▯▯▯, ▯ ▯▯▯ ▯▯▯
>
> 두 문장이 참인지 검증해 보십시오. 첫째: “탁자가 갈색이다.” (DE: „Der Tisch ist braun.“) 둘째: “햄릿은 위대한 드라마다.” (DE: „Hamlet ist ein großes Drama.“) 각 경우에 무엇을 하십니까——무엇을 기준으로 검증하시겠습니까?
> 탁자의 경우에는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하며, 필요하다면 더 밝은 빛에서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햄릿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는 것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읽고, 비교하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아마도 한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두 문장 모두 무엇인가를 주장하며, 둘 다 검증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참”이라는 말은 둘에서 같은 뜻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검증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성립하는지가 무엇에서 드러나는지입니다.

자연과학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합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13.2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 구별은, 11장에서 안과 밖 사이의 차이가 그랬듯이, 지각할 수 있는 차이에 근거합니다.

자연은 사유하는 존재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것입니다. 물리학 책은 원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 주며, 그 실험들은 도쿄에서도 베를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연법칙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한, 문화나 개인적 신념과 무관하게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 즉 기술, 사회, 문화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동화는 용기와 비겁에 대해, 시련을 통한 한 인물의 변화에 대해 무엇

인가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건드림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 왜 서로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지 묻는 곳에서, 그것은 철학이라고 불리며, 이 장이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13.3 진리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검증되는가

11a장이 저항을 통해 보여 주었듯이, 현실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여 진술들은 서로 다르게 검증되며, 바로 그 의미에서만 – 오직 그 의미에서만 – 여러 가지 진리의 형식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11a.1장에서 다룬 저항의 종류들에 대략 대응합니다. 돌의 손에 잡히는 저항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서 부딪히는 끈질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타당한 것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순이 이러한 각각의 검증에 동반합니다.

경험적 진술은 반복 가능한 실험과 실제로 들어맞는 예측에서 검증됩니다. "물은 0°C에서 언다" (DE: „Wasser gefriert bei 0 °C")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물이 실제로 그 온도에서 얼 때 참입니다.

실존적 진술은 살아 낸 삶에서 검증됩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DE: „Liebe ist stärker als Hass")는 것은 이 통찰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 결과를 통해 그것이 어려운 곳에서도 자신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경험할 때 검증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한동안 도움이 되다가도 기만할 수 있습니다. 통찰은 그것에 불리하게 말할 수 있는 경험들을 견뎌 낼 때에만 검증됩니다.

문화적 전승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자신들의 경험을 감당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검증됩니다. 이것은 지적이지 증명은 아닙니다. 적을 날조하는 전승도 공동체를 결속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들어맞지 않는 경험들과 그것이 낳는 결과들도 견뎌 낼 때에 비로소 참이라고 불립니다.

예술은 고유한 형식을 지닙니다. 소설, 영화, 연극 등 어떤 세계를 재현하든, 표현된 세계는 내적으로 정합적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마법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알아볼 수 있는 규칙을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조롱으로 반응합니다. 단절은 기대를 깨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그 단절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혼란에 관한 영화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임의로 이해 불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작품은 여기서 또 다른 의미로 참이라고 불립니다. 참된 친구에 대해 말할 때와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즉 예술

작품이 예술작품이어야 하는 것일 때, 다시 말해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숨겨져 버렸을 것을 보이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침묵에 머물렀을 감정에 형태를 부여할 때 참입니다. "햄릿은 위대한 드라마다" (DE: „Hamlet ist ein großes Drama")라는 판단은 그 작품이 이 일을 해낼 때 참이며, 수세기에 걸친 많은 독자들의 읽기, 비교, 경험을 통해 검증됩니다. 위대한 작품들은 하나의 해석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을 감당합니다. 햄릿은 복수에 관한 드라마인가, 망설임에 관한 드라마인가, 정의로운 행동의 불가능성에 관한 드라마인가? 햄릿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지만, 다함이 없습니다. 선전은 오직 하나의 독법만 허용하는데, 그것은 규정된 독법이며, 키치는 오직 하나의 독법만 허용하는데, 그것은 감상적인 독법입니다.

13.5 범주 오류

어느 한 영역의 기준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때 일은 어려워집니다.

측정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는 9.7장의 과학주의는 그 결과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호르몬 분비로, 예술을 신경 반응으로, 종교를 진화의 부산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연인, 독자, 신자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의 오류는 실존적 진리나 형상적 진리를 자연과학적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지릅니다.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다." (DE: „Die Erde ist unsere Mutter")는 우리가 자연에서 살아가며 자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떠받치는 이미지입니다. 지구가 의식을 지닌 존재라는 주장으로서는, 그 문장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모든 확신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이러한 형태들 각각에는 그것에 비추어 실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기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고,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13.6 분리하지 않고 구별하기

서로 다른 형태들은, 그것들을 둘러싼 논쟁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드물게 서로 모순됩니다. 현대 의학은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연구는 어떤 치료가 측정 가능하게 효과가 있는지 보여 주고, 의사와 환자의 체험적 지식은 데이터를 보완하며, 의미, 희망, 존엄의 물음들은 어떤 측정 기기도 그것들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치유에 속합니다. 이 형태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들에 종속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그것

들은 건강에 대한 하나의 이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곳에서는, 그것은 여느 모순과 같은 하나의 모순이며, 작업을 통해 풀려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영역들이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법, 그림, 행위는 온도를 읽어 내듯 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증하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제15장: 만들어진 것을 이해하기

15.1 여러분은 끊임없이 해석합니다

> **□□ 12: □□ □□□ □**
>
>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페이지에 있는 기호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글자만 읽습니까——아니면 그것을 해석합니까? 단어만 이해합니까——아니면 의미를 파악합니까? 논리만 점검합니까——아니면 어조, 의도, 말해지지 않은 것도 느낍니까?
> 아마 각 경우에 후자일 것이며, 별다른 노력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고 있는 일, 즉 해석하기에는 이미 4장에서 읽기를 배우면서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해석학(hermeneutics)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헤르메네우에인'(hermeneuein), 곧 설명하다, 해석하다, 번역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 안에서 신들과 인간들 사이를 통역한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이미 들었습니다. 해석학이 학문이 되기 전에, 그것은 여러분이 미소를 해석하고, 메시지를 이해하고, 정치 연설의 맥락을 파악할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15.2 목적

만들어진 것을 자연물과 구별하는 것은 의식적 목적입니다. 돌은 의도 없이 중력 법칙에 따라 떨어집니다. 글, 그림, 법, 발명품은 무언가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 도구, 모든 글, 모든 제도에는 목적들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선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안에 보존된 목적들을 읽어냅니다.

□□ 13: □□□□ □□ □□

텍스트를 대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이 제기됩니까? 기관을 대할 때는요? 그리고 돌을 대할 때는요?
텍스트에서는 "저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DE: „Was will der Autor?") 이고, 기관에서는 "그것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DE: „Welche Funktion erfüllt es?")입니다. 그리고 돌에서는 이 두 질문 중 어느 것도 제기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그것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형성했는가?"라는 질문만 제기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목적 질문을 서로 다르게, 혹은 전혀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에서는 목적이 아니라 원인을 묻습니다. 목적 질문이 제자리에 있는지 여부는 간단한 시험으로 드러납니다. 즉 어떤 것이 실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심장은 기능을 못할 수 있고, 도구는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돌은 무엇을 빗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목적인지는 실패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돌 위에서 합목적성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살아 있는 것에서는 의식적 목적 없이도 합목적성이 드러납니다. 심장은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기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순환에 기여합니다. 동물들에게서는 이것이 목적 활동으로까지 고양됩니다. 막대기로 나무줄기에서 애벌레를 꺼내는 누벨칼레도니아의 까마귀는 목적을 추구하며, 막대기가 닿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긴 막대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는 자신의 목적이 올바른지 묻지 않으며, 그 목적을 누구에게도 근거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이것이 추가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적들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검증하고, 정돈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법, 예술작품은 이 능력에서 생겨납니다. 단계를 혼동하는 사람은 자기 대상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살아 있는 것의 합목적성을 의식적 설계로 해석하거나, 인간의 의도들을 단순한 자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15.13 서로 다른 텍스트들에서 진리를 말하는 방식

서로 다른 텍스트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에서 서로 다른 것을 검증하고, 그것들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글이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그랬는지를 묻고, 다른 증인들, 흔적들, 문서들을 통해 그것을 검증합니다. 반면 법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자신의 목

적을 충족하는지, 다른 법들과 정합적으로 들어맞는지, 그리고 정의로운지를 검증하며, 법에 대한 이러한 판단들은 다른 판단과 마찬가지로 참이거나 거짓입니다. 다만 정의에 관한 판단은 측정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그 근거들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그들의 삶에서 낳는 결과들을 견뎌 내는지에 따라 검증됩니다. 이 기준이 현행 법에도 해당함을 보여 주는 것은, 오랫동안 현행 법이었지만 그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던 모든 부당함입니다. 편지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이 쓰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는지, 곧 그의 진실성을 묻습니다. 시에서는 친구가 참된 친구일 때와 같은 다른 의미로 진리를 말합니다. 즉 그것이 시이어야 하는 것인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 보이는지입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는 먼저 그것이 누구에게 이바지하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소설에 보고서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차대조표에 소설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람만큼이나 소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텍스트만 아는 사람은 그 텍스트의 질문을 유일한 질문으로 여깁니다. 마치 코끼리의 코를 코끼리 전체로 여기는 장님과 같습니다.

15.3 그것 없이는 눈먼 사람이 될 질문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산출하는 사람은 어떤 재료로, 어떤 사람으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그 일을 합니다. 그가 산출한 것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각 관점은 이해가 제기하는 질문이며, 그 질문이 무엇에 유용한지는 그 질문이 빠져 있을 때 드러납니다.

텍스트의 재료인 문자 그대로의 표현, 텍스트의 개념들과 그 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해석은 제멋대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해석을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성자와 작성 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어 가는 사람의 편지를 사용 설명서처럼 읽습니다. 작품이 놓여 있는 제작 방식, 전통, 수단을 건너뛰는 사람은 어떤 장르 규칙을 개인적 착상으로 여기거나, 그 반대로 여깁니다. 목적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는 자연물이 되고 법은 글자의 덫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텍스트가 오늘날 왜 그 당시와 다르게 읽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학은 이러한 질문들을 특히 분명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법은 그 질문들 없이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문자 그대로의 표현, 법의 성립 과정과 규율 의도, 다른 법들과의 연관, 그리고 법의 목적에

따라 해석합니다. 고고학은 다른 쪽에서 같은 것을 보여 줍니다. 돌도구는 흔히 잘 보존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으며, 목적을 더 이상 밝혀낼 수 없는 곳에서 해석은 불확실해집니다.

문예학의 일부 경향들은 창작자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배제합니다. 그 의도는 접근할 수 없으며 작품은 창작자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논거에서입니다. 여기에는 옳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제가 방법이 되면, 그것은 바로 산출된 것을 자연물과 구별하는 것을 건너뜁니다. 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시를 단지 그 형식에 따라만 검토하는 것은, 망치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파악하지 않고 망치를 무게에 따라 검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15.8 재구성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곳

이 물음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해 속에서 때로 일어납니다. 셰익스피어를 읽거나, 바흐를 듣거나,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때로 이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삶에 관한 무언가를 갑자기 이해합니다. 셰익스피어에 관한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내면적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곡들은 그 시대의 격변, 낡은 확실성들의 붕괴, 새로운 가능성들과 두려움에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형식을 부여합니다. 그러한 작품들은 세계개시적(世界開示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자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해의 가능성들을 열어 줍니다. 여기서 저자의 의도에 반대하는 논거는 그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고 문구는 교묘하게 만들어졌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개시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작품이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지, 아니면 익숙한 것을 새 포장으로 확인해 줄 뿐인지입니다. 세계개시를 어디에서나 발견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해석하고, 그것을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적게 해석합니다.

15.10 작품의 전체

이 물음들 중 어느 하나도 홀로 작품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목록의 항목들처럼 나란히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품의 목적이 어느 물음이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니는지를 결정합니다. 개인적 편지에서는 무엇보다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법

과 위대한 작품에서는 무게가 다른 곳에 놓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도 "진리는 전체다"는 작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맞게 물음들에 무게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해석은 문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물음들 중 하나를 절대화하는 대신 물음들을 서로 들어맞게 하며, 작품을 처음보다 더 풍부하게 남겨 둡니다. 그리고 좋은 해석은 낯선 것을 가장 강한 형태로 읽습니다. 상대에게 가능한 한 가장 어리석은 의도를 돌려서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를 논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화화를 논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 앞에서는 여러분은 재료, 기원, 목적만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지 느낍니다. 어떤 행위를 여러분은 재구성만 하지 않고,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그 어느 물음도 포착하지 못하는 접근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느낌입니다. 느낌은 때로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들을 운반하고, 때로는 어느 단일한 판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곧 전체가 올바른지를 알려 줍니다. 이 느낌은 무엇이며, 이해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더 읽어보기: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장 6

제14장: 마음이 사고하고 머리가 느낄 때

14.1 통일을 가리키는 모순

당신의 동료가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사실들은 맞고, 논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성(悟性)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감정(感情)은 다른 것을 포착합니다: 특정 단어에 주어진 강조, 잠깐의 망설임, 지나치게 매끄러운 설명.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성과 감정은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며, 흔한 질문은 이렇게 제기됩니다: "머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독일어: "Soll ich auf den Kopf hören oder auf das Herz?") — 마치 그것들이 서로 싸우는 두 세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감정과 오성이 서로 모순(矛盾)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들이 같은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다툴 수 없습니다. 장님들은 같은 코끼리를 만지기 때문에 서로 모순됩니다. 한 사람이 치약 한 개를 쥐고 다른 사람이 물 한 잔을 쥐고 있다면, 통합(統合)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오성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오성은 단계들을 드러내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감정은 자신의 판단을 말할 수만 있습니다 – "저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DE: „das kommt mir seltsam vor“) (독일어: "das kommt mir seltsam vor"), "저는 거기에서 의심이 듭니다" (DE: „da bin ich misstrauisch“) (독일어: "da bin ich misstrauisch") –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처음에는 접근할 수 없는 채로 남습니다. 감정은 오성처럼 진리 주장을 가지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우선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사이의 모순은 결정이 아니라 과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 **□□ 14: □□□ □ □□□**
>
> 계속 읽어 나가면서, 두 가지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이 글들을 따라가는 동안, 당신의 오성은 논증의 논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동시에 무엇을 보고합니까: 이것이 진지해 보입니까? 어조가 말해지는 것과 어울립니까? 그것이 당신의 경험과 일치합니까?

아마도 둘 다 동시에 작동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감정적으로는 잘못 느껴지는 논증은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며, 사람은 그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만 옳지 않은 호소도 마찬가지로 설득하지 못합니다.

14.3 감정이 성취하는 것과 속이는 곳

당신의 오성은 논증의 단계들을 확인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수천 가지 신호들을 수집합니다 – 자세, 목소리, 표정, 말해지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서로 어울리는지 – 9장의 경험 많은 의사처럼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당신 자신 안에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은 오성이 숨겨진 모순을 찾기 전에 "그것은 너무 좋게 들려서 진실일 수 없습니다" (DE: „das klingt zu schön, um wahr zu sein“) (독일어: "das klingt zu schön, um wahr zu sein")라고 보고하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기 전에 "여기에 무언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DE: „irgendetwas stimmt hier nicht“) (독일어: "irgendetwas stimmt hier nicht")라고 보고합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것의 일관성, 도달 범위, 미해결 지점을 하나씩 확인하기 전에 감정이 그것이 정합적인지를 감지합니다.

그러나 경고하는 감정은 기만이 오성을 겨냥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약 백 년 동안 영향력은 체계적으로 감정을 통한 길을 택해 왔으며, 명시적으로 심리학에 호소하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늦어도 1950년대

이후로 이것은 공개적으로 기술되고 비판되어 왔습니다. 광고와 선전은 오성이 요청되기 전에 감정에 도달하는 이미지, 이야기, 자극으로 작업합니다. 가장 무방비한 사람들은 『차르와 목수』 (Zar und Zimmermann)에 나오는 시장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 나는 영리하고 현명하니,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네!" (독일어: "O ich bin klug und weise, und mich betrügt man nicht!") 개인적 교류에서 감정은 진정성의 훌륭한 확인자로 남습니다. 감정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감정은 오성을 자기 곁에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은 해명을 요구하는 발견이지, 그 발견을 대체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14.4 모순이 해소되는 방식

어떤 사람들은 오성이 자신들의 경험 속의 살아 있는 것을 죽이고, 단어와 개념이 본질을 왜곡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걱정은 사고가 모든 것을 양자택일로 분류하는 도식으로 밀어 넣는 것이 될 때 정당합니다. 확인하기 위해 분리하고 다시 결합하며, 분석하고 감정을 느끼는 사고는 양자보다 더 크고 그것들의 대립을 지양(止揚)합니다. 이것을 이성(理性)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해소 방식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감정이 오성이 지나쳐 버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모순은 그것이 발견되자마자 해소되고, 사람은 감정이 말할 수 없었지만 보고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반대입니다. 통찰은 새롭고 옳지만 낡은 습관이 여전히 보고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인식이 견고함을 입증함에 따라 점차로 사라집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두 번 숙고했습니다: 한 번은 취한 상태에서, 한 번은 맑은 정신으로. 두 상태 모두에서 유지된 것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판단에서 감정과 오성이 맺는 관계입니다. 둘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하면, 그것은 강한 신호입니다. 둘이 오직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증할 뿐이라면, 그것은 신호가 아닙니다 – 망상도 정합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괴리는 먼저 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되는 두 확인자는 실제로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순이 있을 때, 첫 걸음은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통일을 너무 빨리 만들어 내는 사람은 한쪽이 다른 쪽을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만 통일에 도달하며, 그때에는 통합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 없는 억압을 가질 뿐입니다. 어떤 것이 논리적

으로 옳아 보이는데도 잘못 느껴진다면, 분석이 무엇을 간과했는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이 강하지만 정당화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떤 경험들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성은 질서에 저항하는 것들에 열려 있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감정은 이성에게 추적되어야 할 실마리입니다. 모든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화는 이성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iv부: 검증함을 형성하고 방어하기

제19장: 과학과 패러다임 전환

18.1 스스로를 확인하는 확인

개인이 확인에서 하는 일은 공유되고, 가르쳐질 수 있으며,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진리를 찾습니다. 자동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아이가 열이 나면, 식물이 시들면, 당신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학은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방법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할 뿐입니다. 과학은 또한 애초에 어떻게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지 묻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이끄는가? 오류가 해를 끼치기 전에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 과학은 마치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에 대해 반성하듯, 확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한 농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관찰해 왔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보통 비가 온다는 것을. 기상학자는 왜 그런지 묻습니다. 그는 기압,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모델을 만들며, 농부가 짐작하는 곳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를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아는 징후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과학은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나타나는 것은 현상으로서 참으로 남아 있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새롭게 파악될 뿐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견하는 것, 원자, 유전자, 장(場)은 현상들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상들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이 현상들의 질서 이상인지는 사전의 규정이 아니라 탐구가 결정합니다. 원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결정되었습니다. 1900년경에는 아무도 원자를 본 사람이 없었고, 존경받는 연구자들은 원자에 대응하는 실재하는 것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다른 현상들—물 속 작은 알갱이의 떨림, 액체 속 부유 입자의 분포, 하늘의 푸른색—각각 자체로 측정되었을 때, 같은 양의 물질에서 대략 같은 수의 입자가 나왔습니다. 입자 없이는 그렇게 다른 경로들이 같은 값으로 이끄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3 방법을 이루는 것

과학을 구별짓는 것은 앞 장들의 운동을 명시적으로 만들고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과학은 자신의 방법을 공개하여 누구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비밀 교리와 단순한 확신에 맞서는 것입니다. 과학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 접근 방식을 함께 모으고, 맞지 않는 발견을 숨기지 않고 자극으로 삼으며, 모든 관찰이 이론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모든 이론이 수정 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회의하는 사람에게 과학은 확고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과학에서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어떤 것이 출판되기 전에 동료들은 그 약점을 찾습니다. 한 번만 성공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반복할 때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맹검 연구에서는 연구자조차 누가 실제 치료를 받는지 모르므로, 자기기만의 가장 비옥한 원천 중 하나인,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기대가 빠집니다. 이것이 제11a장의 저항(抵抗)입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설치되어 스스로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과학이 항상 이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허영, 집단 압력, 재정 지원자에 대한 의존, 유행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정직을 반박하지 않듯, 그것이 규칙을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명확한 이상만이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과학자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규칙이 더 성공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세합니다: 공개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비판을 허용하는 사람은 더 빨리 배웁니다.

19.2 전체 건물이 흔들릴 때

때로는 이론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본 가정 자체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부 사항이 간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방식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은 어떤 분야에 대한 우리 사고의 기본 틀입니다. 패러다임은 무엇이 문제로 간주되는지,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는지, 무엇이 설명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합니다.

> **▯▯ 15: ▯▯▯▯ ▯▯▯▯**
>
> 여러분에게 오래된 자동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기서 끽끽거리다가, 다음에는 저기서 덜컹거립니다. 여러분은 부지

> 런히 수리합니다. 새 브레이크, 새 배기관. 언제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 지점에 이릅니까? 무엇을 보고 그 지점을 알아봅니까?
> 하나의 개별 결함에서가 아니라 축적에서입니다. 수리비가 수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들고, 어느 순간 판단이 뒤집힙니다 — 이제 새 차를 살 때라는 판단으로 말입니다.

과학에서도 비슷합니다. 지구를 중심에 둔 세계상은 수 세기 동안 행성들의 위치를 꽤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현상들은 오로지 그 때문에 만들어진 가정들로만 설명했습니다. 행성들이 때때로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수성과 금성이 결코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같은 현상들 말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물었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추가 가정들은 귀결이 됩니다. 역행 고리는 안쪽 궤도에서의 추월이며, 수성과 금성은 자신들의 궤도가 지구 궤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에 머뭅니다. 새로운 상은 처음에는 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고, 그것은 두 세대 뒤에 타원 궤도로써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얻은 것은 연관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환에서는 어느 한 개별적인 부정합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부정합은 그 자체로는 또 하나의 추가 가정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들의 양입니다. 언젠가는 깁는 비용이 직물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들게 되고, 점진적인 양적 증가는 갑작스러운 질적 다름이 됩니다. 마치 물이 조금씩 점점 더 따뜻해지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끓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환 자체는 처음에는 꽃병이 보이다가 다음에는 두 얼굴이 보이는 반전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는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전 그림에서는 두 관점이 동등하게 훌륭하며, 사람은 임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새로운 것이 옛 것을 함께 설명하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다. 오랫동안 충족감을 주던 직업이, 더 이상 개별적인 측면들만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전환은 흔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자신의 관점에 정체성을 두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그에 더해 교육 과정, 교수직, 학술지들이 옛 골조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추가됩니다. 스스로 물리학의 변혁을 촉발한 막스 플랑크는 회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대개 반대자들이 설득되어 배웠다고 선언함으로써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자들이 점차 소멸해 가고, 자라나는 세대가 처음부터 그 진리와 친숙해짐으로써 관철된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연구자들이 설득된 경우도 충분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적 전환에 속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일생의 업적을 옛 골조에 쏟아부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대륙이 이동한다는 것은 1912년에 제안되었고, 거의 50년 동안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는 타당한 근거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륙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을 지지하는 관찰들은 그럼에도 계속 남아 있었고, 마침내 그 힘이 밝혀졌을 때, 관찰들은 새로운 상 속으로 정돈되었습니다.

> DE: „Eine neue wissenschaftliche Wahrheit pflegt sich nicht in der Weise durchzusetzen, daß ihre Gegner überzeugt werden und sich als belehrt erklären, sondern vielmehr dadurch, daß die Gegner allmählich aussterben und daß die heranwachsende Generation von vornherein mit der Wahrheit vertraut gemacht ist.“

19.4 격변 속에서도 이성적인

수정이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는지는 제11.7장에서 구별되었습니다: 뉴턴 역학처럼 이론을 한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상대성 이론에서 아주 좋은 근사로 극한 경우로서 계속 유지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하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이론의 적용 범위만이 아니라 기본 개념들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을 말합니다. 상대성 이론으로의 이행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방정식이 극한 경우로 계속 유지되지만, 공간과 시간이 다르게 사유되었습니다. 양자 역학은 더 깊이 들어가, 입자의 명확한 경로와 같은 기본 개념들을 원자 영역에서는 새로운 개념들로 대체하지만, 큰 물체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로부터 강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은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서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무엇을 관찰, 문제, 해결책으로 간주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결국 권력이나 우연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반론의 가장 강한 형태는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정확성, 모순 없음, 적용 범위, 단순성, 생산성은 두 이론 사이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그것들에 다른 가중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물 자체가 어떻게 가중치를 둘지에 함께 결정합니다. 두 패러다임이 개념들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울지라도, 현상들에서는 비교될 수 있으며, 거기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과 이 반론은 토마스 쿤에 의해 알려졌는데, 그는 자신의 테제에서 상대주의적 결론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급진적인 전환에 대해서도 탐정 원칙에서 만난 규칙이 적용됩니다: 현상들은 구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옛것이 설명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게다가 옛것이 설명하지 못한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날부터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태양 모델은 처음에는 옛 모델보다 더 정밀하게 계산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이 시험에 의해 새로운 것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측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따라서 모든 패러다임 전환은 지양(止揚)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것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은 현상들을 보존하고, 옛것의 한계를 극복하며, 이해를 새로운 수준으로 고양합니다. 과학 혁명들은 과학의 규칙들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그 진지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에서의 큰 격변도, 이 시험에 의해 측정되는 한, 이성에 대한 작별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기: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 장 12

제20장: 왜 검증이 자유롭게 하는가

> **▯▯ 16: ▯▯ ▯▯ ▯▯ ▯▯**
>
> 밤에 낯선 도시를 지도 없이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회전은 수수께끼이고, 모든 거리는 막다른 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강을 알아보고, 저쪽에 텔레비전 탑을 알아보면, 도시가 머릿속에서 정리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에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자유롭게 하며, 그것은 밤의 거리에서만이 아닙니다. 과학이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모방되고, 뒤집히고, 방해받습니다.

20.3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것

한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암기한 문장만 반복하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흐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는 중력에 반항하지 않고 공기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해는 이전에는 없었던 가능성을 엽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의성이 아닙니다. 자의성은 자신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고, 그리하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지배 아래 떨어집니다. 모든 의학적 조언에 반항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자신이 이해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질병에 덮칩니다.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통찰이라는 낡은 정식은 그 절반만을 말합니다.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자신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통찰이 그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희생자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기꾼은 필연성에 대한 많은 통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때문에 아직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의 소유도 그 자체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비축되고, 배급되고, 지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5 함께 검증하기

그러므로 진리 탐구는 결코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검증하는 곳에서는 가장 큰 목소리의 화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근거가 중요하며, 좋은 학문적 토론에서 학생은 자신의 논증이 더 나을 때 교수와 동등합니다. 그로써 하나의 짐도 사라집니다: 공동의 과정에서 검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학문, 자유 언론, 독립 법원, 공개 토론은 이 과정의 형태들이며, 그 자체가 검증 가능한 한 자유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함께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산된 지식은 함께 모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대 의견들이 걸러지지 않고, 불확실성들이 식별 가능하게 남아 있으며, 오류들이 사후에 정정될 수 있는 절차들이 요구됩니다; 그것들이 결여된 곳에서는 공동의 결과가 개별자들이 아는 것에 못 미칩니다.

20.4 속이는 자는 검증을 방해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의 권력을 속임수 위에 세우는 자는 검증을 방해해야 합니다. 열린 토론은 도그마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들은 공식 버전의 일면성을 보여 주며, 모순을 따라가는 자는 체계의 모순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 자체에서 나옵니다. 속임수에 기반한 권력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곁에 자유로운 검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증의 공개적 반대자들은 그것을 금지하며, 그로써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기 더 어려운 사람들은 검증에 호소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자는 검증을 금지하지 않고도, 그리고 종종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이 호소하는 원칙들을 뒤집음으로써 검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누리는 신뢰를 이용하려는 자는 검증의 기초, 즉 "당신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DE: „Sie tun das bereits")라는 문장을 위조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Sie tun das bereits") 둘 다 검증의 수단으로 일합니다. 사람들은 이 수단들로 무엇이 행해지는지 внимательно 살펴봄으로써만 그것을 알아봅니다.

제21장: 진리의 이름으로 확인이 방해될 때

여러분은 적절한 말만 사용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 증거, 과학, 계몽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말은 있지만 확인은 없습니다. 이 책의 원칙들은 확인을 거슬러 돌려질 수 있으며, 바로 그 원칙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원칙들에 호소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를 기울여 주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남용은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21.1 진영 사고

> **□□ 17: □□ □□**
> 읽는 동안 여러분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글은 어느 "진영"을 겨냥하는가? 나를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가?
> 분류 자체는 아직 진영 사고가 아닙니다. 텍스트의 방향을 묻는 것은 확인에 속합니다.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확인을 대체할 때 진영 사고가 됩니다. 분류가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모순되는 텍스트에 적용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더 쉽게 눈에 띕니다.

종교재판소는 참된 신앙을 지키려 했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혁명 운동들은 정의를 만들려 했고, 비판자들을 진보의 적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사람은 반대자에게서 자유에 대한 위협을 쉽게 봅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주장은 그것이 나온 쪽에 따라 분류되지, 그 근거에 따라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기 진영에 이로운 것은 더 쉽게 믿어지고, 자기 진영에 해로운 것은 더 엄격하게 확인되며, 반박하

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배정됩니다. 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탈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하고, 실제 대화를 막으며,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과 그를 갈라놓습니다. 패턴은 어디서나 같지만 수단은 다릅니다. 종교재판소는 사람을 화형에 처했고, 학계는 자리와 연구비를 거부합니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핵심을 놓치고, 이 패턴을 오직 화형대에서만 알아보는 사람도 핵심을 놓칩니다.

직업이 확인인 과학조차 진영 사고를 압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약 1만 3천 년 전에 클로비스 문화의 전달자들에 의해 처음 정착되었다는 주장은 수십 년 동안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오래된 유적을 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발견이 확인되기를 기대하기는커녕 조잡한 연구라는 비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칠레의 한 유적이 양쪽 전문가들의 공동 조사 끝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룡 멸종을 두고는 198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사태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날카로움으로 싸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충돌이 결정적 계기를 주었는지, 아니면 거대한 화산 폭발이 그랬는지가 한때는 소속의 문제처럼 다루어졌습니다. 한쪽 대표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쪽을 나쁜 과학자라고 선언했고, 입장을 벗어나는 사람은 승진을 걱정해야 했으며, 젊은 연구자들은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는 충돌을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정밀한 연대 측정에 따르면 충돌과 멸종은 사실상 일치합니다. 그보다 앞서 화산 폭발이 생물들을 약화시켰는지, 어느 정도였는지는 여전히 조사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인정된 것보다 화산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모델 계산을 통해서도 조사됩니다. 조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 연구에서 손을 떼지 않도록 만든 사람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확정된 것은 오직 이것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뿐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제19장에서 말한 사기와 유행만큼이나 과학에 대한 반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 과학을 과학 자신의 이념에 견주어 재고, 오직 이 이념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게 합니다.

21.2 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선의 수호자로 이해하는 곳에서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신자와 무신론자, 혁명가와 기존 질서의 수호자, 전문가와 그 비판자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과정은 매번 비슷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DE: „Wir sind die Guten“)가 “우리의 대의는 너무도 중요하다” (DE: „Unsere Sache ist so wichtig“)로 이어지고, 이어서 “우리에게는 보통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DE: „Für uns gelten die normalen Regeln nicht“), 마지막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자는 악하거나 눈이 멀었다” (DE: „Wer uns kritisiert, ist böse oder verblendet“)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선을 위한 투사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좋은 의도는 나쁜 방법에 대한 면허가 되고, 지켜야 할 진리는 더 이상 진리를 묻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의 한 형태는 선택적 공감입니다.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고통에만 분노하는 공감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전쟁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다른 전쟁의 희생자들은 못 본 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검열에는 분개하고 동맹국의 검열은 못 본 체합니다. 이 공감은 인간적으로 느껴지지만, 고통을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신념이 증거를 요구받을 때 여러분을 내키지 않게 만들겠습니까? 어떤 고통에 대해 여러분은 저절로 연민을 느끼고, 어떤 고통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의견이 말해졌을 때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근거를 알지 못한 채 눈이 멀었거나 위험하다고 여깁니까? 나쁜 의도를 덧씌우는 것은 그 자체로 해를 끼칩니다. 마녀사냥이 가장 분명한 사례이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차별적 혐의는 일상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파괴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서 알아볼 수 있지, 그들의 의견에서 미리 알아볼 수 없습니다.

21.5 뒤집힌 원칙들

이 책의 원칙들도 한 가지 패턴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절대화되는 패턴입니다. 코끼리 원칙은 "누구나 자기 진리가 있다" (DE: „Jeder hat seine Wahrheit")가 됩니다. 그것은 관대하게 들리지만, 그 원칙이 원래 뜻한 바를 포기합니다. 눈먼 학자들은 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있고, 그들의 보고는 오직 같은 현실에 관계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변증법은 양쪽을 하나로 설명하는 원칙을 찾는 대신, 각 쪽에서 절반씩 취하는 게으른 타협이 됩니다. 자기 관련성은 자기 확신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식입니다. 관점들의 종합은 확인해 주는 관점들만 받아들이고, 탐정이 찾는 연관은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맞추어져야 하는 도식이 됩니다. 회의주의는 자기 자신의 회의만은 의심하지 않는 냉소주의가 되고, 많은 길에 대한 개방성은 제멋대로임이 됩니다. 공감이 확인을 대체할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옳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는 사람도 옳다는 식입니다.

위험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장점을 강하게 만드는 것의 이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없애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위험과 함께 힘도 잃게 될 테니까요.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장점을 그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는 자기 자신의 회의도 의심할 수 있어야 하고, 변증법은 자기 자신의 해법도 확인해야 하며, 공감은 반대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장점은 이미 자기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21.6 뒤집힌 확인을 알아보는 법

뒤집힌 확인은 저항하는 것을 생략함으로써 정합성을 만들어 냅니다. 모든 비판은 자기 견해를 확증하도록 해석됩니다. "그것은 음모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증명할 뿐이다" (DE: „Das beweist nur, wie perfekt die Verschwörung ist") 또는 "그것은 비판자들이 얼마나 조종되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DE: „Das zeigt nur, wie manipuliert die Kritiker sind")라는 식입니다. 단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인 것이 실제인 것처럼 내세워집니다. 공적 확인 가능성은 입문자만을 위한 지식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사태 자체에 비추어 확인되지 않고,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물리쳐집니다.

딱지 붙이기도 무기가 됩니다. 2020년 가을, 세 명의 역학자들은 공개 성명에서 팬데믹 동안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화하여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보건 연구 기관의 책임자는 내부 메시지에서 그들을 "주변부 역학자들"이라고 부르며, 그 주장의 전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때려잡는 공개 반박"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 제안이 좋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보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박을 주문하는 사람은 결론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대책에 반대하는 모든 관찰 결과가 곧 억압된 진리로 통했고, 대책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매수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음모론", "허위정보", "선전"은 불편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물리치는 데 자주 쓰이고, "체제 언론"과 "매수된 과학"은 반대편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입니다. 둘 다 상대방 눈의 티는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주문된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체계적으로 생산했고(제22.4장), 기후 문제에서는 기업들이 연구 상태가 정당화하지 않는 의심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진 곳에서는 정당한 의심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심이 쉽게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기후에는 타당하게 열려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가 추가 온실가스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 각 대책에 무엇이 들고 무엇을 가져오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정당한 의심이 주문된 의심과 함께 묵살되면 논쟁은 사태가 요구하는 것보다 작아집니다. 이것은 대개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얻은 좋은 근거들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쪽이 옳은

지는 딱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무언가를 보았을 수 있고, 양쪽 모두 확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가입니다.

21.8a 참된 안, 거짓된 밖

한 가지 반론이 떠오릅니다. 안으로는 모범적으로 확인하고 밖으로는 체계적으로 속이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분석 부서들은 엄격하고 정교한 절차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는 반면, 같은 기관들은 위장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담배 회사들은 자기들의 연구로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결국 상대에 따라 사용하거나 내려놓는 도구가 아닌가요?

그 분리는 물샐틈없지 않습니다. 밖을 향한 기만은 안을 향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정당화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영에 따른 분류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분석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속여야 하는 사람은 게다가 그 기만을 관리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매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조직의 자기 제시에 가장 적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따라 진리를 배급하는 일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가정조차 그 유용성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이라크가 2002/03년에도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너무나 확실한 것으로 통해서 더 이상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16년 영국 조사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곳에서 눈이 먼 것이 밖을 향한 배급의 습관에서 왔는지는 보고서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 일단 필요해지면 어떻게 확인 불가능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런 체계는 한꺼번에 눈이 멀지 않고, 확실하게 점점 더 눈이 멀어 갑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밖으로 속이면서도 그 상황 파악이 개방적인 상대 조직보다 나빠지지 않는 조직이 발견된다면 반증될 것입니다.

모든 진영의 국가들과 동맹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밖을 향한 기만을 실천합니다. 그것을 오직 상대방에게서만 알아보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21.8 국가가 검증함을 조종할 때

한 조직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국가는 그로써 자신의 시민들을 기만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 기만을 알아차릴 수

단을 시민들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그 기관이 선포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검증하지 않으며, 그것을 선포하는 자조차도 말입니다. 그러한 국가는 자기 자신의 표상을 믿기 시작하며, 반박이 허용되는 국가보다 더 나쁘게 배웁니다. 이를 위해 나쁜 의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공공 기관에서와 동일한 정당화로 충분합니다. 동독에서는 국가 정당의 중앙위원회에 속한 한 부서가 신문들에 매일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지를 지시했으며, 모든 책에는 인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검증함이 제한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은 모든 체제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위험한 의견들", "허위 정보", "외국의 영향력 행사".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모두 매우 상이한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삼는 위험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중국군은 2003년부터 여론 조종을 심리전, 법률전과 나란히 자신의 "3종 전쟁"에 포함합니다. 러시아 교리들은 평화 시에도 멈추지 않는 정보전에 대해 말합니다. 독재 국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거의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동맹들도 이제 인구의 지각을 전투와 방어가 벌어지는 하나의 장으로 기술합니다. 2020년 NATO 변혁사령부를 위한 한 연구는 – 자체 설명에 따르면 동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지만 – 이를 "인지전"이라고 부르며, 인간 정신을 육지,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과 나란히 하나의 독자적인 장으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 환경의 텍스트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자신의 두뇌들을 보호하고 적의 두뇌들에 침투하는 것이 속하며, 그 장은 아군과 적군을 포괄합니다; 2022년의 한 기고는 인지전을 명시적으로 팬데믹과 연결합니다. 이 텍스트들을 수집한 한 비판가는 그로부터 자기 자신의 인구에 대해서도 향하는 프로그램을 읽어 냅니다. 텍스트들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곳에서 여론이 어떤 관점 아래 고찰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동맹국들이 2021년에 체결한 회복탄력성 의무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적대적 정보 활동들" (DE: „feindliche Informationsaktivitäten einschließlich Desinformation")을 위협들에 포함하며 팬데믹을 시금석으로 언급합니다; 회복탄력성 자체는 그 안에서 "국가적 책임"으로 남습니다. 방어로 의도된 것은 그것이 행해지는 명분인 자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사람들이 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나쁜 의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군대는 사물들을 안보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것이 군대의 직업입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그것이 여러 관점 중 하나이며, 모든 것을 서로 비교하여 저울질하는 정치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실존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안보 논리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갖지 않았을 무게를 얻을 수 있으며, 그때는 자기 자신의 시민들의 의견조차 감시되고 조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

다. 네덜란드에서는 육군의 한 실험 부대가 2020년에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공개 출처들에 코로나 위기에 대해 쓴 것을 평가했는데, 한 신문이 이를 보도하고 장관이 그 작업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 법적 근거를 검토하도록 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소장이 연방정부가 2021년 12월 팬데믹을 위해 설치한 위기 대책반을 이끌었는데, 주로 백신 접종 캠페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 물류는 군사적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하나의 계획으로 조립해서도 안 됩니다. 제도들을 그것들이 통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대로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황을 위협들에 따라 정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것도 그렇게 정리합니다.

계속 읽기: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장 14.9 (정당한 비판을 듣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질서에는 왜 저항이 필요 없는지)

21.8b 팬데믹에서의 조종

조종에는 관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동안 외국 국가들의 표적화된 허위 보도도 있었다는 것을 유럽 기구들이 문서화했습니다. 방어에는 실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나라의 당국은 플랫폼들에 자신들이 허위 정보라고 여긴 게시물을 계속해서 알렸고, 플랫폼들은 그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대형 플랫폼은 2021년 2월에 바이러스가 인공 제작되었다는 게시물을 삭제했고, 그해 5월 기원 문제가 공식적으로 새롭게 조사되기 시작하자 그 규칙을 해제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종은 법원 기록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 네트워크의 소유권 변경 후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세부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다른 대기업의 수장은 나중에 의회 위원회에 보낸 글에서 자기 회사가 몇 달 동안 압박을 받았다고 썼고, 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썼습니다. 그 은근한 압박이 어느 정도로 압력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논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어느 신고자의, 불법으로 추정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법으로 규율합니다. 자신이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정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조종을 별말 없이 상정합니다. 시험은 그것을 자기 편에서도 똑같이 지각하는지입니다. 그 반대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삭제된 많은 게시물은 거짓이었습니다. 삭제가 파괴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조종은 느낌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제14.3장이 묘사한 경로를 따라서입니다. 영국에서는 정부의 한 자문 기구가 2020년 3월에 문서로, 무심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적 위협의 느낌을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같은 달에 내무부의 제안으로 과학자들이 내부 문서를 썼는데, 그 문서는 통제되지 않은 확산의 결과를 "바라던 충격 효과를 얻기 위해" (DE: „um die gewünschte Schockwirkung zu erzielen") 극적으로 그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돌려보내지고, "집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며" (DE: „qualvoll um Luft ringend zu Hause") 죽어 가는 모습, 부모를 감염시켰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그 모임은 그 부처의 한 국무차관이 "정치 질서와 하이브리드 위협" (DE: „Politische Ordnungen und hybride Bedrohungen") 담당 부서장과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관여한 사람 중 한 명은 2년 뒤 한 사회학 저널에 그 문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술했습니다. 열흘 만에, 회의록이 없는 암호화된 전화회의들로, 그러나 문서와 이메일 왕래는 있고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가 나중에 공개해야 했던 자료들로, 그리고 베르가모의 이미지들의 인상 아래서 말입니다. 그들은 "전파 기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공적 삶의 광범위한 중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DE: „überhaupt nichts über die Folgen einer weitgehenden Stillstellung des öffentlichen Lebens") 알지 못했습니다. 지수적 증가를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독일에서만 백만 명이 죽는다는 계산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로서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과제에는 "내려진 결정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들을 만드는 일" (DE: „Prägung rhetorischer Formeln für die Begründung der getroffenen Entscheidungen")도 포함되었고, 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람시의 말을 빌리자면, 핵심은 강제를 명령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해석 주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다" (DE: „Mit Gramsci gesprochen: Es ging darum, Zwänge zu verordnen und Zustimmung zu gewinnen und dabei die Deutungshoheit in der Hand zu behalten."). 4년 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토론회에서 "따르려는 의지"를 생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의 비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불확실성과 엄청난 시간 압박 속에서 조언했고, 개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러한 개입이 "강한 정당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보았던 한 참여자의 기술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실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 옆에 어떻게 동의를 얻고 해석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서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21.8c 전복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국가가 기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때 모든 입장을 어디서나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세계에 대한 모든 주장은 가장 터무니없는 것까지도 확인 가능하고 반증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주장일수록 금기가 아니라 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기는 그것의 거짓이 가시화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증을 애초에 가능하게 하는 확인 자체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반증될 수 없으면서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지는 제22.3장이 보여 줍니다. 반면 어떤 입장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얻는가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모든 입장과 씨름하는 것이 이해에 속합니다. 공적 논쟁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무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민주주의는 외국의 간섭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확인의 조건들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무대가 가장 위험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DE: „Wir sind die Guten")라는 형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의가 더 엄격한 규칙들을 정당화한다는 형식 말입니다. 그것을 남용과 구별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진리 탐구의 조건들을 보호하지 특정한 내용이나 진영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것 자체가 공적으로 비판 가능한 상태로 남는다는 점뿐입니다. 더 이상 비판될 수 없는 방어성은 이미 전복되었습니다. 모든 독재는 신성한 재화의 보호에 호소해 왔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성립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신뢰를 요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법질서는 거짓말을 대개 그것이 비방, 사기, 위증과 같은 특정한 해악을 낳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이 구별은 거짓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짓말인지가 애초에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합니다. 증거도 논증도 공개 토론도 없이 어떤 입장을 거짓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비록 사안에서는 옳더라도, 이 공간을 떠납니다.

21.9 진리부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들

여기서 권력이 없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 남용에 대한 답은 진리부라는 형태의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이라는 형태의 더 많은 진리 탐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어떤 입장으로 데려오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지만 좋은 조언자는 아닙니다. 두려움은 시선을 위협적인 것으로 향하게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시민을 조종하고, 검열하고, 정보를 제한하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의존하는 관계를 뒤집습니다. 민주주의에

서 인구는 정부에 임무를 맡기고 통제하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구는 의견, 과학,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장의 분석은 어느 쪽이 옳은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보여 주며, 확인을 멈추는 모든 쪽을 때립니다. 자기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신자와 무신론자, 기존 질서의 비판자와 수호자 모두 말입니다. 이에 맞서는 데 도덕적 우월성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방법의 경계만 도움이 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확인을 방해하는 사람은 원칙들을, 자주 알지 못한 채, 뒤집습니다. 그러나 더 의식적으로, 더 깊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서 있는 토대 자체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 장 14

제22장: 방법 자체가 위조될 때

22.1 토대의 위조

> [illegible] 18: [illegible]
>
> 지금 여러분은 이 텍스트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이 경계는 이미 지금 논의될 것에 대한 첫 번째 방어입니다.

제1장의 수행적↑ 자기 근거짓기는 아무것도 전제할 수 없을 때 남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사고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이 실행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실행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공격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DE: „Sie tun das bereits“)라고 말하는 사람은 외부의 주장에 대비해 준비된 방어를 우회합니다. 그 실행은 더 이상 확인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목표, 곧 판매, 추종, 자기 확신에 봉사할 때 위조됩니다. 이 시작이 위조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독이 든 지점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밖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한 문장이 확인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읽어 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더 멀리 나르는 문장은 흔적을 남깁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맞물리며, 반론이 건너뛰어지지 않고 반영되어 있고, 때로는 확증되는 대신 방향이 바뀝니다. 결과를 겨냥하는 문장은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에 도착합니다. 다음 단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졌던 반론은 그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에서는 그

과정이 확인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봉사합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 곳에서는, 확인이 불편해질 바로 그 지점에서 확인이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 텍스트에도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이 텍스트는 따라지기를 바라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2.2 위조가 진행되는 방식

위조는 실제로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확인하려는 충동,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의미에 대한 갈망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DE: „Sie spüren doch auch, dass sich etwas ändern muss.“) 그것은 실제로 참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이 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은 자명하게 느껴집니다. 위조는 시작 부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을 여는 말로서의 참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위조는 오로지 참인 진술들로만 작동하고 제10장이 추적하는 기만과 친척입니다. 참이 기만의 운반자가 됩니다.

그다음 위조는 초대와 단언을 바꿉니다. 진짜 방법은 초대합니다. 그런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위조는 결과를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표현에서는 작고 실질에서는 근본적입니다. 첫 번째 경우 여러분은 결과가 열려 있는 확인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경우 여러분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지각이 여러분에게 주입됩니다. 그 제시는 여러분이 보는 방식을 고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보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르게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은 위조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되지도 않고, 단지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재는 그것을 찾는 사람만 알아차립니다.

그다음 도입부가 건드린 자기 자신의 것이 완성된 목표로 조종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가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DE: „also brauchen Sie dieses Produkt“)가 되고, "여러분은 이미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E: „Sie denken bereits kritisch“)가 "그러니 이 해법을 선택하십시오" (DE: „also wählen Sie diese Lösung“)가 되며, "여러분은 이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DE: „Sie suchen bereits nach Sinn“)가 "그러니 이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DE: „also folgen Sie dieser Lehre“)가 됩니다. 여러분의 실행으로 시작된 것은 낯선 프로그램으로 끝납니다. 끝에서는 불러일으켜진 경험이 증거로 선언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DE: „Sie haben es doch selbst erlebt.“)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조는 비판이 자기부정처럼 보이는 곳에 자리 잡습니다.

22.3 위조를 알아보는 법

이 진행 방식에서 모든 수행적 제안에, 이 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험들이 나옵니다.

부정 가능성 시험은 여러분의 확인이 다르게 판명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한 경험에 대한 진술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온한지 아닌지는 다르게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떤 경험도 그것을 반증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안은 경고 신호입니다. 한 가지 예외, 곧 확인 자체만 빼고 말입니다.

방향 시험은 그 과정이 여러분을 더 독립적으로 만드는지, 더 의존적으로 만드는지 묻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은 혼자서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까? 진짜 수행적 방법은 자기 자신이 불필요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외에도 같은 진행 방식에서 나오는 더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반대 확인을 직접 고안해야 하는지. 확인할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결론짓도록, 서명하도록, 고백하도록, 지금 몰아세우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전체 그림에 속하는 단서로 남는지, 아니면 증거로 선언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오직 제공자, 교사, 집단뿐인지.

부정 가능성 시험은 이 책 자체를 가장 엄격하게 때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도 한 측면에서는 어떤 경험으로도 반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렸는지에 대한 관찰 결과는 하나의 관찰이었고 다르게 판명될 수 있었습니다. 확인 자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는 면역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전체 시험을 떠받칩니다. 면역화는 자기 반증 불가능성을 숨기고 반대 확인을 금지합니다. 수행적 자기 관련성은 자기 구조를 드러내 놓고 반대 확인을 초대합니다. 논증에 반대해 논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논증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을 부정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행한다는 사실이 논증입니다. 이 반증 불가능성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행의 열린 속성이며, 실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반대로 위조는 은신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말은 이 책이 위조와, 필연적으로,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압니다", "여러분은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DE: „Sie bringen bereits alles mit") — 첫 장들은 그렇게 시작했고, 위조도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위조는 진짜 시작을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첫걸음에서는 둘을 구별할 수 없고, 그다음 단

계에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은 우선 이 페이지들에 적용됩니다.

22.4 바깥에서의 위조

바깥에서는 진행 방식이 어디서나 같아 보이고, 문을 여는 말과 목표만 바뀝니다. 광고에서는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DE: „Sie wissen selbst, was gut für Sie ist")라고 말하고, 우연히도 그것이 정확히 그 제품입니다. 정치에서는 정당한 불안이 받아들여져 "여러분도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DE: „Sie spüren doch auch, dass sich etwas ändern muss")가 되고, 준비된 해법으로 조종됩니다. 위험은 정당한 우려와 의심스러운 답의 혼합에 있습니다. 신뢰와 의존이 지배하는 치료와 교육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압니다" (DE: „Sie wissen tief im Inneren, was richtig ist")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좋은 치료는 사람을 치료사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만들고, 좋은 교육은 더 사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영성에서는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인정된 다음 하나의 가르침으로 조종됩니다. 마치 이 방향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계에서는 위조가 자기 이미지에 아첨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E: „Sie denken bereits kritisch")라고 말한 다음, 비판적 사고를 특정 학파와 동일시합니다.

> **□□ 19: □□ □□□□□ □□**
>
> 여러분이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 마지막 제안, 광고, 강좌, 설교, 자기계발서 하나를 골라 그것에 부정 가능성 시험과 방향 시험을 적용해 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합니까?
> 종종 두 번째 시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뒤에 다시 필요해지는 제안은 여러분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조 옆에는 아무런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값싸게 작동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곧 부당하게 얻은 확인 요구 자격입니다. 담배 산업의 한 내부 문서는 1969년에 의심이 그 산업의 상품이라는 문장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흡연이 무해하다고 누구도 확신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단지 고려해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명중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무기는 희생자의 미덕, 그의 개방성을 희생자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는 그저 질문할 뿐입니다" (DE: „Ich stelle ja nur Fragen")는 개방성에 호소합니다. 이를 뿌리치는 사람은 독단주의자로 서게 되고, 확인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공격자가 원한 것을 이미 그에게 주었습니다. 관심과 진짜 논쟁처럼 보이는 외양 말입니다. 그 강화가 범람입니다. 주장들은 확인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고, 스무 개를 방에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하자마자 이깁니다. 그중 하나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확인 능력이 실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는 한 단계 앞에서 시작됩니다.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확인받을 가치가 있는지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내세우는가, 그는 그것에서 무엇을 얻는가, 그의 주장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양으로 나오는가? 마지막 질문은 캠페인을 겨냥합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운동이든, 정부든 누구에게서 왔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의심에 대해 조사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크게 요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빚진 것은 물리칠 때 이름을 댈 수 있는 근거입니다.

22.5 분석이 장벽이 될 때

이 장이 묘사하는 것은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론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은 조작일 뿐이다" (DE: „das ist doch Manipulation")라고 물리치거나, 의심을 "부당하다"고 물리치는 사람은 방어를 장벽으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들은 공식적인 제시에도, 그 반대자들에게도, 자기 진영에도, 상대 진영에도, 이 페이지들에도, 다른 어떤 것에도 적용됩니다.

진짜 확인은 그 시험들의 거울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확인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더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우는 대신 자신이 이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준들을 드러내 놓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입문자를 위한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정 가능한 상태로 남아, 면역화하는 대신 오히려 더 반박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방법은 정직하게 적용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 위조에 대한 최선의 보호는 진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장들이 여러분에게 유용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구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모든 신념을 더 불신하게 되었을 뿐인지에서 드러납니다.

제10장: 교정(較正)

앞의 두 장에서 다룬 전도와 위조는 거짓이거나 부당한 어떤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과제는 기만도 의도도 필요로 하지 않

으며,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10.2 여러분이 외국에 대해 아는 것

여러분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압니다. 영화와 시리즈, 뉴스와 보도, 온라인 영상을 보았고, 책을 읽었으며, 그곳에 갔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많이 알 것이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꽤 알 것이며, 인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덜 알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전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친 그림만 갖고 있고, 거친 그림은 쉽게 편견이 됩니다.

그 거의 모두가 참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비중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룬 영화 대부분은 몇몇 대도시, 뉴욕, 캘리포니아, 일부는 텍사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서부극은 중서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알래스카, 네브래스카, 아이다호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몇 개만 등장하고, 그중에서도 주로 대도시들입니다. 그 나라의 지역 문화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약 열두 개의 문화권에 도달하는데, 그 경계는 주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텍사스 하나만 해도 여러 문화권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텍사스의 총기 폭력에 관한 보도 하나, 버몬트의 환경 보호에 관한 보도 하나, 디트로이트의 빈곤에 관한 보도 하나, 실리콘밸리의 발명에 관한 보도 하나를 봅니다. 네 가지 모두 정확하고, 모두 실제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대한 그림을 위해 부분들을 어떻게 비중 매깁니까?

어떤 것들은 전혀 보여 줄 수 없습니다. 냄새나 음식 맛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어떤 것들은 촬영된 당시에만 그랬습니다. 많은 것은 매일 그와 같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들도 여과됩니다. 한 나라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집에서는 사업과 호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그곳에 가는 사람은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1980년대 중반에 맨해튼에 2주간 있었던 사람은 길 아래 배관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화도 그에 대해 준비시켜 주지 않았고, 택시 외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불법 주차에 높은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보도는 주로 가게 주인들이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동네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할렘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본 사람은 나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집 안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걷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말하는지, 가판대가 어디에 있고 진열대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포착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모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상을 얻습니다. 영화는 그것의 일부만 보여 줍니다.

1980년대 초에 처음 인도에 온 사람은 자기가 알던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식물은 거의 없고, 다른 동물들, 다른 새소리, 다른 냄새, 다른 음악, 다른 자동차와 다른 소음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돗자리 침대에 누운 거지들이 있었고, 침대도 없이 거의 옷도 걸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은 거의 없었고 포장도 거의 없었으며, 자기가 모르는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독일 군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서로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인도에 관한 영화들은 이 중 어느 것에도 대비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중 많은 것이 오늘날에는 다를 수 있고, 그것도 문제에 속합니다. 한 번 본 것은 사물이 오래전에 변했더라도 그림 속에 남습니다.

체류 자체도 잘라낸 일부입니다. 맨해튼에 2주간 있었던 사람은 뉴욕의 일부를 알 뿐, 아직 미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을 다시 자리 매겨야 합니다. 그중 무엇이 미국적인가, 무엇이 이 도시, 이 동네에 속하는가? 그것은 모든 나라에 해당합니다. 바이에른조차 가까이 보면 프랑켄, 슈바벤, 구바이에른으로 나뉘고,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바덴과 뷔르템베르크로 나뉩니다. 스무 개가 넘는 언어를 헌법이 인정하는 인도는 방문객에게 한 나라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대륙처럼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의 보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림들에서 빠진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표본이며, 다른 모든 것처럼 비중이 매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제5장의 눈먼 학자들의 문제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자가 한 조각을 만졌고, 중요한 것은 조각들을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언가 빠져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빠진 것이 더 쉬운 부분입니다. 자기가 네브래스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책을 찾아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보여진 것을 올바르게 비중 매기는 일입니다. 보도에 나온 총기 폭력은 흔한가 드문가, 영화 속 동네는 규칙인가 예외인가? 숫자에 이르면 가장 어려워집니다. 통계는 그것이 재는 것을 정확히 보여 줄 뿐, 그것이 재지 않는 것은 전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뜨리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담은 지도는 그 나라만큼 커서 쓸모없을 것입니다. 모든 카메라에는 프레임이 있고, 모든 질문은 다른 것을 제쳐 놓으며, 모든 통계는 확정된 것을 셉니다. 빠뜨려진 것은 그 질문, 프레임,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 밖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교정(較正)은 측정 기술에서 왔습니다. 기기의 표시를 알려진 측정값과 비교해 그것이 얼마나 벗어나는지 확정합니다. 여기에는 관청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공적 확인은 계량(計量)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기서 교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잣대를 현실에 비추어 무엇이 빈번하고 무엇이 드문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극단인지, 무엇이 합의이고 무엇이 논쟁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벗어나는 곳에서 다시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있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완전히 떠맡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다른 시험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겨냥합니다. 이 시험은 거기에 없는 것도 겨냥합니다.

10.1 모든 진술이 맞을 때

일상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 20: ▯▯ ▯▯ ▯▯**
> 다음 보도를 오늘 아침 뉴스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읽어 보십시오:
>
> > 코끼리 — 과소평가된 위험? 한 학자가 매끄럽고 단단한 창(엄니)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둘째는 엄청난 힘에 대해 보고합니다: 강하고 단단한 거대한 기둥(다리). 셋째는 길고 움직이는 어떤 것, 마치 큰 뱀 같은 것(코)을 발견했습니다.
> >
> > DE: „Der Elefant - eine unterschätzte Gefahr? Ein Gelehrter ertastete einen glatten, harten Speer (Stoßzahn). Ein zweiter berichtet von enormer Kraft: eine mächtige Säule, stark und fest (Bein). Ein dritter stieß auf etwas Langes, Bewegliches, wie eine große Schlange (Rüssel).“
>
>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보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 동물에 대해 어떤 인상이 생겼습니까?
> 이제 해답입니다: 당신은 이 보도의 모든 출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5장의 여섯 명의 맹인 학자 중 세 명이며, 그들 중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인 측면들은 선택되고 무해한 측면들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채, 벽, 밧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 만약 당신에게,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위협이라는 인상이 생겼다면, 그 보도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을 보호했는지 검증해 보십시오—아마도 당신은 출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 진술들에 대한 검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믿는 것을 타격하지 않고, 당신이 무엇으로 측정하는지를 타격합니다.

공개성이 없는 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결정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도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지도부보다 사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알고 추정되는 의도를 빼내어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서에 담긴 지식마저도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가 다시 이를 알게 되면, 더 강하게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결국 양측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어느 쪽도 상대가 아는 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중치를 보이게 만드는 형식뿐입니다: 버려진 가능성들과 자신의 제안에 반대되는 점들을 함께 언급하는 보고서, 그리고 왜 다르게 결정하는지 말하는 결정권자들.

10.3 선전

비중 매기기를 가장 많이 연습해 온 것은 선전입니다. 사람들은 선전을 거짓말로 상상하는데, 선전에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1990년 10월,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논쟁되고 있을 때, 열다섯 살 쿠웨이트 소녀가 미국 의회 인권 단체 앞에서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이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의 아기들을 꺼내 바닥에 버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 세계를 돌았고 전쟁 논쟁에서 거듭 인용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증인이 워싱턴 주재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고, 쿠웨이트가 돈을 낸 단체가 의뢰한 광고 대행사가 그녀의 출연을 준비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둘러싼 그런 보도들은 모든 쪽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규칙이 드러나는 예외입니다. 거짓말은 반증될 수 있고, 반증된 거짓말은 그것을 퍼뜨린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규칙은 더 절제되어 있고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나쁜 것을, 자기 편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각각의 보도는 참일 수 있습니다. 선택이 그림을 만듭니다. 세련되게는 양쪽을 모두 보여 주지만 동등하게는 아닙니다. 원하는 쪽에 더 나은 목소리, 더 강한 이미지, 마지막 말이 주어지고, 원하지 않는 쪽에는 가장 약한 대표가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균형의 외양이 생기고, 바로 그것이 비중 매기기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반대 형식은 양으로 작동합니다. 너무나 많은 반대 의견과 혼란을 보여 주어 마침내 아무것도 더 이상 확실해 보이지 않게 만드

는 것입니다. 제22.4장의 범람입니다. 선전이 오성보다 먼저 느낌에 말을 거는 방식은 제14.3장에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전에 맞서서는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보다 무엇이 빠졌는지 묻는 것이 덜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보도를 읽으면 내 편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까? 내 편의 보도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까? 균형 잡혀 보이는 방송에서 누가 가장 강한 목소리를 얻는가? 그 질문들은 모든 쪽을 겨냥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우는 쪽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10a.3 첫 번째 수준: 개별 진술들을 확인하기

거짓된 것을 단언하는 단순한 기만에 대해서는 수단이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출처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사건에의 근접성, 독립적 출처들과의 일치, 그리고 주장된 근거가 근거지어야 할 것을 말해 주는지, 아니면 "졸리게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DE: „weil es eine einschläfernde Wirkung hat") 잠들게 하는 약처럼 그것을 한 번 더 이름 붙일 뿐인지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출처들에 적용된 탐정 원칙입니다.

첫 번째 수준에는 자기 확신의 정도를 등급화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같은 정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도들은 높이에서도, 종류에서도 다릅니다. 7 곱하기 8이 56이라는 것은 다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많은 독립적인 길이 같은 관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친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가 충분히 자주 그랬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심조차 그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백분율은 이 확실성들을 마치 한 종류인 것처럼 하나의 척도 위에 놓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얼마를 걸 것인가가 문제일 때 유용합니다. 더 많은 증인을 통해 계산이 더 확실해진다고, 또는 친구에 대한 신뢰가 계산을 통해 더 확실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준에는 무엇이 도대체 확인받을 만한지 결정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곧 제22.4장에서 부당하게 얻은 확인 요구 자격에 대한 방어가 시작된 질문입니다. 확인에는 시간과 주의가 들고, 모든 주장을 조사하는 사람은 다음 범람이 오기 전에 자기 확인 능력을 탕진합니다. UFO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원으로 뛰어나간 사람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교정에는 기저율, 곧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의 질문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판돈, 곧 내가 틀리면 무엇이 걸려 있는가 하는 물음과 출처의 실적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 승인 절차, 전문가들의 논쟁이 나를 위해 확인해 줍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밀을 재배하는 대신 빵집에서 빵을 사는 것만큼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때 자신

이 무엇을 갖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언급은 그것을 믿을 근거, 자주 좋은 근거이지만, 사태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확인했는지입니다. 그들의 근거가 공개되어 있는지, 어디서 합의가 있고 어디서 불확실성이 있는지 말하는지, 반대 논증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IPCC는 자신의 관찰 결과들에 대해 그것들이 얼마나 잘 문서화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밝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전체로서 믿거나 전체로서 거부하는 대신, 그 방법과 비중 매기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경제에는 서로 거울이 되는 두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필터입니다. 모든 기적의 치료법과 모든 중얼거리는 빈정거림이 조사를 얻는 필터 말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확인 요구 자격은 이 실패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막혀 자란 필터입니다. 정부, 다수, 전문가, 전통이 어차피 말하는 것만 들여보내는 필터 말입니다. 이 넷은 좋은 경험칙이지만, 그 어느 것도 혼자서는 지탱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의 합의는 그들의 독립성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베끼는 백 개의 목소리는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일탈을 처벌하는 다수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보여 주지 않고, 많은 사람이 무엇을 말할 용기를 가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안에 자기 이해관계를 가진 정부와, 다른 세계에서 검증된 전통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필터가 기울어졌는지는 대칭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불편한 것을 편안한 것만큼 빨리 물리칩니까? 기울어진 필터는 정확히 자기 진영의 경계선을 따라 달립니다. 그것은 자기 편을 흔드는 것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모두 확인합니다. 건강한 필터는 노력을 아끼고, 기울어진 필터는 두려움이나 동조를 아끼게 합니다. 확인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이 지배한 사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같은 시험은 일탈하는 사람도 때립니다. 어떤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해서 참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일탈적이라고 해서 참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수가 틀렸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대자들도 틀렸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언론, 학계, 거의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지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직감에 반하는 증거도 찾습니까? 그는 상대방의 가장 강한 대표자를 압니까, 아니면 가장 약한 대표자만 압니까? 그는 사정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리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까? 잘 확인된 것에서 더 멀리 벗어나는 주장일수록 더 많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입증 부담

의 분배이며, 잘 확인된 것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증거에 의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분배하지, 진리를 분배하지 않습니다. 낮은 기저율은 증거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를 정당화하지만,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독립적인 사람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직 확인 자체만이 참과 거짓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드물었던 것은 다시는 확인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될 수 없을 것입니다.

10b.1 두 번째 수준: 분포

> **▯▯ 21: ▯▯▯ ▯▯ ▯▯**
> 제10.1장의 코끼리 학자들에 관한 보도를 골라 첫 번째 수준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합니까?
> 출처는 완벽하고, 학자들은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보도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각각 직접 경험한 것이며, 그중 어떤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한 모든 확인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은 왜곡된 채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여섯 보도를 직접 다시 읽고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기 전에는 오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인들은 모두 말해진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결함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아는 도구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도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실패하는 기만은 진리들 외에는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습니다. 제10.3장의 코끼리 보도와 선전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분포로 작동합니다. 무엇이 선택되고 무엇이 선택되지 않는지, 어떤 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어떤 맥락과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X에 대해 말한다" (DE: „Alle reden über X")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다"지만 백 명 중 세 명입니다. 예외가 정상 사례처럼 보여지고, 한 장면이 추세처럼, 모든 데이터에 반하는 개별 운명이 – 또는 그 반대가 – 보여집니다. 각각의 개별 진술은 참일 수 있습니다. 공격당하는 것은 무엇이 빈번하고 무엇이 드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이며, 이 감각은 논증들을 통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 개의 보도, 대화, 이미지로부터 쌓입니다. 제4장의 전판단(前判斷)이 여기서 한 수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가져온 내용이 아니라 가져온 빈도들로서 말입니다.

첫 번째 수준에서의 물음은 "그것이 참인가?"입니다. 두 번째 수준에서의 물음은 "그것이 대표적인가 – 그리고 왜 내가 바로 이것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입니다. 유명한 탐정 소설에서 셜록 홈스는 밤에 짖지 않은 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결정적 단서는 빠진 것이었습니다. 방법의 남용에서 위조는 그 안에 나오지 않는 대안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외국들에서 저절로 빠졌던 것이 여기서는 주된 것이 됩니다. 오직 참인 것만 보여 주는 사람은 그가 보여 주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가 빠뜨리는 것에서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얼마나 빈번한가? 참인 개별 사례는 빈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율만이 일화를 세계에 대한 진술로 바꿉니다. 반대가 참이라면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보여지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은 세계와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그림을 구별합니다. 무엇이, 누가 내게 도달하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잣대로 – 진리로, 분노로, 보낸 시간으로 – 선택합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의 흐름도 선택이 왜곡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조립한다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흐름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논증을 이름 댈 수 없는데도 보통에 대한 나의 감각이 이동했습니까? 진짜 배움은 자기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름 댈 수 있는 근거 없는 이동은 교정 조작의 표지입니다. 천천히 데워지는 물에서 너무 뜨거워진 순간을 이름 댈 수 없는, 잘 알려진 우화의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10.5 아무도 검열하지 않는데도 걸러질 때

가장 심각한 형태는 주소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간주되는지를 규정하는 관청(제21.8장)은 보정의 경우 쉬운 사례입니다: 그것은 호명될 수 있습니다. 파악하기 더 어려운 것은 아무도 설치하지 않는 조종입니다: 한 관청이 지적을 제공하고, 한 플랫폼이 그것을 따르고, 한 위원회가 인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를 권고합니다. 각 단계는 그럴듯한 정초를 가지며, 아무도 검열하지 않으며, 끝에는 누구도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공간이 걸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팬데믹 동안 어떻게 보였는지는 제21.8b장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조종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지적들과 그 이행이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할 때에만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걸러짐에서는 두 번째 층위의 검증들도 쉽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도구들은 작동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럼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청은 지금까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합의는 광범위하

며, 각각의 개별 진술은 성립합니다 – 자신에게 모순되었던 것이 제거된 하나의 그림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기서 모순을 다루는 방식에서만 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반박되었는가, 아니면 단지 분류되었는가? 그것은 처리되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그것은 여전히 열람 가능한가? 어떤 입장이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은 그로써 반박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거되었을 것이며, 반론 없이 성립된 합의는 우선 그것이 생겨난 공간에 대한 하나의 소견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참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규칙이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됩니다: 모순의 부재로부터 조작을 추론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저지른 동일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명확했기 때문에 성립된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단순한 부재로부터는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해 올바른 가중치 부여를 규정하는 하나의 심급으로 응답하려는 유혹은 가깝습니다: 공인된 팩트체커들, 참된 것을 위로 정렬하는 알고리즘들. 실제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 입장을 대표할 때, 소수 의견은 동일한 공간을 얻지 말아야 합니다 – 그리고 그것이 가중치 부여의 문제로 남아 있고 소수 의견이 자신의 증거들이 지탱하는 만큼의 공간을 얻는 한 그것은 옳습니다. 가중치 부여가 배제가 될 때, 아무도 대다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그리고 "위험함"이라는 분류가 검증을 대체할 때 그것은 덫이 됩니다. 그러한 심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누가 그 심급을 점유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채널을 점유하는 자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보정을 점유합니다. 분산된 고유한 보정에는 뒤집을 수 있는 주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유 사회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자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능력도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함께 읽고 함께 쓰는 언어 모델들에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정상적, 논쟁적, 또는 합의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이 학습한 텍스트들의 퇴적물이며, 이 퇴적층 아래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모델이 가장 유창하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곳에서 흔히 말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퇴적물입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층위의 도구로서 그것은 강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들, 기저율들, 빠져 있는 것을 찾게 한다면 말입니다. 해독제는 그러한 모델에게도 당신에게와 동일합니다: 다수와 빈도들에 관한 곳에서는 명시된 불확실성, 빠져 있는 것에 대한 탐색, 합의에 대한 자신의 감각에 대한 불신, 그리고 타인에 의한 검증.

이와 유사한 왜곡은 선택이 아니라 측정 자체를 통해 생겨납니다. 한 상태를 표시해야 하는 수가 사람들이 평가받는 목표가 되면, 그들은 그 수가 맞고 상태는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학

교는 교과 대신 시험을 연습하고, 관청은 쉬운 사례들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 수는 처음에는 좋은 도구였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위조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사용을 통해 인식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수를 만나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에 따라 평가되는지도 묻습니다.

이 층위에 대해서는 면역이 없고 오직 경계심만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진술이 맞는 곳에서도 가중치 부여를 검증하고 정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행해야 합니다.

계속 읽기: 보정 (2026),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장 14.8, 조직 (2026), 장 5 and 6

제v부: 과정으로서의 진리

제23장: 진리와 진리 과정

16.4 "진리는 전체다"의 의미

끝나지 않는 확인, 수정 가능한 채로 남는 질서들 – 결국에는 잠정적 관찰 결과들의 더미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것이 이 책에서 여러 번 나온 문장, 진리는 전체라는 문장입니다. 그것은 종종 완전성을 위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모든 사실을 모아라, 그러면 진리를 가질 것이다. 그것이 뜻일 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는 존재를 해부하고, 모든 기관을 기록하고, 모든 세포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생명은 사라져 있습니다. 괴테는 이를 메피스토펠레스의 입에 넣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을 인식하고 묘사하려는 자는 먼저 정신을 몰아내려 애쓴다. 그런 다음 그는 부분들을 손에 쥔다. 애석하게도! 정신적 끈만 빠져 있을 뿐이다." 같은 일이 사고에서도 일어납니다. 모든 논증을 모으고, 모든 관점을 나열하고, 모든 질문을 처리하면서도 그것들을 하나의 통찰로 처음 묶는 것을 여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이 빠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도 전체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열은 질서 있어 보이지만 끈이 없습니다. 나열이 목적에 봉사하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 항공기 정비에서는, 그것은 살아 있는 질서에 속합니다. 그것이 이해의 자리를 차지할 때 죽은 것이 됩니다.

> DE: „Wer will was Lebendigs erkennen und beschreiben, Sucht erst den Geist heraus zu treiben, Dann hat er die Teile in seiner Hand, Fehlt, leider! nur das geistige Band."

따라서 어떤 것이 전체인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계적 완전성 – 모으고 체크 표시하는 완전성 – 과 구별하여 살아 있는 완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초상화는 모든 점을 기록하지 않고도 한 인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좋은 탐정은 어떤 단서도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지만, 각각에 같은 비중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건이 달려 있는 단서들을 찾고, 나머지는 제자리를 잡거나 열린 항목으로 남아 보입니다. 이 의미에서 진리는 살아 있고, 논리적으로 질서 지어진, 발전하는 전체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부분들이 상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하며, 유기체에서 각 기관이 다른 기관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그것들과 함께 발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질서 지어졌다는 것은 관계들의 인식 가능한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멋대로 모든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계들, 이행들, 발전 선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는 밖에서 부과되지 않고, 사태 자체에서 솟아나며, 사태에 맞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전체가 처음부터 완성된 채 있지 않고, 비로소 자기가 무엇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텍스트도 자기 질서를 전제하는 대신 실행 속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체라는 것은 연관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어떤 것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모든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초상화가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본질적으로 결과이지만 완성된 산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 속에서 생겨나고, 모순들을 통해 발전하며, 우리의 바람에 저항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체계적 통합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 전체에는 진리를 찾는 우리 자신도 속합니다.

23.5a 과정으로서의 진리

도달한 모든 질서가 열린 채로 남는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펼쳐진다는 뜻이며, 이중의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발전하고, 종종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발전합니다. 생명, 도시, 사회가, 자주 그것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 책은 미리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것을 한 걸음씩 발전시켰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아직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시작에는 자기 자신을 전제하는 질문이 서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참된 답을 원하고, 확인을 논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관련성만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눈먼 학자들은 사태가 오직 많은 관점의 종합 속에서만 열린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 종합이 살아 있는 전체인 것은 부분들이 서로를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덧셈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관점들이 서로 모순된 곳에서는 거부도, 단순히 나란히 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직 둘을 설명하고 보존하는 원칙만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탐정은 모든 단서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11장은 우리의 바람과 해석에 저항하는 것도 이 연관에 속하며,

그 너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진리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입니다.

각 시점에서 도달한 것은 인식된 진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통과했으므로 단순한 의견이 아니지만, 마지막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질서가 그것을 지양할 때까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보존된 채 남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뉴턴 역학이 극한 사례인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책의 단계들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모순이 열린 채 서 있고, 단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본질적인 어떤 것이 빠진 질서는 아직 전체가 아닙니다. 찾기, 발견하기, 계속 찾기의 전체를 진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진리가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교환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유지되는 것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다수에도 양보하지 않는 것에 맞서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말하기 방식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을 통해 생겨납니다. 어떤 질서가 발견되면, 시선이 그 질서 자체로 향합니다. 어떤 설명은 그것이 자기 사태를 모순 없이 완전하게 설명하면 참이라고 불리고, 어떤 보도는 본질적인 모든 것을 적합한 형태로 가져오면 참이라고 불리며, 어떤 개념은 그것으로 전체가 파악될 수 있으면 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획득된 개념으로 사태 자체가 재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두 개뿐이라 넘어지는 의자는 제대로 된 의자가 아닙니다. 궁지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은 참된 친구입니다. 작품은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이면 성공한 작품입니다. 사태의 이 진리는 첫 번째 진리에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진리에서 나옵니다. 사태가 재어지는 개념은 확인 속에서 얻어졌고, 그 개념도 오직 한 생명이나 하나의 결과의 전체 속에서만 스스로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인식된 진리는 더 나은 질서만이 드러내는 오류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플로지스톤 학설은 한동안 연소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었지만 더 나은 설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현상들을 설명한 것은 후자에 보존된 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리 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23.5 디딜방아와 다른 무한성

한 가지 반론이 떠오릅니다. 탐구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까? 도달할 수 없는 채로 남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디딜방아처럼 보입니다.

그 반론은 무한성의 특정한 그림을 때립니다. 항상 하나 더라는 그림입니다. 하나 더 있는 사실, 하나 더 있는 연구, 하나 더 있는 관점, 그리고 목표는 마치 언제나 하나를 더 더할 수 있는 수처럼 똑같이 멀리 남습니다. 진리가 이런 방식으로 무한하다면 그 반론은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이 책을 통과한 여러분 자신의 길에 비추어 확인해 보십시오. 물속의 막대가 왜 꺾여 보이는지 책이 보여 주었을 때, 여러분은 먼 목표를 향해 한 걸음만 내디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인식했습니까? 왜 그런지 이해한 사람은 무언가를 인식했고, 이 통찰은 절반이 아니라 전체였습니다. 그 후 광학이 계속 물었다고 해서 그 통찰이 불완전해지지 않았고, 살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별 탐구는 그 계기가 분명해지면 끝납니다. 그것이 물어진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서 있는 과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무한성입니다. 끝없이 먼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실제인 과정입니다. 전체는 길 끝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식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그 너머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통찰은 인식된 진리이고, 그 어느 것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진리 탐구는 다가갈수록 물러나는 지평선을 닮았습니다. 안에서 보면 모든 걸음은 획득한 땅입니다. 지평선은 물러나고, 땅은 남습니다.

철학에는 두 그림에 이름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 더는 나쁜 무한성이라고 불리고, 각 단계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과정은 참된 무한성이라고 불립니다. 진리 탐구의 끝없음이 무의미인지 진보인지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23.1 많은 길, 하나의 방향

확인은 방향을 갖기 때문에, 아무것도 억누르지 않는 전체를 향한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 똑같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는 오직 확인 속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은 길이 그곳으로 이어집니다. 이 입장을 지향된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있기에 지향적이고, 같은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서로를 보완하기에 다원적입니다. 방향은 특정한 결과들이 아니라 확인의 방식 자체로 보여집니다. 근거가 제시되고, 관점들이 종합되며, 모순들이 처리되고, 모든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채로 남는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각자가 제멋대로 연주하면 혼란이 생기고, 모두가 똑같이 연주하면 획일적인 죽이 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하나의 전체로 들어맞을 때 음악이 생깁니다.

제5장의 구별이 여기서도 유지됩니다. 어떤 입장들은 조각들을 – 함께일 때만 그림을 주는 관찰 결과들, 데이터, 관찰들을 – 느낍니다. 그것들은 전체에 들어맞는지 확인됩니다. 다른 입장들은 페소아의 이명(異名)들처럼 전체적인 보기 방식들입니다. 그것들은 건축 자재로 격하되지 않고, 무엇을 보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조화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구해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단지 한계 지

어질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은 단지 견뎌질 수 있습니다. 진리 탐구는 구별하고, 근거와 함께 거부하며, 아직 정직한 매개를 찾지 못한 것은 열린 채로 둡니다. 통합은 확인 뒤에 오지,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머리말이 말한 셋째 길입니다. 진영들 사이의 중간이 아니라, 각각에게 먼저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는 길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은 확인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끝냄으로써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진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하거나, 모든 진리를 권력 게임이라고 선언하거나, 판단을 전문가들에게 넘김으로써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의 확인에서 스스로를 배제합니다. 확인에 대한 적대까지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개방성은 자기 자신을 취소합니다. 확인을 열어 두는 입장은 둘을 결합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좋은 근거를 갖고 있다" (DE: „Ich kann mich irren, aber ich habe gute Gründe.")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는 대신 찾아 나서고, 자기 머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주고받으며 확인하고,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제24장: 이 텍스트는 스스로 말한 것을 행하는가?

17.2 그 길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전제하는 질문, 곧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참된 답을 원한다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는 부정할 수 없는 전제들, 가장 단순한 지각 속에 놓인 활동,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전판단들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보고들에서 코끼리가 되었고, 모순들에서 문들이 되었고, 단서들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들은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은 질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확인, 전제, 함께 맞추기가 모두 경험 속에서 일어난다면, 현실과의 일치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답 – 현실은 경험 밖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저항 속에서 스스로를 알린다는 답 – 은 제1부가 준비한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은 서로 다른 영역들이 서로 다르게 저항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되기를 원한다는 것, 확인이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확인은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며, 진리의 이름으로 확인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끝에서 확인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예 거기에 없는 것, 진리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진리가 무엇인지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 ▯▯ 22: ▯▯▯ ▯▯▯ ▯▯
> 그 순서는 우연이었습니까? 탐정 원칙에서 시작해 자기 관련성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까요?
> 시도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관점들의 연관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은 채 어떤 사람에게 탐정 원칙을 설명해 보십시오. 또는 모순을 유익한 것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변증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의 후반부들에 대해서는, 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해지기 전에 확인의 남용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서들에 비중을 매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교정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 아마 매번 되기는 하지만 더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 빠지고, 때로는 많은 것이 추상적으로 남습니다. 다른 순서도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순서는 제멋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은 걸음 속에서만 생겨난 필연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필연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생각될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각 단계가 이전 단계에 근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각 개념은 자기가 아직 무엇을 결여하는지 보여 주었고, 그렇게 해서 다음 개념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회고는 아첨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단지 일어난 것조차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더 어려운 시험은 이 텍스트가 스스로 말한 것을 행하는지, 곧 수행적으로 일관적인지입니다.

24.1 시험

주장되었습니다: 진리는 수행 속에서 생겨난다고. 사람들은 진리를 완성된 명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각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가운데 형성됩니다. 이 텍스트는 여러분이 믿어야 할 정의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방식을 계속 지켰는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했고, 얼마나 많은 지점에서 그저 따라가기만 해야 했습니까?

주장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그것을 검증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은 끝이 있습니까? 각 장이 전체에 들어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텍스트가 그 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주장되었습니다: 선-판단은 불가피하지만, 의식적이어야 하고 교정 가능해야 한다고. 이 텍스트도 무언가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 근거들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능한 검증자이며 우리가 그

에게 근거를 빚지고 있다는 것—이것은 교정될 수 있는 선-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근거를 통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부정하는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검증하는 사람은 또한 판단이 바람이 아니라 사태 자체를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어떤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례에서 무엇이 참인지는 이러한 전제들 어디에서도 따라 나오지 않으며, 그것은 검증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야 합니다. 이 텍스트는 이러한 전제들을 밖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검증의 수행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검증하기보다는 단지 옳은 쪽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논증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동의 탐구로 이끄는 증명은 없습니다. 오직 근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세만이 그 탐구로 이끕니다. 이 텍스트가 인간에 관해 가정하는 것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과, 상호 이해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조건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그것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서는 충분히 자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수행을 통해 보증됩니다. 두 번째 것은 오직 실천적 검증을 통해서만 보증됩니다.

이 텍스트의 사례들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고차, 탐정, 할머니의 요리법—이것은 특정한 언어, 특정한 문화, 특정한 시대입니다. 다른 텍스트는 다른 사례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텍스트의 요구는 사례들에 있지 않고, 그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수행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들은 여러분 자신의, 다른 사례들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이 틀린 것입니다.

주장되었습니다: 검증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여러분이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위조도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2장의 방향 검사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책 없이도 이전보다 더 잘 검증합니까?

주장되었습니다: 원칙들은 전도될 수 있다고. 이것은 이 책에도 해당됩니다. 이 책을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나는 계몽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진영 사고에 빠져 있다', '나는 조작을 꿰뚫어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은 이 책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책의 개념들은 몽둥이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책의 시험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모든 확신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서는 유일한 보호책은 그것들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독단적인가? 저의 어느 확신을 저는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가? 그리고 제11a.4장의 질문: 저에게 중요했던 사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주장되었습니다: 순전히 참된 것들만으로도 빠진 것 때문에 왜곡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것은 이 책에도 해당됩니다. 제4부의 사례들은 모든 보고가 그렇듯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에서 제10장이 요구하는 것을 검증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든 진영에서 나왔습니까? 각각의 것에 동일한 질문이 제기됩니까?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남은 질문은 이 텍스트가 비판에 열려 있는지, 아니면 자기 지시성을 통하여 면역화되는지입니다. 여러분이 공식화할 수 있는 모든 반론은 환영합니다. 이 텍스트가 자신의 원칙들을 반박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는 반박되어 수정되어야 합니다. 공격 불가능한 것은 오직 그 출발점뿐입니다. 그것은 검증하지 않으면서 검증함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만 비로소 무너질 것입니다. 이 조건은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것은 숨는 곳이 아니라 제22.3장에서 다룬 검증함의 열린 반박 불가능성입니다. 이 근거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계속 반박 가능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그것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 그 검증함의 개념 안까지도 포함합니다. 부정될 수 없는 것은 검증함이 행해진다는 것과, 모든 검증함이 그 수행에서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검증함의 개념을 수정하는 사람도 검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 명제만 빼고 모든 것이 교정 가능하다'는 반론은 맞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어떤 교정도 없을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과정에 관한 텍스트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을 완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립에 반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25.1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여기 실행 속에서 발전된 것은 두 방향으로 자기 너머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확인의 형식들이 어디서 오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곧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질서를 세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확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하고, 확인에 숙련된 사람은 자발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지 더 일찍 알아차립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교통에서 장애물이 아니라 결정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을 행위하는 자로 인식합니다. 요리를 할 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도 맛, 건강, 시간, 돈을 함께 가져옵니다. 저녁에 아이가 계속 놀고 싶어 하고 내일 아침 푹 쉬어야 할 때, 여러분은 두 관심 모두를 충족하는 해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벽

두 시에 빈 거리에서 걸어서 빨간불 앞에 서 있다면, 규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확인할 때 쓰는 것과 같은 능력들입니다. 자기가 사고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따라서 더 의식적으로 행위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는 많은 얼굴이 있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 장 12,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부록 **A:** 진리 이론들이 본 것

A1 서론: 오래된 논쟁

2천 5백 년 동안 진리가 논쟁되어 온 어느 살롱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끝에서는 누군가 가장 오래된 답을 고수합니다. 문장은 그것이 말하는 바가 존재하는 그대로일 때 참이라는 답입니다. 다른 쪽 끝에서는 정합론자가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과 그 문장을 비교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판단들만 있습니다. 참은 우리 지식의 전체 속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DE: „Womit wollen Sie den Satz denn vergleichen? Wir haben nur unsere Urteile. Wahr ist, was sich in das Ganze unseres Wissens fügt!") 그 사이에서 실용주의자들은 말합니다("참은 오래 보아 스스로 검증되는 것이다" (DE: „Wahr ist, was sich auf die Dauer bewährt")). 담론 이론가들도 말합니다("참은 자유로운 확인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DE: „Wahr ist, was in freier Prüfung vor allen bestehen könnte")). 구성주의자들도 말합니다("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짓는다" (DE: „Wir bauen unsere Wirklichkeit selbst")).

각자에게는 설득력 있는 논증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논쟁은 끝없어 보입니다.

제5장의 눈먼 학자들 이야기는 하나의 추측을 시사합니다. 아마 각자는 자기가 만져 본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것을 전체로 여기는 순간 틀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그 보고들이 서로 들어맞는가일 것입니다. 이 부록은 그 추측을 이론들 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이 책이 각 이론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하지 않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디에 열린 질문이 남는지를 말합니다.

A2 논쟁이 생겨난 방식

같은 탐구의 서로 다른 계기들

본문이 보여 주었듯이 진리 탐구에는 서로 다른 계기들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제3장, 제11장). 그것은 나머지와 들어맞아야 합니다(제8장).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1a.1장, 제20.5장).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제11.3b장).

이 계기들은 함께 속하지만, 각각을 따로 고찰할 수 있고, 철학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험론자들은 경험에서 출발했고, 합리론자들은 오성이 가져오는 질서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스스로 증명함을 중심에 놓았고, 담론 이론가들은 공동의 확인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왜 각각이 차례로 잣대가 되었는가

이 계기들 각각에는 그것만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약이 효과가 있는지는 경험이 보여 줍니다. 증명이 옳은지는 문장들의 연관이 보여 줍니다. 다리가 버티는지는 버티는 것이 보여 줍니다. 그런 사례들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 계기를 어디서나 발견하고, 다른 계기들은 단지 부가물로만 발견합니다. 이 이론들 대부분은 다른 계기들을 알았고 그것들을 포함해 넣었습니다. 논쟁은 어느 것이 다른 것들의 잣대인가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철학사에서의 학자들의 상황입니다. 다만 더 정교한 형태로 말입니다. 각자는 자기가 손에 쥔 것을 올바르게 묘사하고, 그것을 다른 부분들이 거기에 비추어 재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A3 피론주의 회의주의: 판단 보류

학설들의 논쟁에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자기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정하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그 선조로는 엘리스의 피론(대략 기원전 360년~대략 기원전 270년)이 꼽히는데, 그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학설로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 의사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기원후 2세기)의 《피론주의 개요》에서 압니다. 여기서 회의주의자라는 말은 계속 탐구하는 탐구자를 뜻합니다.

제2장의 회의주의자와 피론주의자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식들조차 보류합니다. 회의주의는 섹스투스에게 하나의 능력입니다. 모든 진술에 똑

같이 강한 진술을 맞세우는 능력입니다(《개요》 I 8). 동등한 힘, 그리스어로 이소스테네이아에서 판단 보류, 에포케가 따라 나오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무동요, 아타락시아가 따라 나옵니다. 섹스투스는 이 연관에서 화가 아펠레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펠레스는 말 입가의 거품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감 적신 스펀지를 그림에 던졌고, 그 자국이 거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회의주의자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 배고픔, 자기 나라의 관습, 자기 기술의 규칙을, 그것이 그렇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채 따릅니다.

똑같이 강한 반대 진술을 어떻게 찾는지는 트로포이, 곧 모든 판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전환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중 다섯 개는 전통이 아그리파라는 후대의 회의주의자에게 귀속시킵니다(《개요》 I 164-177). 모든 사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려는 사람은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근거는 또 다른 근거를, 그렇게 무한으로 나아갑니다. 멈추는 사람은 전제하는 것이고, 상대는 같은 권리로 반대를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근거지어진 것에서 취하는 사람은 원을 그리며 돕니다. 게다가 모든 것은 판단하는 자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납니다. 무한 소급, 멈춤, 원은 제1장의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서 나오는 세 가지 출구입니다.

이 책은 그중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제2장의 반론은 피론주의자를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로포이들은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묻는 확인을 위한 진짜 질문들입니다. 근거는 무엇 위에 얹혀 있는가, 무엇이 전제되는가, 근거들은 서로 상호적으로만 지지하는가, 판단은 어느 정도나 입장에 매달려 있는가? 그리고 근거들이 정말로 똑같이 강한 곳에서는 보류가 옳은 답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질문을 열린 채로 두기(제23.1장)라고 부릅니다.

모순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두 진술의 동등한 힘은 출발점이 아니라 관찰 결과입니다.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회의주의자는 반대 진술이 첫 번째 진술과 맞먹을 때까지 그것을 찾고 저울질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확인합니다. 바로 그가 자신을 묶어두고 싶어 하지 않는, 더 나은 근거와 더 나쁜 근거의 구별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동등성이 자기에게 단지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르게 판명될 수 있는 관찰 결과이고, 실제로 자주 다르게 판명됩니다. 7 곱하기 8이 56이라는 것은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어떤 반대 진술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합니다(제10a.3장). 나타나는 것에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투스가 그랬듯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아무 약이나 주지 않고, 검증된 약을 줍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비중 매겨져 있습니다(제3장, 제11.3b장). 따라서 차이는 행함보다 이름에 있습니다. 피론주의자는 지식이라는 말을 보류합니다. 이 책은 그 말로 근거들이 지탱하는 만큼의 확실성을 주장하고 스스로 수정되도록 하는 판단을 부릅니다.

따라서 아그리파의 트로포이들에 이 책은 소급을 붙잡을 첫 문장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뒤집을 수 있는 전제일 것입니다. 이 책은 실행 속의 버팀(제1장)으로 답합니다. 보류도 오직 확인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그것은 확인의 한 방식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반증 가능한 채로 남습니다(제24.1장). 고대 회의주의를 자기 시대의 회의주의보다 훨씬 높이 평가한 헤겔은 1802년에 다섯 트로포이가 유한한 어떤 것을 무조건자로 세우는 모든 학설에 맞서는 가장 적합한 무기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철학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 채로 남는 것은 평온함입니다. 피론주의자는 결정을 멈추는 곳에서 평온함을 발견하고, 이 책은 확인 속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제20장). 보류가 평온하게 하는지, 아니면 답해질 수 있는 질문을 놓아두게 하는지는 오직 개별 사례가 보여 줍니다.

A4 대응 이론: 저항이 방향을 보여 준다

가장 오래된 답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서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지 않다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있는 것이 있다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 (DE: „Zu sagen, das Seiende sei nicht oder das Nichtseiende sei, ist falsch; zu sagen, das Seiende sei und das Nichtseiende sei nicht, ist wahr“)(《형이상학》 IV 7). 스콜라 철학은 그로부터 오성과 사태 자체의 일치라는 정식, *adaequatio intellectus et rei*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론》(*De veritate*)에서 이를 인용합니다. 그로써 본 것은 모든 진리 탐구가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제멋대로임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기를 이 책은 보존합니다. 취하지 않는 것은 자주 그 정식에 따라 붙는 그림입니다. 마치 의식 밖으로 나가 사고와 사물을 나란히 놓아야 하는 것 같은 그림 말입니다. 일치는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바람과 해석에 저항하는 데서 스스로를 보여 줍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는 그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에서 대응이 경험됩니다. 경험 밖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말입니다. 심연을 가로지르는 비교는 사라집니다. 실제 비교는 사고와 지각 사이에서 달립니다. 비교가 아닌 비교에 관한 장이 그것을 발전시켰듯이 말입니다(제11.3a장).

열린 채로 남는 것은 만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참된 문장에 무엇이 대응하는가입니다. 수, 규범, 존재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진리만들기에 관한 절이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A5 정합설: 체계는 들어맞아야 한다

체계적으로 정교화된 이론으로서 진리의 정합설은 1900년경 영국 관념론에서 프랜시스 허버트 브래들리와 버나드 보전킷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선구자는 20년 앞선 로체와 빈델반트에게서 발견됩니다(제B7a절). 해럴드 H. 요아힘은 《진리의 본성》(*The Nature of Truth*, 1906)에서 그것에 닫힌 형식을 주었고, 브랜드 블랜셔드는 《사고의 본성》(*The Nature of Thought*, 1939)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형식을 주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나란히 놓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들 속에서가 아니면 사물들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판단은 오직 다른 판단들에 비추어서만 재어질 수 있습니다. 참은 우리 지식의 포괄적이고 모순 없는 전체에 들어맞고, 그 전체에 의해 지탱되는 것입니다. 탐정의 경우처럼, 모든 단서는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정합적인 망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명백한 반론을 정합론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블랜셔드는 뜻하는 바가 경험되는 모든 것과의 연관, 즉 지각들과도 맺는 연관이지 선택과의 연관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써 그는 제11장이 도달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의 정합성은 스스로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응 확인은 그것의 가장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니콜라스 레셔는 나중에 그 이론을 더 절제되게 표현했습니다. 정합성은 진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진리의 정합성↑이론》, 1973). 도널드 데이비드슨은 1983년에, 올바르게 이해된 정합성이 대응을 산출함을 보이려 했습니다.

제7장과 제8장은 그 핵심을 받아들입니다. 개별 통찰은 연관 속에서 버팀을 갖고, 모순은 질서가 미치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브래들리와 요아힘은 이 책이 따르지 않는 한 지점을 고집했습니다. 오직 완성된 체계만이 전체적으로 참이고, 모든 유한한 판단은 부분적으로, 정도들로만 참이라는 것입니다. 요아힘 자신은 이로부터 자기 자신의 이론도 부분적으로만 참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점에서 도달한 통찰은 절반이 아니라 전체이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제23.5장). 그것은 먼 체계의 단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의 가능한 최선의 질서이며, 모든 더 나은 질서 속에 보존된 채 남습니다.

헤겔의 문장 "진리는 전체다"를 영국 관념론자들은 즐겨 의존했습니다. 그것이 헤겔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 책의 과정이 헤겔과 어떤 관계인지는 부록 C에 있습니다.

A6 실용주의: 열매가 나무를 보여 준다

찰스 S. 퍼스는 1878년에 진리를 모든 탐구자들이 긴 안목에서 수렴하게 될 의견으로, 실재를 그 안에서 표상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로부터 스스로 검증됨의 학설을 발전시켰습니다. 참은 우리 사고에서 유용한 것, "긴 안목에서 그리고 전체에서" (DE: „auf lange Sicht und im Ganzen")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이념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발생하는 것을 통해 참이 됩니다(《실용주의》, 1907). 존 듀이는 마침내 그 말을 "보증된 주장 가능성" (DE: „gerechtfertigte Behauptbarkeit")으로 대체했습니다(《논리학》, 1938). 그들이 그로써 인식한 것은 참된 이념과 거짓된 이념의 차이가 그 결과들에서 드러나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이념은 확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1.3b장은 여기에 연결됩니다. 우리는 행위함으로써 확인합니다. 실용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즐겨 제기하는 반론, 그것도 실용주의 자신이 보았습니다. 모든 성공이 진리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만은 한동안 작동할 수 있고, 거짓말은 단기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긴 안목과 전체에 대해, 퍼스는 탐구의 끝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행적↑ 견해는 동의합니다. 진리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행이며, 실천 속에서 스스로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합니다. 모든 성공이 진리는 아닙니다. 기준은 제멋대로의 유용성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과의 열린 대결에서의 지속적인 검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검증됨은 기능함 이상입니다. 행위를 파악하는 사고가 그에 속하고, 그것 없이는 비틀거리며 나아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제11.3b장). 이 점에서 이 책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퍼스입니다. 그에게 진리는 개별 성공이 아니라 탐구의 과정에 놓입니다.

한 질문에서 길은 갈라집니다. 흔적이 유실되어 어떤 탐구도 결코 마주치지 못할 진리는 어떠한가? 퍼스에게는 그때도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제11.3c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오류의 의미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흔적이 흐릿한 과거는 원칙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들은 확인을 허용했을 것이고, 다만 유실되었을 뿐입니다. 열린 채로 남는 것은 저항 – 이 책이 그 외의 모든 것을 거기에 고정하는 저항 – 이 더 이상 스스로 알릴 수 없다면, 그때에도 어느 정도까지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A7 합의 이론: 진리의 기준으로서의 공동 탐구

위르겐 하버마스는 논문 「진리론들」 (DE: „Wahrheitstheorien“)(1973)에서 진리를 한 주장이 제기하고 담론에서 상환될 수 있는 요구로 취했습니다. 참은 강제와 기만에서 벗어나 확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오토 아펠은 퍼스를 따라 무제한적인 논증자 공동체의 합의를 생각했고, 논증의 전제들은 논박하면서 주장되지 않고는 논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도하는 사람은 수행적↑ 자기 모순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논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제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기 근거는 모두에게 타당해야 하고, 모든 반론은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이 책과의 일치는 가장 큽니다. 진리 탐구는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근거를 빚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저항하고(제11a.1장),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의 탐구에서 스스로를 배제합니다(제23.1장).

반대로 거부되는 것은 합의가 참을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어떤 것을 참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되지 않으며, 이상적 조건들에서의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 같은 코끼리에 관계하듯 같은 현실에 관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단계는 하버마스 자신이 나중에 취했습니다(《진리와 정당화》, 1999). 진리는 아무리 좋은 정당화도 넘어서며, 담론은 공동으로 전제된 객관적 세계에 관계합니다. 이 지점에서 후기 하버마스는 코끼리 원칙과 만납니다. 담론은 진리가 확인되고 발견되는 장소이지, 진리가 생겨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개별 논쟁에서 합의가 압력이 아니라 사태 자체에 근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제10a.3장과 제10.5장은 이를 위한 시험들 – 동의하는 사람들의 독립성, 일탈할 자유, 반대논증이 어떻게 되었는지 – 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식이 없습니다.

A8 칸트: 안에서부터의 한계

임마누엘 칸트는 진리의 명목 정의, 곧 진리는 인식과 그 대상의 일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제했습니다”(《순수이성비판》, A 58/B 82). 사물과의 외적 비교를 그는 그로써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내용에 대해 이 일치를 읽어 낼 수 있는 표지가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의 질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 무언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식은 직관과 개념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직관은 감성적이며, 공간과 시간 그리고 원인 같은 개념들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들을 그것들이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현상은 가상(假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간 속의 사물들은 실재적이고, 꿈과 현실은 칸트에 따르면 연관에서 다릅니다. 표상들이 규칙들에 따라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되는지 아닌지에서 말입니다. 누메논, 곧 물자체 개념을 그는 오직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한계 개념"이라고 부릅니다(A 255/B 310 f.). 그것은 감성의 오만을 제한해야 하지, 제2의 세계를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부정인 제한과 칸트는 이 한계를 명시적으로 구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이 감성적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알고, 최소한 다른, 비감성적인 직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칸트가 본 것은 인식이 능동적이고, 그것이 발견하는 것에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것 – 제3장의 발견 – 그리고 자기 한계를 확인하지 않는 이성은 모순들에 얽힌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심연을 가로지르는 비교를 거부하고, 현실과 기만을 경험의 연관으로 구별하는 점에서도 그에게 가깝습니다(제8장, 제11.3a장, 제11.3b장).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칸트보다는 헤겔에 더 가깝습니다. 사고는 자기가 거기에 비추어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양보하지 않는 무언가가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제11장, 제11a장). 칸트의 문장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DE: „Gedanken ohne Inhalt sind leer, Anschauungen ohne Begriffe sind blind")(A 51/B 75)를 이 책은 저항의 모습으로 보존합니다. 헤겔은 그의 논리학에서 개념에 대해 그것을 거부했지만, 철학이 자신의 발전을 경험 과학들에 빚지고 있다는 것은 유지합니다.

제7장이 물속의 막대에서 모순을 해소하는 절차를 칸트도 시연했습니다. 그의 이율배반들은 세계 전체에 대한 문장 쌍들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는 시간에서 시작을 가진다는 것과 가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면서도 둘 다 증명 가능해 보이는 문장들입니다. 칸트는 그 모순이 대상에 대한 은밀한 가정, 곧 세계 전체가 물자체라는 가정에 매달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면 모순은 가상임이 증명되고, 칸트는 왜 양쪽이 필연적으로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막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다"는 막대에 적용되고, "꺾여 있다"는 물속에서의 막대의 모습에 적용되며, 빛의 굴절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헤겔은 이 절차를 칸트에게서 취해 전환했습니다. 그에게서 모순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하는 규정들에 매달려 있고, 그 해소는 더 풍부한 규정으로의 진행입니다. 이 버전에 더 가까운 것은 모순이 사태 자체에 놓여 있고 그것을 더 나아가게 하는 곳에서입니다. 모순 없이는 규정될 수 없는 개념에서(제11a.2장), 또는 자기 불일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세계관에서(제19.2장) 말입니다.

취하지 않는 것은 형식들이 따라서 단지 우리의 것일 뿐이고 한계는 미리 확정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11.3c장은 이 반론의 가장 강한 버전과 씨름합니다. 그 장이 앞에서 거부하는 더 약한 버전 – 참된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제한을 안다는 것 – 은 칸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계 개념 자체로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칸트 자신의 답, 곧 우리가 적어도 다른 인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안다는 것을 이 책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물이 우리의 그림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식은 그에 대한 잣대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오류가 진리와 구별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논쟁으로 남는 것은 칸트를 가장 많이 점유한 질문입니다. 단일 경험보다 더 많은 것, 예를 들어 원인에 대해 말하는 판단들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필연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칸트는 필연성을 모든 경험에 앞서 확정된 조건들에서 찾습니다. 이 책은 제시될 수 있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근거들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칸트가 주장한 것보다 적지만, 필연성의 포기는 아닙니다. 칸트도 자기 자신의 것을 위해 자기 근거들, 경험의 조건들에 대한 논증을 갖고 있고, 기하학에서는 사물들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제11.3c장).

또 다른 지점에서도 이 책은 칸트에게 감사를 빚지고 있습니다. 자연목적, 곧 내적 합목적성을 지닌 조직화된 존재라는 개념은, 그 목적이 예술 작품과 달리 그 존재 밖에 있지 않은데, 제15.2장의 합목적성 단계들의 기초가 됩니다(《판단력비판》, §§ 64-66).

A9 칸트 이후: 일치 대신 타당성

칸트 이후 한 세기, 그에게서 출발한 철학자들은 그의 한계에서 그 자신이 이끌어 내지 않은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헤르만 로체는 자신의 《논리학》(1874)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적 세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우리가 표상들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표상들 전체가 참인지 아닌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표상들 속에서만 알려지는 현실과의 비교로는 결정될 수 없습니다. 참된 문장을 구별하는 것은 로체에게는 문장 옆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문장의 타당성입니다. 참된 문장은 누가 그것을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성립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 속의 과정이고, 그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헬름 빈델반트는 로체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1881년 칸트 《비판》 백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그 귀결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표상들과 표상들을 비교하는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므로, 진리 개념은 더 이상 표상들과 사물들의 일치를 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상들 서로 간의 일치로 환원된다" (DE: „er reduziert sich auf die Übereinstimmung der Vorstellungen untereinander"). 그것은 요아힘보다 25년 앞선, 한 문장으로 된 정합설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일관적인 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델반트에게는 어떤 일치가 유효한지를 위한 잣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규범에서 그 잣대를 찾았습니다. 참은 마땅히 연결되어야 할 방식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자기 상황의 우연을 따르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만을 따르는 의식이 판단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보통 의식"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판단을 재는 잣대입니다. 그로써 논리학은 크리스토프 지그바르트에게서처럼 규범적 학문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기술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다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로써 본 것은 세 겹이고, 이 책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첫째, 심연을 가로지르는 비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상들 밖에, 그것들을 사물들에 맞대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갖지 않습니다(제11.3장). 둘째, 어떤 판단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내리는지의 질문과 다릅니다. 그래서 근거들은 그 생겨난 역사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 진리 탐구는 하나의 당위 아래 있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 사적인 일이 아닌 규칙들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의 탐구에서 스스로를 배제합니다(제18.3장, 제23.1장).

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합성에 도달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대응이 물자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합성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생각이 있고 저기 사물이 있다는 그림을 그들은 유지했고, 사물이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자 한쪽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자체와 함께, 전혀 저편에 있지 않은 무언가를 포기했습니다. 표상들 자체 가운데에는 스스로를 강요하고 어떤 바람과 어떤 재해석으로도 제거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빈 주머니도 하나의 표상이지만, 길을 비키지 않는 표상입니다(제11.4장).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저항이라는 범주입니다. 그것으로 대응은 경험 안에서, 자신이 저편에서 잃었던 것을 되찾습니다. 실제 비교는 사고와 지각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거나 수정하는 접근들 사이에서 달립니다(제11.3a장). "표상들 서로 간의 일치" (DE: „Übereinstimmung der Vorstellungen untereinander")는 그로써 또한 양보하지 않는 것과의 일치도 뜻한다면 옳습니다. 블랜셔드가 나중에 그렇게 표현했듯이 말입니다(제B4절). 저항 없이 규범은 올바르게 연결해야 한다고 말할 뿐, 두 표상이 모순될 때 어느 표상이 길을 비켜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열린 채로 남는 것은 로체의 말이 얼마나 멀리 나르는가입니다. 수, 규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 이론에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제B3절). 어떤 문장이, 그에 대응하는 만나는 것이 없이도 성립한다는 것은 아마 이 경우들에 대한 더 정확한 기술일 것입니다. 타당성과 저항이 거기서 같은 경험의 두 이름인지, 곧 우리가 문장의 진리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경험의 두 이름인지는 이 책이 결정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A10 구성주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하인츠 폰 푀르스터는 객관성을, 주체가 자기 없이 관찰할 수 있다는 주체의 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른스트 폰 글라저스펠트는 "진리" 대신 "생존 가능성"에 대해 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현실에 맞습니다. 열쇠가 그것이 여는 자물쇠에 맞지만 그 자물쇠를 묘사하지는 않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인식하는 자의 활동 없이는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직접적인 경험조차 이미 매개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자기 길로 같은 관찰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글라저스펠트 자신도 그에 대해 사람들이 즐겨 제기하는 한계를 보았습니다. 생존 가능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뿐이고,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제멋대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로 여기서 저항을 통한 확인이 시작됩니다. 구성물들이 실패하는 저항에서, 대응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보여집니다. 판단이 사물에 맞추어야 하지, 사물이 판단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제11.3a장).

논쟁으로 남는 것은 실패에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입니다. 글라저스펠트에게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통과시키지 않는 곳에서뿐이며, 현실의 그림을 얻지는 못합니다. 코끼리 원칙은 더 많이 말합니다. 많은 독립적인 길들이 같은 지점들에서 실패하고 같은 지점들에서 통과하는 곳에서, 사태의 그림이 생겨나고, 이 그림은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제5장, 제11.3c장). 이를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부르는지, 더 잘 맞아 가는 것이라고 부르는지는 개별 판단들의 확인에서는 거의 무차별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지는 것은 맞아 감으로부터 현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니오'뿐이라는 추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입니다.

A11 언어-실용적 전회: 비트겐슈타인, 오스틴, 스트로슨

언어 게임으로서의 진리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시선을 낱말에서 그 사용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참"은 숨겨진 속성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게임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낱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움으로써 배웁니다. 많은 경우에 낱말의 의미는 언어에서의 그 사용이라고 그는 말합니다(《철학적 탐구》 §43).

존 L. 오스틴은 어떤 문장들은 기술하지 않고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약속합니다..."는 약속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약속을 합니다. 강의들 《말로 행하는 법》(1955년 강의, 1962년 출판)에서 그는 더 나아가 보기에 단순한 진술조차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행위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진리 자체로의 단계는 피터 F. 스트로슨(1949)이 취했습니다. "...라는 것은 참이다" (DE: „Es ist wahr, dass …")는 어떤 문장도 기술하지 않고,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것은 동의 같은 행함입니다. 오스틴은 1950년 그에게 반박했고, 사실들과의 일치를 고수했습니다.

둘 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스트로슨은 사용에서 "참"이 행함이라는 것을, 오스틴은 이 행함이 그것이 스스로 만들지 않는 어떤 것에 비추어 재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행적↑ 견해는 둘 다 필요로 하고, 시선을 넓힙니다. "그것은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실행이 아니라, 찾기, 확인하기, 거부하기도 인식 가능한 규칙들을 따릅니다.

진리 게임의 규칙들

제18.3장은 과학의 확립과 같은 규칙들을 기술합니다. 어떤 것을 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화된 서로 다른 보기 방식들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갈등들은 건너뛰지 말고 싸워서 해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도 더 나은 논증들에 대해 면역이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참"이라는 낱말의 문법에 대해, 스트로슨은 확증하는 행위에 대해, 오스틴은 이 행위가 무엇에서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A12 하인리히스: 진리의 네 겹 개념

독일 철학자 요하네스 하인리히스(1942년생)는 진리를 전적으로 말함에서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참 또는 참되지 않음은 아직 사고들의 연관이 아니라, 오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는 것에서만 있습니다. "오직 실용적 정립, 단언, 그리고 화행들에서 그것에 반성적으로 기초하는 모든 것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DE: „Erst bei der pragmatischen Setzung, der Behauptung und allem, was an Sprechakten auf ihr reflexiv aufbaut, kann man von Wahrheit und Unwahrheit sprechen")(《언어》 3권, 299쪽). 진리는 이때 "언어적 행위의 함축적 규범들의 총괄, 다만 그 인식 내용에 관해서" (DE: „Inbegriff der impliziten Normen des sprachlichen Handelns, allerdings im Hinblick auf ihren Erkenntnisgehalt")(같은 곳)을 뜻합니다. 모든 말함은 동시에 한 사태에, 말하는 자 자신에, 듣는 자에, 공유된 의미 연관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 규범은 네 면을 갖습니다. 사태에 대한 정확성, 말하는 자의 진실성, 듣는 자에 대한 책임, 정합성입니다(304-320쪽). 여기서 새로운 것은, 자기 진술에 따르면, 진실성과 책임이 진리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321쪽). 정확한 모든 것을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병세를 언제 어떻게 알리는가는 하인리히스에 따르면 단지 배려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의 진리에 관계합니다(311 f.쪽).

이론들 각각이 진리의 한 면을 나머지의 잣대로 만들었다고 제B12절이 보여 주는 것을, 하인리히스는 이 책보다 훨씬 앞서 표명했습니다. 자기 진술에 따르면 세 부분으로는 1973/74년에 쓴 에세이에서, 네 부분으로는 1975년 강의에서, 정교화된 형태로는 1981년 《언어이론》에서 말입니다. "구별된 진리 차원들 중 하나만을 유일하게 표준적이고 정의적인 것으로 선언하는 것은, 언어의 하나의 차원만을 언어 자체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만큼이나 잘못일 것이다"(320쪽). 사태와의 일치는 그에게 대응 이론이 본 면이고, 정합성은 정합설이 본 면이며, 듣는 자 앞에서의 책임은 합의 이론의 정당한 계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위르겐 하버마스는 논문 「진리론들」 (DE: „Wahrheitstheorien")(1973)에서 모든 말이 제기하는 네 요구, 곧 이해 가능성, 진리, 정당성, 진실성을 구별했습니다. 진리라고 그는 오직 단언들에 적용되는 것만을 부릅니다(제B6절). 둘보다 더 오래된 것은, 참은 일면적인 규정들이 제자리를 갖는 전체라는 문장입니다. 그것은 헤겔의 《정신현상학》(1807; 부록 B4) 머리말에 서 있습니다. 하인리히스는 그 문장을 최고 수준의 정합성의 이름으로 스스로 인용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말의 준-신학적 함축들" (DE: „die quasi-theologischen Implikationen der Rede von ‚der' Wahrheit")을 포기합니다(317쪽).

> DE: „Eine einzige der unterschiedenen Wahrheitsdimensionen zu der allein maßgebenden und definitorischen zu erklären, wäre genauso verfehlt, wie eine einzige Sprachdimension zu der Dimension der Sprache zu erheben“

하인리히스는 또한 정합성이 다른 면들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진리에는 “*facta bruta*의 지각” (DE: „das Wahrnehmen der facta bruta“), 운명적인 것과 도출 불가능한 것의 지각이 속합니다(321쪽). 진리는 다른 면들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음, 도출 불가능성, 역사성, 놀라움의 성격” (DE: „den Charakter der Handgreiflichkeit, Unableitbarkeit, Geschichtlichkeit und Überraschung“)을 얻습니다(320쪽). 그리고 진리는 이 주어진 것에 대한 수용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만장일치의 합의”조차 진리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317쪽).

이 점에서 이 책은 그의 편에 섭니다. 하인리히스가 *facta bruta*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는 저항이고(제11.4장), 그가 합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제B6절이 말하며, 무조건적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 곧 그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으로서는 오직 조건지어진-역사적 실현 속에서” (DE: „aber als menschliche nur in bedingt-geschichtlicher Verwirklichung“)(323쪽)라는 답은 제23.5a장의 인식된 진리입니다. 전체이지만 마지막은 아닌 진리 말입니다.

취하지 않는 것은 낱말의 확장입니다. “참”은 이 책에서 어디서나 같은 것을 뜻합니다. 다른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입니다(제13.1장). 어떤 편지가 그것이 쓰고 있는 것을 뜻하는지 아닌지는 그 편지에 대한 그 자체의 질문이고(제15.13장), 말기 환자에게 어떤 진리를 지금 말해도 되는지는 행위의 질문입니다. 하인리히스는 실천적 면들이 없이는 진리를 “이데올로기와 구별할 수 없는데, 이데올로기는 이론적 거짓과 다른 무엇, 곧 실천적 비진리이기 때문이다” (DE: „nicht von Ideologie unterscheiden, weil diese etwas anderes ist als theoretische Falschheit, nämlich praktische Unwahrheit“)(322쪽)라고 반론합니다. 이 책은 이데올로기를 그것이 확인에 하는 일에서 인식합니다. 속이는 사람은 확인을 방해해야 합니다(제20.4장, 제21장). 그리고 하인리히스가 한 의사소통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책이 사태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곳에 자리를 갖습니다. 친구가 참된 친구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한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인지 아닌지(제23.5a장)에서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는 첫 번째 진리에서 나옵니다. 정확하지만 잘못된 때에 말해진 문장은 참인 채로 남습니다. 놓친 것은 말함입니다.

열린 채로 남는 것은 두 버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하인리히스 자신은 문장이 말하는 것과 그것으로 사람이 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는 다만 둘 다를 진리라고 부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파괴적인 진리가 일단 말해지면 “진리가 아니다” (DE: „keine Wahrheit“)

(313쪽)라고 그가 쓰는 곳에서, 그가 뜻하는 것은 말함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은 "논리학에서 사안의 진리"(같은 곳)로 남습니다. 그러면 둘을 가르는 것은 사태라기보다 낱말입니다.

A13 분석적 정교화들: 진리 술어에서 진리 다원주의까지

20세기 분석철학은 이전 이론들이 결여했던 정밀함으로 진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들 중 일부는 여기에 속합니다. 각각이 단일 계기를 더 날카롭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타르스키: 형식적 특수 경우를 위한 정밀성

알프레트 타르스키는 1930년대에 형식 언어들을 위해 정확한 진리 술어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도식은 언뜻 사소해 보입니다. "눈은 희다"는 눈이 흴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입니다. 그러나 겉보기 사소함 뒤에는 엄격한 구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대상 언어에 대한 메타언어에서 정의되고, 이 층위화가 낡은 거짓말쟁이 역설("이 문장은 거짓이다" (DE: „Dieser Satz ist falsch"))을 해소합니다. 무심한 진리 정의들은 이 역설에서 좌초됩니다. 타르스키 자신은 자기의 도식을 낡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답의 정확한 정식화로 이해했습니다.

정당한 계기: 언어들이 정확하게 구성된 곳 – 논리학과 수학 – 에서는 진리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타르스키 자신이 그은 한계: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연 언어들에는 그의 정의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탐구의 실천에 대해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술어를 정의합니다.

타르스키의 정밀성은 여기서 형식적 특수 경우를 위한 도구로 봉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그의 정의가 추상해 버린 실천이 필요합니다.

축소주의: 얇은 술어와 조밀한 실천

타르스키보다 앞서 프랭크 램지(1927)는 "비가 온다는 것은 참이다" (DE: „Es ist wahr, dass es regnet")가 "비가 온다"보다 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타르스키 이후 콰인과 나중에 폴 호리치(《진리》, 1990)가 그것으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진리 술어는 깊은 속성이 아니라 실용

적 도구이며, 무엇보다 일반화에 유용합니다("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참이다" (DE: „Alles, was sie gesagt hat, ist wahr")). 거기서는 문장들을 하나씩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계기는 처음 보기보다 큽니다. 축소주의는 진리가 문장들에 외부의 딱지처럼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럼으로써 수행적↑ 견해에 가까워집니다. 호리치는 자신의 학설을, 낱말의 의미가 그 사용에 있다는 이론과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참"이라는 낱말이 단언함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면,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것은 단언함의 실천, 즉 확인하고, 정당화하고, 철회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수행적 견해의 장이 놓입니다.

축소주의가 또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 실천입니다. 왜 우리는 단언들을 확인합니까? 왜 우리는 어떤 것은 부끄러워하며 철회하고, 어떤 것은 모든 저항에 맞서 옹호합니까? 술어는 얇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게임은 조밀합니다. 축소주의자에게 그것은 낱말이 아니라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여기서 묻습니다.

진리만들기: 저항이 이름을 얻는다

진리만들기 이론은 특히 데이비드 암스트롱(《진리와 진리만들기》, 2004)이 정교화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묻습니다. 세계에서 무엇이 참된 문장들을 참으로 만드는가? 탁자가 갈색이라는 것이 "탁자는 갈색이다" (DE: „Der Tisch ist braun")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듭니다. 진리는 존재에 의존하고,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형태의 대응 계기입니다. 진리는 제멋대로가 아니며, 무언가가 그것을 떠받쳐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워지는 지점들은 낡은 대응 이론에서와 같습니다. 무엇이 "유니콘은 없다" (DE: „Es gibt keine Einhörner")를 참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7은 소수이다" (DE: „Sieben ist eine Primzahl")를 참으로 만드는가? 암스트롱은 부정 문장들을 위해 특수한 전체성 사실들을 상정했지만, 그런 제안이 설득력 있는지는 진리만들기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논쟁됩니다. 비교가 아닌 비교에 관한 장에서 우리가 아는 한 답은 이렇습니다. 진리만들기는 경험 속에서 저항으로 스스로를 알립니다. 우리의 해석들에 맞서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검사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 옆으로 물러설 수 없지만 말입니다. 수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이 어려움에 대한 다른 이름 이상인지는 그로써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 다원주의: 영역들에 대한 분석적 이웃

1990년대 이후 크리스핀 라이트(《진리와 객관성》, 1992)와 나중에 마이클 린치(《하나이자 여럿인 진리》, 2009)는 진리 다원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진리는 서로 다른 영역들에서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문장은 도덕적 문장과 다르게 참이고, 수학적 문장은 미적 문장과 다르게 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서나 같은 낱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테제에 따르면 진리가 어디서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영역들에 관한 장(제13장)과 이것은 밀접하게 닿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이 책도 진리의 여러 형태에 대해 말하지만, 그로써 뜻하는 것은 판단이 스스로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식들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들에서 "참"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시한다고 이 책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더 가까운 것은 테제의 후반부, 곧 하나의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증명함과 서로 다른 진리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유지되는지 해소되는지는 그 이웃이 열린 채로 남는 질문입니다.

방법론적 이웃: 베이즈주의적 교정

마지막으로 이 계열에는 방법론에서 온 한 이웃이 속합니다. 베이즈주의적 확률 계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등급적 확실성과 교정으로 발전시킨 것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만듭니다. 확신들에는 정도가 있고, 새로운 단서들은 이해 가능한 규칙들에 따라 이 정도들을 이동시킵니다. 강한 단서는 강하게, 약한 단서는 약하게 말입니다. 베이즈주의자는 계산자를 든 탐정입니다.

정당한 계기: 확실성의 정도들이 정량화될 수 있는 곳에서, 그 계산은 직관을 벗어나는 사고의 오류들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악명 높은 기저율 무시가 그렇습니다. 본문이 확인 경제, 기저율, 출처의 실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 계산의 일상 언어적 형식이며, 베이즈주의자는 그 수학을 정교화합니다. 판돈, 곧 오류에서 무엇이 위험에 처하는가는 계산 자체에 속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결정 이론에 속합니다. 한계: 최초의 확률들이 어디서 오는지 계산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작값들은 판단력이 설정해야 하며, 그와 함께 어떤 공식도 사람에게서 떠맡아 주지 않는 교정의 기술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산은 자기 앞에 있는 단서들을 계산합니다. 빠뜨려져서 결코 계산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어떤 정도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제10b.1장).

A14 비판 이론: 진리와 해방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본 것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1937년에,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반성하지 않는 전통 이론을, 자신이 조사하는 관계들의 일부임을 알고 그 변화를 목표로 하는 비판 이론과 구별했습니다. 그는 테오도어 W. 아도르노와 함께 《계몽의 변증법》(1944/1947)에서 수단만을 계산하는 이성이 어떻게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그릇된 삶 속에 올바른 삶은 없다" (DE: „Es gibt kein richtiges Leben im falschen")라고 아도르노는 《미니마 모랄리아》(1951)에서 씁니다. 그 문장은 삶이 그릇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잣대를 전제합니다. 그릇된 조건들 아래에서는 살 수 없는 올바른 삶 말입니다. 진리와 해방은 함께 속합니다.

왜 진리 탐구는 해방하는가

제20장과 제22.5장은 다른 길로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대신 인식 능력이 있는 주체들로 대우합니다. 그는 비밀 가르침 대신 열린 논증들로 작업하고, 수정 가능한 채로 남으며, 모든 사람이 그가 단언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특성들 각각에는 거울상으로, 그것이 배제하는 억압의 한 형태가 대응합니다.

자기 권력을 무지에 기초하는 체계들은 따라서 확인을 방해해야 합니다. 성공한 모든 확인은 그 권력이 무엇에 의존하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과 이 책이 더 나아가는 곳

이 책은 비판 이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수합니다. 진리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단지 수단만을 계산하는 이성은 지배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은 진리가 봉사해야 할 목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확인함 자체의 결과로 등장합니다. 『계몽의 변증법』이 모든 이성에, 그리고 확인하는 이성에 대해서도 제기하는 의심은 계속 남습니다. 곧 이성이 지배로 전도될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이 책은 그 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21장은 진리의 이름으로 확인함이 어떻게 방해되는지, 그리고 원칙들 자체가 어떻게 전도되는지(21.5)를 서술하고, 자기 적용으로 응답합니다. 이는 보장이 아닙니다.

A15 모든 입장이 본 것

계기들과 그것들의 절대화

각 입장은 진리 탐구의 실제 계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대응 이론은 현실의 저항을, 정합설은 연관을, 실용주의는 스스로 증명함을, 합의 이론은 공동의 확인을, 칸트는 인식 자체가 가져오는 형식들을, 구성주의는 인식하는 자의 활동을, 언어 실용주의는 실행을, 분석적 정교화들은 개별 계기들의 날카로움을, 비판 이론은 진리와 해방의 연관을 보았습니다.

이 입장들 중 어느 것도 단지 오류가 아니지만, 몇몇에서는 무언가가 거부됩니다. 대응 이론에서는 사고와 사물의 나란히 놓기가, 정합설에서는 정도들로의 진리가, 실용주의와 합의 이론에서는 스스로 증명함 또는 합의가 참을 만든다는 생각이, 칸트에서는 형식들이 단지 우리의 것일 뿐이라는 결론이, 구성주의에서는 현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니오'뿐이라는 결론이 거부됩니다. 남는 것은 각자가 본 현상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확인의 한 계기가 나머지의 잣대라는 주장입니다. 이론들에 대한 그런 질서 짓기를 요하네스 하인리히스(제B9a절)는, 자기 진술에 따르면, 1975년부터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론들을 말함의 면들에 배정하고, 이 책은 확인의 계기들에 배정합니다. 낡은 답, 곧 판단은 그것이 말하는 바가 존재하는 그대로일 때 참이라는 것은 이에 의해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의 어떤 계기도 아니라 모든 계기가 겨냥하는 것을 이름 붙입니다.

왜 이것이 절충주의가 아닌가

각 이론에서 하나의 조각을 취해 그 조각들을 나란히 놓는 것은 절충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은 같은 질문에 비추어 재어집니다. 진리 탐구의 어느 계기를 그것이 보았고, 그로부터 무엇을 결론지었는가 하는 질문말입니다. 계기는 유지됩니다.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것이 이 실행에서 실패하는 곳에서 무너집니다.

왜 이것이 조화 탐구가 아닌가

긴 논쟁들은 각 입장이 다른 입장들의 실제 어려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대응 이론가들은 옳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정합성이 그저 아름다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압니까?" (DE: „Woher wisst ihr, dass eure Kohärenz nicht nur schöne Fantasie ist?") 정합론자들은 옳게 물었

습니다. “이 비교를 위해 어떻게 당신들의 의식 밖으로 나가려 합니까?” (DE: „Wie wollt ihr aus eurem Bewusstsein heraustreten für diesen Vergleich?“)

두 질문 모두 정당하고, 두 걱정 모두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지워 버리지 않을 때만입니다(제11장). 이것이 도달하는 일치는 협상된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에도 그것을 달래기 위해 양보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은 그것이 어떤 현상을 보았는지 질문받았고, 현상들은 하나의 과정의 계기들이기 때문에 서로 들어맞습니다. 이 이론들 각각이 진리를 탐구하는 한, 그 대표자들은 같은 길을 따름으로써 일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거기에 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태 자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질문이 열린 채로 남습니다.

A16 철학사에 적용된 코끼리 원칙

평행

철학사는 코끼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는 여섯 눈먼 학자들의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여기서 발언한 사상가들은 – 우리 모두처럼 – 제한된 접근만을 갖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발견한 것을 기술하고, 각자는 자기 부분을 전체로 여기기 쉽고, 누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납니다.

해답은 이야기에서와 같은 이중의 것입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각자가 만져 본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술을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배제하는 한에서 말입니다. 둘 다에서 실제 질문은 비로소 제기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 기술들이 서로 들어맞는가? 제5장은 그것이 무엇에서 결정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모두가 관계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8장은 들어맞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관찰들은 구해지고, 해석들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이야기에서처럼 여기에도 코끼리가 있고,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 탐구의 구조이며, 이 이론들 중 하나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행하는 구조 말입니다.

이 구조는 모든 시대에 확인하는 모든 사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그 명시적 수련은 힘들게 얻어지고 상실될 수 있습니다(제5장).

자기 자신의 방법에 대한 시험

이로써 수행적↑ 이론은 자기 방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철학사의 관점들을 통합합니다. 그것이 성공했는지는 이 부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각 입장이 그 대표자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지, 그리고 거부된 것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근거들로 거부되는지에서 말입니다.

A17 실천적 귀결들: 논쟁에서 협력으로

철학사 이해를 위해

이렇게 읽으면 고전들은 공동 과제의 동료 노동자가 되고, 학파들의 논쟁은 분업이 됩니다. 낡은 것으로 통하는 입장들도 그들이 본 것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서 낡은 것이 더 정확히 말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논의를 위하여

"어떤 진리론이 옳은가?" (DE: „Welche Wahrheitstheorie ist richtig?")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진리의 어떤 측면을 정당하게 강조하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가운데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DE: „Welchen Aspekt der Wahrheit betont diese Position zu Recht, und was schließt sie daraus, das nicht trägt?")

그렇게 하면 논의가 더 생산적입니다. 상대방을 반박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묻습니다. – 그런 다음 남는 것이 반박되며, 더 정확하게 반박됩니다.

철학적 진영 전쟁에 대항하여

정치 영역에서처럼 철학에서도 진영 사고가 있습니다. "분석철학" 대 "대륙철학", "실재론자들" 대 "반실재론자들", "자연주의자들" 대 "해석학자들" – 마치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대립들 중 일부는 가까이 보면 같은 사태의 서로 다른 면임이 드러납니다. 다른 것들은 사태 자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진짜 논쟁 질문들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딱지가 아니라 오직 확인만이 보여 줍니다.

A18 전통을 살아 있는 자원으로

이 개관이 해내는 것

수행적↑ 진리 이론은 여기서 논쟁 위의 중재자로 나서는 대신, 다른 어떤 입장처럼 스스로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론들이 서로를 반박할 때 주장하는 바로 그 실행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이론을 그것이 본 것에 비추어, 그리고 그것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잴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질문이 열린 채로 남습니다. 몇 가지는 위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살아 있는 전통

전통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각 세대는 낡은 질문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하지만, 0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은 검증된 부분 답들을 제공합니다. 그 답들이 스스로 증명한 근거들과, 그 답들이 실패한 지점들과 함께 말입니다. 전통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그것을 권위로도, 오류들의 목록으로도 취하지 않고, 동료 확인자들로 취합니다.

과제

진리에 대한 2천 5백 년의 논쟁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 같은 사태의 서로 다른 계기들에 대한 탐구였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진영으로 쪼개지는 대화 문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것은 호소 없이, 상대에게서 그가 본 것을 먼저 찾고, 그다음 더 정확하게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반론들은 특정한 진리 이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체계적 질서 짓기 자체에 대항합니다. 아도르노의 비동일자의 반론, 들뢰즈, 데리다, 푸코의 반론들, 그리고 인식을 자연의 거울로 보는 것에 대한 로티의 작별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여기에 서지 않습니다.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은 부록에서 그것들을 그 자체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더 읽어보기: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부록 A2

부록 B: 진리 탐구와 헤겔의 논리학 — 상호 조명

B1 왜 이 부록인가?

본문은 철학자들에 호소하지 않고 자기 사고들을 수행합니다. 철학자가 이름 붙여진 곳에서 그 이름은 나중에, 같은 생각을 이미 파악한 사람에 대한 암시로 서 있고, 논증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법상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할 때 이미 행하는 것을 보여 주려는 책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어떤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고해 보면 본문과 헤겔의 《논리학》은 서로를 조명합니다. 여기서 헤겔은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두 개의 아주 다른 길 — 하나는 체계적-사변적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적↑-실천적인 길 — 이 어떤 지점들에서 비슷한 구조로 들어가는지, 이 텍스트가 헤겔에게서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B2 세 단계: 존재 — 본질 — 개념

헤겔의 논리학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의 세 부분을 갖습니다. 본문의 과정은 대략 이 순서를 따라 읽힐 수 있습니다. 장별 대응은 생기지 않는데, 이 책은 자기 고유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성에서 매개를 거쳐 자기 규정으로 나아가는 운동은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존재론: 직접적 경험

존재는 헤겔에게 직접적인 것, 단순히 있고 우리에게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질, 양, 척도가 그것입니다. 속성들을 가진 사물은 본질론에만 속합니다. 본문도 직접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읽는 동안 이미 작동하고 있는 확인에서(제1장), 그리고 그 뒤로 갈 수 없는 전제들에서(제2장) 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명해 보이는 것은 보였던 것보다 더 얽혀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논리학 시작의 오래된 난점을 조명합니다. 순수한 존재로 시작하는 헤겔의 시작은 마치 그가 사고와 존재의 통일을 전제하고, 그것에는 특별한 접근 – "지적 직관" – 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읽히곤 합니다. 헤겔 자신은 이 독법을 물리쳤습니다. 처음 것으로 취해진 지적 직관은 그 순수한 직접성에서 존재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엔치클로페디》 § 86, 주석). 논리학이 시작하는 관점을 그는 《정신현상학》에서 먼저 정교화했고, 《엔치클로페디》에서는 예비 개념이 그곳으로 이끕니다. 시작 자체는 그에 따르면 "순수하게 사고하려는 결단" (DE: „Entschluß, rein denken zu wollen")(§ 78, 주석)이 행하며, 이는 § 17에 따르면 학문이 아니라 시작하는 자에게만 관계합니다(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2026), 장 14). 이 책 쪽에서는 담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서는 것은 직관된 최초의 것이 아니라 확인의 실행이며, 그것은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미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일에 관여해 있습니다. "사고와 존재의 동일성" (DE: „Identität von Denken und Sein")은 그렇다면 전제된 통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과 밖의 분리가 그 자체 경험 안의 구별이며(제11장), 저항에서만 객관성을 향해 분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시작은 절대자에 대한 직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투명해지는 실행만을 필요로 합니다.

본질론: 반성의 구조들

본질은 헤겔에게 매개된 것, "자기 안에서 비추는" 것입니다. 동일성과 차이, 근거와 귀결, 안과 밖, 가능성과 현실성이 그것입니다. 이 규정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은 오직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가 무엇인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장들의 더 큰 부분이, 자기 고유의 순서로, 이것에 대응합니다. 제3장은 지각의 겉보기 직접성에서 그 매개로 이끌고, 제5장은 같은 것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펼치며, 제7장은 인식의 추동으로서의 모순을, 제8장은 모든 것이 함께 들어맞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11장에서는 정합성과 대응이 함께 만납니다. 두 텍스트에 공통적인 것은 어떤 규정도 그 자체로 혼자 서 있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그 가까움은 대응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안"과 "밖", "사고"와 "존재"는 제11장에서 먼저 다리가 놓여야 할 완성된 대립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고에서 현실로 나아가는가?" (DE: „Wie kommen wir aus dem Denken zur Wirklichkeit?")라는 질문은 오직 둘을 분리된 것으로 전제할 때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경험 안에서, 바람에 양보하지 않는 것에서 획득됩니다. 그로써 산출되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속하고 무엇이 자기 고유의 법칙들을 따르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헤겔은 안과 밖의 통일을 "안에 있는 것은 또한 밖에 존재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DE: „Was innerlich ist, ist auch äußerlich vorhanden und umgekehrt")(《엔치클로페디》 §139)라는 문장으로 포착합니다. 본문에서 이것에 대응하는 것은 사태가 관점들 뒤에 있지 않고 그 관점들 안에서 스스로를 보여 준다는 사실, 그리고 진리가 그 통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제5장, 제11장).

개념론: 자기 규정

개념은 헤겔에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개념론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거쳐 이념으로 이끕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은 확인이 자기 자신을 손에 쥐는 장들입니다. 방법이 된 확인으로서의 과학(제19장), 자기 자신의 판단력으로서의 교정(제10장), 텍스트 자신의 자기에 대한 원칙들의 적용(제24장)이 그것입니다. 두 텍스트 모두 길은 단순한 반응에서 매개된 관계를 거쳐 자기 규정으로 이끕니다.

개념론은 이념으로 끝나고, 이념은 헤겔에게 "진리"입니다. 개념과 그 객관성의 통일이 그것입니다(《엔치클로페디》 §213). 진리는 거기서 더 깊은 의미로, 사물이 자기 개념에 상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행동이 우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참된 친구에 대해 말하듯이 말입니다(§ 24, 보충 2). 본문은 같은 그림을 사용하고(제13.3장, 제23.5a장), 이 의미를 확인에서의 하나의 전환을 통해 얻습니다. 어떤 질서가 발견되면, 사태 자체도 그 개념에 비추어 재어집니다. 헤겔은 사태에서 출발해 그것을 더 깊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보통 판단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 곧 사물과의 일치를 그는 정확성, "우리 표상과 그 내용의 형식적 일치" (DE: „formelle Übereinstimmung unserer Vorstellung mit ihrem Inhalt")라고 부릅니다(§ 172, 보충).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두 의미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위대한 드라마이다" (DE: „Hamlet ist ein großes Drama")라는 판단은 그 작품이 드라마가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일 때 참입니다. 이 더 깊은 의미가 진리는 전체라는 문장 뒤에 서 있습니다(C.4). 그런데 헤겔의 객관성은 경험의 재료가 아니라 대상들의 모습을 한 개념입니다. 기계론, 화학론, 목적 관계에서 말입니다. 상대항으로서의 객체는 목적에서만 그것과 대면합니다. 어떤 질서가 자기가 질서 짓는 것에 맞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여기 제자리를 갖습니다.

B3 핵심 주제들 자세히

비춤과 반성

존재론에서 규정들은 헤겔에 따르면 서로 "이행합니다".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는 사라집니다. 본질론에서 그것들은 서로 "비춥니다". 각각은 남아 있고 자기 타자 속에서 스스로를 보여 줍니다. 이에 대한 한 예를 제11장이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정합성과 대응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여 주는 것은 그것이 속하는 연관 속에서만 타당하고, 그 연관은 직접 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비추어 확인됩니다. 둘 각각은 다른 것 속에서 스스로를 보여 주고, 그 어느 것도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상과 현실성

헤겔은 그 관계를 세 단계로 발전시킵니다. 처음에 본질은 현상들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드러납니다. "본질은 나타나야 한다" (DE: „Das Wesen muß erscheinen")(《엔치클로페디》 §131). 나타나지 않는 본질은 본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현상보다 더 높은 것" (DE: „das Höhere als die bloße Erscheinung")이 현실성입니다(§ 131, 보충). 본질과 실존의, 안과 밖의 통일입니다(§ 142).

본문도 비슷한 길을 갑니다. 처음에 사람은 관점적 현상들 뒤에서 "실제 진리"를 찾습니다. 그다음 드러납니다. 원칙적으로 스스로 보여 줄 수 없는 진리는 탐구될 수 없을 것입니다. 탐구가 찾으려는 것은 스스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의 열림 속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원자, 유전자, 장은 현상들 뒤의 배후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상들 속에서 –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측정들, 개입들, 예측들 속에서 – 스스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현상의 장의 질서 이상인지는 조사가 결정하지, 사전 결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제11.3c장, 제18.1장).

정당화의 세 형식

본질론에서, 근거에 관한 절에서 헤겔은 세 단계를 구별합니다. 형식적 근거는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합니다. 근거와 근거지어진 것은 같은 내용을 갖습니다. 실재적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을 이름 붙이지만, 왜 바로 이것인지 말하지 않은 채 많은 규정들 중 하나를 집어냅니다. 완전한 근거는 둘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름 붙이고, 추가로 바

로 이것이 근거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계들은 빈 정당화에서 불완전한 정당화를 거쳐 충족된 정당화로 성장합니다. 사태 자체는 그 후에야 조건론에서 등장합니다. “한 사태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실존으로 들어선다.” (DE: „Wenn alle Bedingungen einer Sache vorhanden sind, so tritt sie in die Existenz.“)

본문의 예들로 말하면, “그 약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용한다” (DE: „Das Mittel wirkt, weil es wirksam ist“)는 형식적입니다. “이 증거가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다” (DE: „Das ist wahr, weil dieser Beleg dafür spricht“)는 실재적이지만 불완전합니다. “독립적인 길들로 얻어진 이 관찰 결과들은 서로 들어맞고, 어느 것도 남지 않는다” (DE: „Diese Befunde, auf unabhängigen Wegen gewonnen, fügen sich, und keiner ist übrig“)는 완전합니다. 권위로부터의 논증 —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DE: „weil Experten es sagen“) — 는 이 사다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믿을 근거, 자주 좋은 근거이지만, 사태의 근거가 아닙니다(제10a.3장). 한 연구 분야 전체의 상태를 종합하는 보고는 완전한 정당화의 시도이며, 그 자체 확인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채로 남습니다.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해소도 이 층위 구분에 닿습니다. 연쇄 — 문장 이 문장을 지지합니다 — 는 실재적 근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각 고리는 다른 것을 이름 붙이지만, 왜 바로 이 고리가 지탱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제1장이 그 자리에 놓는 것은 문장들의 연쇄도 원도 아니라, 실행되지 않고는 논박될 수 없고, 거기서 생겨나는 구조에 맞서 스스로 증명하는 실행입니다. 그것을 위한 그림은 아치형 문이며, 오직 조건들의 함께 있음만이 지탱한다는 헤겔의 조건론과 그 그림은 공유합니다.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2026)의 시작에서의 사고 운동은 헤겔의 말들을 쓰지 않고 같은 층위 구분을 수행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조건들에 대해 같은 그림을 사용합니다(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7). 거기서도 그 그림의 한계, 곧 아치가 자기 자신이 떠받치지 않는 교각들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지양

그 낱말에는 세 의미가 있습니다. 헤겔 자신이 “이중 의미”, 곧 보존함과 그치게 함을 강조합니다(《논리학》, 지양에 대한 주석). 고양은 둘 다에서 함께 사고됩니다. 더 이른 단계에서 참인 것은 보존되고, 일면적이고 제한된 것은 극복됩니다. 남는 것은 더 발전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제7장에서 이를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제14장에서 느낌과 오성의 갈등에 적용하며, 제11.7장과 제19장에서 과학 혁명들에서 보여 줍니다. “거짓 이론들”도 이렇게 지양됩니다. 플로지스톤에서는 연소의 관

찰이 보존되고, 설명의 거짓된 방향이 극복되며, 둘 다 산화 이론에서 더 높이 고양됩니다. 주전원들에서는 관측된 궤도들에 대한 좋은 근사가 보존되고, 궤도들을 원들로 조합하는 것이 극복되며, 둘 다 케플러의 타원 궤도들에서 더 높이 고양됩니다.

B4 방법론적 수렴들

수행적 자기 적용

헤겔의 논리학은 자기 원칙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것은 사고에 관한 이론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바를 실천합니다. 본문은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진리 탐구는 그것에 대해 사고하는 동안 실행되고, 제24장에서 텍스트는 자기 자신의 기준들에 비추어 스스로를 확인합니다. 본문의 수행적↑ 시작(제1장)은 피히테에게도 선조가 있습니다. 《학문론 입문》(1797)에서 그는 문장이 아니라 독자에 대한 요구로 시작합니다. “너 자신에게 주목하라.” (DE: „Merke auf dich selbst“) 이 시작에 더 가까운 것은 아펠이 정교화한 수행적 자기 모순의 생각입니다(부록 A, 합의 이론).

정의 대신 발전

헤겔은 자기 개념들을 미리 정의하지 않고, 발전시킵니다. 개념이 무엇인지는 그 전개 속에서 스스로 보여 줍니다. 본문도 “진리는 …이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찾을 때 이미 행하는 것에서, 그렇게 실천에서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체계적 완전성

헤겔에게서는 모든 범주가 이전 범주에서 필연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리하여 아무것도 제멋대로 정립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요구를 같은 엄격함으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단계를 이전 단계에서 근거지으려 시도하고(제17.2장), 이것이 성공하지 않는 지점들을 열린 것으로 남겨 둡니다(제11.6장).

“진리는 전체다”

제8.7장, 제15.10장, 제16.4장이 출처 없이 사용하는 문장은 《정신현상학》(1807) 머리말에 서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Das Wahre ist das Ganze. Das Ganze aber ist nur das durch seine Entwicklung sich vollendende Wesen. Es ist von dem Absoluten zu sagen, daß es wesentlich Resultat, daß es erst am Ende das ist, was es in Wahrheit ist; und hierin eben besteht seine Natur, Wirkliches, Subjekt oder Sichselbstwerden zu sein.”* (“진리는 전체다. 그러나 전체는 오직 그 발전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는 본질일 뿐이다. 절대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결과이고, 오직 끝에서야 진리로 있는 바 그것임이 말해져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실제자, 주체, 자기 자신이 됨이라는 그것의 본성이 있다.”) 따라서 헤겔 자신은 전체를 합이 아니라 발전으로 읽고, 이 점에서 제16.4장과 만납니다. 그의 논리학에서는 모든 후행 규정이 선행 규정의 진리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선행 규정에서 뜻해진 것을 더 적합하게 표현합니다. 선행 규정들은 오직 “고립된 채 그 자체로 붙들려 있는 한” (DE: „in ihrer Isolierung für sich festgehalten“)(《엔치클로페디》 §83, 보충)에서만 비진리입니다. 후행 규정의 계기들로서 그들은 남습니다. 제16.4장이 이를 포착하는 정식 – 진리는 살아 있고, 논리적으로 질서 지어진, 발전하는 전체라는 것 – 은 헤겔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버전입니다. 본문도 전체를, 인식과 종종 인식된 것도 발전하는 운동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각 시점에 도달한 것을 인식된 진리라고 부릅니다(제23.5a장). 헤겔에게서 전체는 오직 결과로서 비로소 진리로 있는 바 그것인 사태입니다. 이 점에서 둘은 일치합니다. 진리는 완성된 재고로 파악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있는 바가 되는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무한성과 참된 무한성

제23.5장이 디딜방아라는 반론에 답하는 두 그림은 헤겔 존재론에서 이름을 얻습니다. 나쁜 무한성은 항상 하나 더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 넘어서지고, 넘어섬이 반복되며, 무한한 것은 결코 도달되지 않는 저편으로 남습니다. 참된 또는 진정한 무한성은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이행하면서, 끝없이 달려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함께 가는 운동입니다(《엔치클로페디》 §95). 헤겔의 그림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직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안으로 되접힌 원입니다. 제23.5장은 진리 탐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여기서 취합니다. 도달한 모든 통찰은 절반이 아니라 전체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겔에게서 그 개념은 범주들의 발전 속에 서 있고, 여기서는 그림과 구별만 취해집니다. 거기서 참된 무한성은 자기 밖에, 자기가 한계를 발견할 어떤 것도 갖지 않습니

다(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2026), 장 2). 제23.5장이 부르는 진리 과정은 반대로 밖에서 자기에게 저항하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모든 단계가 전체라는 것은 헤겔의 개념과 공유하지만, 아무것도 미결로 남지 않는다는 것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B5 텍스트들이 다르게 나아가는 곳

헤겔: 체계적-사변적

헤겔은 가장 추상적인 사고, 순수한 존재에서 시작해 내재적 비판을 통해 발전하고, 완전성에 대한 백과전서적 요구를 제기합니다. 그의 언어는 기술적이고, 요구적이며,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수행적-실천적

이 텍스트는 직접적 경험("여러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에서 시작해, 실행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발전하고, 실천적 적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언어는 일상 언어에의 가까움을 추구합니다.

헤겔은 구조들의 체계적 필연성을 보여 주려 하고, 이 텍스트는 그 실천을 보여 주려 합니다.

B6 헤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헤겔주의자가 되지 않고)

헤겔주의자가 되지 않고 헤겔에게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방법입니다. 모순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오류로 거부하지 말고, 발전을 추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모순이 되는 곳이 자주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통찰은 빠른 정의들이 아니라, 각 단계가 자기 권리를 갖는 발전을 통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특별한 지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입장들에서 정당한 계기가 지양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무것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통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사물들에 대한 관계들로 규정되고, 이 매개들을 명료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B7 헤겔이 이 텍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헤겔이 이 텍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형식에 관계합니다.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생각은 사고하는 모든 사람이 저자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진리는 입문자들의 사안이기를 그칩니다. 체계적 완전성과 나란히 고유한 권리를 갖는, 이해가 삶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겔은 전체를 발전으로 사고했습니다. 이념은 "본질적으로 과정" (DE: „wesentlich Prozeß")(《엔치클로페디》§ 215)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동시에 그의 체계는 이 발전을 완전하게 제시한다는 요구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닫힘의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그의 독자들 사이에서 논쟁됩니다. 본문은 도달한 모든 질서가 저항을 통해 수정 가능한 채로 남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제23.5a장), 그것이 나온 확인들을 보여 줍니다.

B8 결론: 상호 조명

두 길이 비슷한 구조들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 비슷함이 어디서 오는지 분리해 두지 않는 한,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부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전체로서의 문장, 나쁜 무한성과 참된 무한성의 구별, 지양이라는 낱말, 정당화의 단계들이 그것입니다. 이 일치들은 아무것도 확증하지 않습니다. 제10a.3장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목소리를 베끼는 목소리는 두 번째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확인 자체에서 얻는 것은 다릅니다. 안과 밖의 분리가 경험 안에서 그어진다는 것, 원칙적으로 스스로 보여 줄 수 없는 진리는 탐구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시작에 서는 것은 직관된 최초의 것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고들이 헤겔의 구조들과 만나는 곳에서, 그것은 둘 다 같은 사태 자체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것은 증명이 아닙니다. 헤겔에 의해 형성된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그 없이 시작한다고 믿는 사고 속으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들은 확인 가능한 지점들에서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문은 도달한 모든 질서가 수정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반면, 헤겔의 체계는 발전을 완전하게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C.7). 그것은 한 길이 다른 길을 단지 되밟을 뿐이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논리학》과 진리 탐구의 실천은 같은 사태 자체에 대한 두 접근이며, 개별 지점들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수정합니다. 헤겔을 읽은 사람은 여기서 거기에서 추상적으로 발전된 구조들의 실천적 적용을 발견합니다. 이 텍스트만 아는 사람은 헤겔에게서 여기 수행적으로 실행된 것

의 체계적 수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호 조명이지, 원 안에서의 증명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기: 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2026), 특히 그 시작에서의 사고 운동(헤겔의 논리학 – 사유의 논리, 장 1)

부록 **c:** 증거

제19장에서 제22장까지 그리고 제10장은 사고들이 실제하는 어떤 것에서 가시화되도록 사례들을 인용합니다. 사례들이 사고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들은 정확해야 합니다. 출처들이 여기에 제시됩니다. 끝에는 부록 B의 피론주의 회의주의, 칸트, 하인리히스에 관한 절들을 위한 증거가 이어집니다.

제19장에 관하여

원자.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 같은 수의 입자들이 나온 측정들은 장 페랭이 편집하고 부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Les Atomes*, Paris: Alcan 1913. 회의했던 사람들 중에는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와 화학자 빌헬름 오스트발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에 관한 인용: 막스 플랑크, *Wissenschaftliche Selbstbiographie*, Leipzig 1948, p. 22.

대륙 이동. 알프레트 베게너가 1912년에 그 테제를 제시했고, 1960년대에 추동력을 설명한 판구조론과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제21장에 대하여

아메리카 정주. 남부 칠레의 몬테 베르데 유적: Tom D. Dillehay, *Monte Verde. A Late Pleistocene Settlement in Chile*, 2 Bde., Washington 1989 und 1997. 1997년의 공동 답사와 그 결과: David J. Meltzer u. a., “On the Pleistocene Antiquity of Monte Verde, Southern Chile”, *American Antiquity* 62 (1997), S. 659–663.

공룡 멸종. 논쟁의 어조에 대하여: Malcolm W. Browne, “The Debate Over Dinosaur Extinctions Takes an Unusually Rancorous Turn”, *The New York Times*, 19. Januar 1988; Bianca Bosker, “The Nastiest Feud in Science”, *The Atlantic*, September 2018. 오늘날의 상태에 대하여: Peter Schulte u. a., “The Chicxulub Asteroid Impact and Mass Extinction at the Cretaceous-Paleogene Boundary”, *Science* 327 (2010), S. 1214–1218; Pincelli M. Hull u. a., “On Impact and Volcanism

across the Cretaceous-Paleogene Boundary", *Science* 367 (2020), S. 266–272. 충돌과 멸종의 동시성에 대하여(32,000년 이내): Paul R. Renne u. a., "Time Scales of Critical Events Around the Cretaceous-Paleogene Boundary", *Science* 339 (2013), S. 684–687, doi:10.1126/science.1230492; 저자들은 충돌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던 생태계들을 강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모델 계산: Alexander A. Cox, C. Brenhin Keller, "A Bayesian Inversion for Emissions and Export Productivity across the End-Cretaceous Boundary", *Science* 381 (2023), Nr. 6665, S. 1446–1451, doi:10.1126/science.adh3875.

Bosker(2018) 이후의 직업적 결과들에 대하여: 지질학자 Dewey McLean은 충돌설의 주창자가 자신의 대학 행정부에서의 승진을 방해했다고 비난했고,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구물리학자 Charles Officer는 *Science*가 12년 동안 충돌설에 대해 45편의 기고를 싣고 다른 가설들에 대해서는 네 편만 실었다고 불평했으며, 편집부는 이를 편애로 반박했습니다. McLean은 후에 승진했습니다; Officer는 1994년에 멸종 연구에서 물러났습니다. 양측은 이때 플랑크의 명제 – 새로운 이념들은 그 반대자들이 멸종할 때 관철된다 – 를 원용했습니다(화산설에 대해서는 Courtillot, 충돌설에 대해서는 Smit; 제19.2장 참조). 41명의 저자가 서명한 Schulte u. a.(2010)의 기고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Science*에 보낸 편지들에서 반박했습니다; Bosker: "Science is not done by vote." 이 글은 아카이브 판본의 문구와 대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주문 제작된 반박. 2020년 10월 4일의 공개 성명은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의 2020년 10월 8일자 내부 메시지("three fringe epidemiologists", "a quick and devastating published take down of its premises")는 2021년 12월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되었습니다.

주문 제작된 의심. 담배 산업에 대해서는 제22장의 증거들을 보십시오. 기후에 대하여: Naomi Oreskes, Erik M. Conway, *Merchants of Doubt*, New York 2010. 기후가 추가 온실가스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러한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각 평가 보고서에서 범위로 제시합니다.

이라크. *The Report of the Iraq Inquiry*, London 2016, Executive Summary (John Chilcot이 위원장을 맡은 조사 보고서).

동독의 언론 조종. 지시들은 SED 중앙위원회의 선동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책들은 문화부의 출판 및 서적 판매 총국으로부터 인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지전. 중국의 교리에 대하여: 2003년 개정된 인민해방군 정치 작업 규정의 "3종 전쟁"(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에 대한 서술은 Stefan Halper (Hg.), *China: The Three Warfares*, 미국 국방부 Net Assessment 사무국

을 위한 연구, 2013 참조. 러시아의 교리에 대하여: 2016년 12월 5일자 러시아 연방 정보 안보 독트린.

서구의 개념에 대하여: François du Cluzel, *Cognitive Warfare*, NATO Innovation Hub, Norfolk, Januar 2021 (2020년 6월–11월 연구, 연합 변혁 사령부의 지원을 받음; 자체 설명에 따르면 ACT나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음); "The Human Domain of Operations refers to the whole human environment, whether friend of foe" (S. 29; "of" so im Original); "Any user of modern information technologies is a potential target" (S. 6); Bernard Claverie u. a. (Hg.),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인지전에 관한 첫 NATO 학술 회의(Bordeaux, Juni 2021)의 회의록, NATO Collaboration Support Office 2022, 그 안에서 Eric Autellet, "Cognitive Warfare - Contribution of the French Armed Forces Deputy Chief of Defence", Kap. 1, S. 1–1 f., 적의 두뇌들에 대한 침투와 자신의 두뇌들 보호에 대하여 S. 1–2 (프랑스어 초판: *Cognitive Warfare: La guerre cognitique*, NATO-CSO, Oktober 2021, Kap. 3). 팬데믹에 대한 기고: Dale F. Reding, Bryan Wells, "Cognitive Warfare: NATO, COVID-19 and the Impact of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in: Ritu Gill, Rebecca Goolsby (Hg.), *COVID-19 Disinformation: A Multi-National, Whole of Society Perspective*, Cham: Springer 2022, S. 25–46, bes. S. 26 und 43 (Seiten nach Tögel, *Kognitive Kriegsführung*, Kap. I).

이 텍스트들에 대한 수집과 비판적 해석: Jonas Tögel, *Kognitive Kriegsführung. Neueste Manipulationstechniken als Waffengattung der NATO*, Berlin: Westend 2023, ISBN 978-3-86489-422-0, Kap. I (Abschnitt "Eine Veröffentlichung zu COVID-19 und dem Cognitive Warfare aus dem Jahr 2022") und Kap. VI (Abschnitt "Wer steht im Visier des Cognitive Warfare?"). 개념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인구에 대해서도 향한다는 해석은 Tögel의 해석입니다.

회복탄력성. 동맹국들의 의무: *Strengthened Resilience Commitment*, 브뤼셀 NATO 정상회의, 14. Juni 2021, Ziffern 4–7 ("Resilience is a national responsibility and a collective commitment", Ziff. 4; "The COVID-19 pandemic has severely tested our nations and our resilience", Ziff. 6; "hostile information activities, including disinformation", Ziff. 7).

네덜란드. 육군의 Land Information Manoeuvre Centre에 대한 *NRC Handelsblad*의 보도, 2020년 11월 15일; 국방장관이 하원에 보낸 2020년 11월 29일자 서한(잠정 중단, 부처 데이터 보호 담당관에 의한 검토).

독일.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연방 정부의 위기 대책반은 2021년 12월부터 연방총리실에서 소장 Carsten Breuer가 이끌었습니다.

플랫폼들. 팬데믹에서 외국 국가들의 허위 보도들에 대하여: Europäischer Auswärtiger Dienst, *EEAS Special Report: Short Assessment of Narratives and Disinformation around the COVID-19 Pandemic*, April 2020, 및 이후의 보고서들. 바이러스가 "man-made or manufactured"라는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규칙은 페이스북이 2021년 2월 8일 도입했고 2021년 5월 26일 “in light of ongoing investigations into the origin of COVID-19”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기록: *Missouri v. Biden*,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 2023년 7월 4일자 명령; 연방대법원은 2024년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Murthy v. Missouri*). 트위터의 내부 문서들은 2022년 12월부터 “Twitter Files”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메타 CEO의 서한은 2024년 8월 26일자입니다.

내무부의 문서. “Wie wir COVID-19 unter Kontrolle bekomme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ärz 2020, 등급 “VS - Nur für den Dienstgebrauch”, Abschnitt 4a “Worst case verdeutlichen!” (S. 13); 2020년 4월 8일 연방 하원 내무위원회에 송부되었고, 후에 정보 자유법에 따른 청구들로 공개되었습니다(FragDenStaat). 연방 정부의 답변(Bundestag, hib 441/2021)에 따르면 여러 분과의 학자들이 부처의 제안으로 무보수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했습니다. 그 모임과 문서의 성립 과정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기술합니다: Heinz Bude, “Aus dem Maschinenraum der Beratung in Zeiten der Pandemie”, *Soziologie* 51 (2022), Heft 3, S. 245–255: 사무차관 Markus Kerber와 “Politische Ordnungen und hybride Bedrohungen” 담당 과장 Hanna Katharina Müller에 의한 모임의 설립(S. 246 f.); “Prägung rhetorischer Formeln” (S. 247); 알았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S. 247 f.); 베르가모, “starker Rechtfertigungen”, 그람시, “Flatten the Curve” 및 “Hammer and Dance” (S. 249); 전화회의들, 참가자들, 회의록 없음, RKI에 의한 문서들과 메일 교환의 공개(Anm. 3), 예측 대신 시나리오들(S. 250); 무대응 최악의 경우 백만 명 사망, 열흘간의 자문, 2020년 3월 말 코로나 내각에 전달(S. 251). “추종 준비성”에 대한 후일의 발언: 패널 토론 “Gesellschaft im Ausnahmezustand - Was lernen wir aus der Coronakrise?” with Heinz Bude, Alexander Bogner und Klaus Kraemer, 그라츠 대학교, 2024년 1월 24일, YouTube 녹화(2024년 2월 27일 업로드, https://www.youtube.com/watch?v=5j5WHi67-go); 특히 *Apollo News*의 2024년 3월 21일자 보도 등에서 전해졌습니다.

영국 자문 기구. SPI-B, *Options for increasing adherence to social distancing measures*, 22. März 2020 (“The perceived level of personal threat needs to be increased among those who are complacent, using hard-hitting emotional messaging”).

유럽 연합. 디지털 서비스법(Verordnung (EU) 2022/2065), Art. 22(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22장에 관하여

담배 산업의 문서: Brown & Williamson, “Smoking and Health Proposal”, 1969(“Doubt is our product since it is the best means of competing with the ‘body of fact’ that exists in the mind of the general public”).

10장에 관하여

미국의 지역 문화들. Colin Woodard, *American Nations. A History of the Eleven Rival Regional Cultures of North America*, 뉴욕 2011; 더 오래된 구분들도 비슷한 수(Zahl)에 이릅니다.

인큐베이터 증언. 미국 의회 인권 코커스(Congressional Human Rights Caucus) 앞 청문회는 1990년 10월 10일에 열렸습니다. 증인이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고, Hill & Knowlton 홍보대행사가 Citizens for a Free Kuwait 조직의 의뢰로 그 출연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John R. MacArthur가 알렸습니다: “Remember Nayirah, Witness for Kuwait?”, *The New York Times*, 1992년 1월 6일; 자세하게는 같은 저자, *Second Front. Censorship and Propaganda in the Gulf War*, 뉴욕 1992.

세계기후위원회. 증거들과 일치에 관한 등급화된 제시: Michael D. Mastrandrea 외, *Guidance Note for Lead Authors of the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on Consistent Treatment of Uncertainties*, IPCC 2010.

부록 B에 대하여: 피론주의 회의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피론주의 회의 개요(그리스어 *Pyrrhoneioi hypotyposeis*)에 따라 권과 절로 인용됩니다; 독일어 번역은 Malte Hossenfelder, Frankfurt am Main 1968.

회의, 동등한 힘, 판단 중지, 평정. 계속 탐구하는 탐구자로서의 회의론자: I 3 및 7. 나타나는 것과 사유된 것을 서로 대립시키는 능력으로서의 회의의 규정: I 8; 동등한 힘: I 10; 모든 논변에 동등한 힘의 논변이 맞선다는 원칙: I 12; 회의적 표현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 I 14 이하. 화가 아펠레스와 판단 중지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평정: I 28 이하.

나타나는 것에 따라 살기. 척도로서의 나타나는 것과 네 가지 삶의 방식(자연의 인도, 감각들의 강제, 법과 관습의 전승, 기술들의 가르침): I 21–24.

다섯 트로포스. I 164–169, 그 적용 I 170–177. Agrippa를 창시자로 지목한 것은 Diogenes Laertius, *Leben und Meinungen berühmter Philosophen* IX 88; 피론의 알렉산더와의 여행: ebd. IX 61.

헤겔. "Verhältnis des Skeptizismus zur Philosophie" (1802), Gesammelte Werke Bd. 4, S. 218 f.; Theorie-Werkausgabe Bd. 2, S. 245: 다섯 트로포스는 "gegen den Dogmatismus der Endlichkeiten, aber […] völlig unbrauchbar gegen die Philosophie"에 가장 적합한 무기라고 합니다; 독단주의의 본질은 "daß er ein Endliches […] als das Absolute setzt"에 있다고 합니다.

부록 B에 관하여: 칸트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초판과 재판을 각각 A와 B로, 1781년과 1787년) 및 『장차 학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프로레고메나』(1783)에 따라 인용됩니다.

진리와 기준. 이름 설명은 "선물로 주어지고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며, 모든 내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은 없고, 오직 "conditio sine qua non"으로서 단지 부정적으로만 타당하는 형식적 기준만 있습니다: A 58–60/B 82–84.

현상과 한계. 꿈과 진리는 표상들이 규칙들에 따라 연결되는 방식에서 구별됩니다: *Prolegomena* § 13, Anmerkung III. 누메논은 한계 개념으로서, 그리고 단지 사유될 수만 있을 뿐인 비감성적 직관으로서 등장합니다: B 307–311. 한계와 제한: *Prolegomena* §§ 57 및 59.

주어진 것. 헤겔은 칸트가 개념을 직관에 결부시키는 것을 『논리학』, 개념론, "개념 일반에 관하여" (DE: „Vom Begriff im allgemeinen")(Theorie-Werkausgabe 6권, 260쪽 이하)에서 거부합니다. 철학이 "그 전개를 경험적 학문들에 빚지고 있다" (DE: „ihre Entwicklung den empirischen Wissenschaften verdankt")는 것은: 『엔치클로페디』 § 12, Anmerkung.

이율배반과 막대기 사례. 첫 번째 이율배반(시간에서 세계의 시원): A 426 이하/B 454 이하; 그 해소: A 497–507/B 525–535, 그 안에 "좋은 냄새가 난다" 또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신체의 예가 있습니다, A 503/B 531. 칸트의 해소가 모순을 전제된 대상의 규정성에서 확정하고, 헤겔이 이 발견을 판단들에서 규정들로 옮긴다는 점에 관해서는: Michael Wolff, *Der Begriff des Widerspruchs. Eine Studie zur Dialektik Kants und Hegels*, Königstein 1981; 3판, 수정판 베를린 2017, 59–62쪽 및 226쪽 이하. "모든 대상들에서" 이율배반들이 있다: Hegel, 『엔치클로페디』 § 48, Anmerkung.

필연성.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은 선험적 인식(Erkenntnis)의 표지입니다: B 3 이하; 그에 대한 논거, 곧 범주들의 선험적 연역: B 116–169.

부록 B에 관하여: 하인리히스

Heinrichs는 *Sprache*, 3권: *Die Handlungsdimension. Psychologik der Sprechakte und Dialoganalyse (Pragmatik)*, Varna/München: Steno 2008에 따라 인용된다. 이 책은 그의 *Sprachtheorie*의 화용론적 부분(*Reflexionstheoretische Semiotik*, 2부, Bonn: Bouvier 1981; 그 안에 진리에 관한 부록, 262–275쪽)을 완전히 개정한 판본이다. 마지막 부분의 축약본은 *Dialogik. Kann denn Liebe logisch sein?*, Baden-Baden: Academia 2020, 제9장, 169–193쪽에 실려 있다. 세 책 모두 2025년부터 Reflexivity Press, 리스본에서 "Gesammelte Werke" 시리즈로 이용할 수 있다. *Sprache* 3권과 *Dialogik*은 동일 페이지 PDF 재판(27권과 45권)으로, *Sprachtheorie*는 원본의 쪽수를 본문에 담은 새 조판(6권)으로 나왔다.

진리의 위치와 규정. 진리는 비로소 화용론적 정립에서 성립한다. 진리는 언어적 행위의 암묵적 규범들의 총괄로서: 299쪽.

네 측면. 사안: 304–308쪽; 성실성: 308–310쪽; 책임: 311–314쪽, 이 안에 죽을병에 걸린 사람 311쪽 이하와 파괴적 전달 313쪽; 응집성: 314–319쪽, 이 안에 전체에 관한 헤겔의 명제 317쪽.

어떤 측면도 다른 측면들의 척도가 아님. 320쪽 이하, 이 안에 순수 사실들(facta bruta) 321쪽; 진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합의: 317쪽; 실천적 비진리로서의 이데올로기: 322쪽; 조건적으로 실현된 무조건성: 322–324쪽.

이전 판본들. Heinrichs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Theorie welcher Praxis?"에서 삼중 구조로 제시되었다(1973/74년 집필, 1975년 출판, Ludwig Bertsch (편), *Theologie zwischen Theorie und Praxis*, Frankfurt am Main 1975, 62쪽 이하). 그리고 1975년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행한 사회철학 강의에서 네 겹으로 제시되었다(299쪽, 주; *Dialogik*, 172쪽, 주 5). Lorenz B. Puntel은 자신의 논문 "Wahrheit"(*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München 1974)에서 "통합적 진리 개념"을 주장했는데, Heinrichs의 진술에 따르면 "Theorie welcher Praxis?"의 원고를 사용했다(같은 곳).

동시대인들과 선구자들. Jürgen Habermas, "Wahrheitstheorien", in: *Wirklichkeit und Reflexion. Walter Schulz zum 60. Geburtstag*, Pfullingen 1973. 헤겔의 명제 "진리는 전체다": 『정신현상학』(1807) 서문, 부록 B4 참조.

용어집

사용 안내

이 용어집은 미리 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념들은 책 안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찾아보는 분은 그 개념에 이르는 길 없이 규정만을 얻게 됩니다.

이 용어집은 세 가지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뜻으로 나타날 때, 순서대로 읽지 않아서 어떤 소개를 놓친 때, 그리고 어떤 표현이 책 전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지 재확인하려는 때입니다.

장 표시는 개념이 전개되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 모든 언급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바"는 그럴듯한 해석을 막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함께 보기는 이 용어집의 관련 항목을 말하며, 어떤 개념이 이웃 책들에서 더 전개되는 경우에는 그곳의 항목을 말합니다.

유형은 표제어의 출처를 말합니다. 우리의 방법론은 이 책과 그 이웃 책들이 특별히 도입한 구분을 위한 것이고, 일반 철학은 전통에서 도입되어 여기서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 경제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무엇이 검토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 검토는 시간과 주의를 요구한다. 모든 것을 검토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해 남겨둘 것이 없다. 세 가지 크기가 그 노력을 결정한다. 걸린 것, 기본율 -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얼마나 자주 입증되었는가 -, 출처의 실적. 여기에 더해 분업이 있다. 아무도 혼자 검토하지 않는다.

한계: 검토의 경제는 주의를 분배하지 진리를 분배하지 않는다. 낮은 기본율은 더 엄격한 증거 요구를 정당화하지만 어떤 것도 반박하지 않는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검토 자체만이 결정한다.

기울어진 필터를 알아보는 방법: 비대칭성으로. 그것은 편리한 것은 통과시키고 불편한 것만 검토한다. 그 한계는 자기 진영의 한계를 따라

간다. 빗나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적용된다. 어떤 견해가 우세하다는 것이 그것이 빗나간다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참으로 만들지 않는다.

전개된 곳: 10a.3장; 무엇이 검토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22.4장

참조: 교정, 확신, 진영 사고

관점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무언가가 파악되는 입장. 그것이 보이게 하는 것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인식은 관점을 갖는다. 아무 데서도 아닌 봄은 없다.

의미하지 않는 것: 자의성. 모든 봄이 관점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관점이 동등하게 많이 포착하는 것은 아니다.

두 종류: 어떤 관점들은 부분들을, 다른 관점들은 한 장소에서 전체를 포착한다. 그것들을 혼동하는 사람은 전자를 평가절하하거나 후자를 과대평가한다(코끼리 원칙 참조).

전개된 곳: 5장

참조: 코끼리 원칙, 통합, 교정, 지향적 다원주의

대응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진술과 그것이 말하는 바의 일치.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진리 개념이며 일상적 사용에서 자명하다.

고전적 문제: 일치를 검토하려면 진술과 독립적으로 사물 자체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다시 진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해결: 질서를 견디는 것과 그 질서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그 질서화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 바깥으로부터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정합성과의 관계: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럼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정합적이지도 않다(11.3a장). 경험이 걸려 넘어지는 생각은 더 이상 나머지와 맞지 않는다. 좁은 의미에서, 사고들 자체의 단순한 서로 들어맞음으로서는 속임수조차 정합적일 수 있다. 대응의 검토는 따라서 두 번째 절차

가 아니라 정합성 검토의 가장 까다로운 경우이다. 다시 생각함으로써 저항하는 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전개된 곳: 11.3a장

참조: 정합성, 저항

면역화

유형: 일반 철학

설명: 어떤 확신은, 어떤 가능한 관찰 결과(Befund)도 그것을 타격할 수 없도록 구성되거나 방어됩니다. 반례는 예외로 선언되고, 비판은 확증으로 재해석되며, 비판자는 그 반론 대신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에 대항해 자신을 차단하는 전판단(前判斷)은 편견(Vorurteil)이 됩니다.

알아보는 방법: 무엇이 그 반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이면 독단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확인함 자체의 반박 불가능성. 확인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나 반대 시험(Gegenprobe)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화는 자신의 반박 불가능성을 감추고 반대 시험을 금지합니다.

전개된 곳: 4장, 21.6, 22.3, 24.1

함께 볼 것: 전판단(前判斷), 전도, 토대 위조(Fälschung des Fundaments)

모순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두 규정이 서로를 배제하면서도 둘 다 주장되는 경우. 모순은 사고의 실수가 아니라 발견이다. 그것은 이전의 질서가 충분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따라 나오는 것: 모순은 회피될 것이 아니라 관통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한쪽을 삭제함으로써 모순을 제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놓여 있던 정보를 잃는다.

의미하지 않는 것: 서로 배제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들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은 발견이다. 모순은 그 질서가 이 지점에서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2장, 7장).

해결 방식: 지양을 통해서. 추구되는 것은 양쪽을 설명하는 상위의 원리이다. 두 관찰 모두 유효하게 남고, 문제로서의 모순은 해소되며, 이해는 상승한다. 물속의 막대기와 빛의 굴절에서처럼(7장).

전개된 곳: 7장, 11.7장

참조: 지양, 저항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모든 정당화가 세 상황 중 하나로 이어진다는 발견. 무한 소급, 순환, 자의적 중단.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자신을 늪에서 끌어올린다는 남작 이야기에서 따온 말이다.

답: 트릴레마는 정당화를 문장이 문장을 지지하는 사슬로 생각한다. 이 전제 아래에서는 그것이 옳다. 그러나 진리 탐구는 첫 문장이 아니라, 부정이 그 실행을 실행함으로써 부정될 수 없는 실행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위에 건설되는 것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한 이미지는 돌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아치 구조이다.

의미하지 않는 것: 서로를 전제하는 문장들의 순환. 그러한 순환은 정합성만을 확보한다. 1장의 아치 구조는 문장들의 순환이 아니라 실행의 자기 확증이다.

전개된 곳: 1장; 부록 B3 참조

참조: 수행적, 자기 지시

보정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자신의 판단을 실제로 어떠한지에 맞추는 일——계측기를 표준기와 대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빈도, 비중, 비율을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것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까? 비교했을 때 어떠합니까?

이것이 별개의 개념인 이유: 개별 진술은 모두 옳을 수 있는데도 전체적인 상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관한 참된 문장들만 듣는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갖지는 않지만 잘못된 상을 갖습니다. 이때 생략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지도도 나라 전체를 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보여진 것에 비중을 매기는 일이며, 생략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10.2장).

두 층위: 첫 번째 층위에서는 개별 진술과 그 출처를 검증하고, 두 번째 층위에서는 분포를 검증합니다. 무엇이 선택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정상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척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말입니다(10a.3장, 10b.1장).

자기 보정은 어떤 기관이 자신을 위해 걸러 주도록 맡기는 대신,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자신의 척도에 따른다는 뜻입니다(10.5장). 이는 검증의 분업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 근거를 댈 수 없는 신뢰는 배제합니다(10a.3장).

전개된 곳: 10장; 자세한 내용은 보정 (2026)

함께 보기: 관점, 저항, 확신, 검증의 경제

살아 있는 완전성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어떤 것이 전체인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서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을 가리키고, 그것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하며, 그것들과 함께 전개된다. 연관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은 빠져 있지 않지만, 가능한 모든 것이 언급될 필요는 없다.

반대말: 기계적 완전성. 그것은 수집하고 더하고 확인 표시를 한다. 그 항목들은 관계 없이 나란히 서 있고, 각각은 전체에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 빠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 그것은 결속을 결여한다.

의미하지 않는 것: 규칙, 목록, 엄격한 절차가 그 자체로 죽어 있다는 것. 질서는 그 부분들이 서로 무관하게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 없이 처리될 때 기계적이 된다.

전개된 곳: 6장, 16.4장

참조: 통합, 정합성, 해석

선-판단

유형: 일반 철학

설명: 어떤 사람이 어떤 사태 자체를 검증하기 전에 그 사태 자체에 접근할 때 지니는 기대입니다. 선-판단은 피할 수 없고 대체로 유용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는 바: 비하하는 의미의 편견. 붙임표 표기는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선-판단은 판단에 앞서고, 편견은 판단을 거부합니다.

차이는 수정 가능성에 있습니다. 선-판단은 저항 앞에서 바뀝니다. 비하하는 의미의 편견은 저항을 견뎌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사전에 드러나지 않고, 저항을 다루는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수정될 수 있는 편견조차도 그것으로써 선-판단임이 드러납니다(4장).

전개된 곳: 3장, 4장

함께 보기: 실천적 검증, 저항, 면역화;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 용어집: 편견,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타인에 대한 상(像)

수행적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어떤 연관이 주장되지 않고 실행 속에서 보여질 때 그것은 수행적이라고 불린다. 그 증거는 논증이 아니라 누군가가 읽거나 반박하면서 하는 것이다.

알아보는 방법: 진술의 내용이 그 실행이 전제하는 것과 모순될 때 수행적 모순이 존재한다. "나는 침묵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침묵하지 않는다.

한계: 이 책의 모든 주장이 수행적으로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들이 기술되는 곳에서는 발견이 어긋날 수 있다.

전개된 곳: 1장, 2장

참조: 자기 지시,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수행적 일관성

수행적 일관성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어떤 텍스트가 말하는 것과 그 텍스트가 행하는 것의 일치. 진리 탐구에 관한 텍스트는 자신의 원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수행적으로 일관적이다. 즉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반론들을 수용하고, 개정에 열려 있고, 자신의 시험들에 의해 측정되도록 할 때.

반대말: 내용이 말하는 바를 실행이 부정하는 수행적 모순.

전개된 곳: 24장

참조: 수행적, 자기 지시, 살아 있는 완전성

실천적 검증 **(Bewährung)**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어떤 가정이 추가적인 사용 속에서 자신이 건전함을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과정.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것은 일회적 시험이 아니라 계속된다. 입증된 것이 나중에 불충분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증명. 입증된 가정은 증명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의미하지 않는 것: 작동함. 속임수는 한동안 작동할 수 있고, 위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질서화할 수 있다. 입증된 것은 증가하는 검토를 견디는 것이다.

진리와의 관계: 참된 것은 증가하는 검토를 견디는 것이다(11.3b장). 지금까지 입증된 것은 그것이 유지되는 한 인식된 진리로 간주된다.

전개된 곳: 4장, 11.3b장, 13.3장

참조: 전판단, 저항

실험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주장된 것이 성립하는지 독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표시된 자리. 대부분은 예시가 아니라 검증이다. 어떤 것들은 다만 질문을 날카롭게 하거나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종류들. 관찰 실험은 열린 발견을 갖는다. 충분히 많은 독자들 사이에서 결과가 어긋나면 그 기술은 거짓이다. 수행적 시험은 열린 발견을 갖지 않는다. 반대는 실행될 수 없다. 사고 실험은 수행될 수 없고 오직 사고를 통해 관통될 수 있으며, 무엇을 확립하는 대신 질문을 날카롭게 한다. 자기 탐구는 개인이 지니고 온 것을 드러낸다. 어긋나는 발견은 반론이 아니라 그 주제 자체이다. 적용은 전개된 도구를 한 사례에서 검토한다. 그 발견은 다른 사실 문제처럼 논쟁된다. 한계 시험은 도구 자체를 검토하여 그것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지점을 찾는다.

그 차이가 달려 있는 것: 반론은 해당 종류에 알맞은 종류의 반론일 때만 적중한다.

전개된 곳: 1장, 2장, 4장, 9장, 10b.1장(각각 한 종류가 처음 나타나는 곳)

참조: 수행적, 자기 지시

인식 **(Erkennen)**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것이 접근 가능하게 되는 활동. 인식은 과정이다. 시작과 중간 단계들이 있고, 보장된 결론은 없다.

진리와의 관계: 진리는 인식이 마주치는 모든 것, 저항하는 것을 포함하여, 분절된 전체로 결합되는 과정이다(11장, 23.5a장). 매 시점에서 도달된 것은 인식된 진리이다. 전체이되 절반이 아니며, 마지막 말도 아니다.

전개된 곳: 책 전반; 명시적으로는 3장과 11장

참조: 진리, 진리 과정, 지식, 실천적 검증

자기 지시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진리에 대한 물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속성.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참된 답을 원한다. 그 물음은 자신이 묻는 대상을 전제한다.

따라 나오는 것: 진리 탐구는 바깥에서부터 정당화될 수 없다. 진리 탐구는 모든 정당화가 서 있는 토대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정당화를 포함하여.

전개된 곳: 1장, 2장

참조: 수행적,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저항

유형: 우리의 방법론

설명: 기대, 바람, 개입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은 인식 속에서 현실이 스스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거나 바라졌던 것이 들어맞지 않음으로써 드러납니다.

뜻하지 않는 바: 단순한 단단함. 주먹이 탁자에 부딪친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여졌던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저항이 가르침을 주는 곳은 어떤 받아들임이나 바람이 물러서지 않는 무엇과 만나는 경우입니다. 돌이 보기보다 무거워서, 또는 바란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 경우입니다(11a.1장, 11a.2장).

저항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돌의 경우에는 손에 잡히듯이, 자기 자신의 경우에는 집요함으로 드러납니다. 습관과 조바심이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던 상을 바로잡는 곳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에서는 가장 늦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한 그 자체로 우리가 근거를 빚진 존재로서도 저항합니다. 그들은 논박할 뿐만 아니라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말하고, 우리가 그들과 사태 자체에 대해 지니는 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곳에서도 말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돌의 저항보다 더 강하지는 않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그 저항은 스스로 검증되어야 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대답할 수 있는지는 그의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읽기 또한 하나의 만남이지만, 대등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똑같이 뜻하지 않는 바: 누군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집요한 편견은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수정에 저항합니다. 그것은 다른 과정입니다.

하나의 개념, 정도의 차이. 무엇이 개입에서든 사고에서든 따르지 않는 것은 두 종류의 검증이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한 연관 속에서 단절로 드러납니다. 차이는 배제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개입하는 사람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단지 생각으로만 헤아릴 때에는 방해되는 것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가정, 이동된 한계, 예외를 통해서 말입니다.

전개된 곳: 8.5장, 11장, 11a장

함께 보기: 응집성, 대응, 선-판단;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이유를 댈 책무를 지다

전도 **(Verkehrung)**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어떤 원리가 그 형식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자신의 반대로 바뀐다. 코끼리 원칙을 사용해 모든 입장에 한 알갱이의 진리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참과 거짓의 구별을 해체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도한 것이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강점이 절대화된다. 회의주의가 냉소주의로, 연관 탐구가 도식으로, 공감이 검토를 대체하는 동정으로, 개방이 자의성으로. 위험은 강점을 강하게 만드는 것의 뒷면이다. 그것에 대항해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 적용이다.

이것이 별도의 주제인 이유: 이 책의 원리들은 모두 남용될 수 있고, 그 남용은 바깥에서부터 구별하기 어렵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산출에서

드러난다. 진리의 이름으로 검토가 방해되는 곳에서, 흔히 자신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을 알아보기가 가장 어렵다(21장).

전개된 곳: 21장, 특히 21.5장

참조: 면역화, 진영 사고, 교정

정합성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어떤 확신과 어떤 사람이 참으로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의 연관. 무엇이 서로 맞지 않거나, 빈틈이 남거나, 두 문장이 서로 배제하는 곳에서 정합성은 침해된다.

의미하지 않는 것: 단순한 무모순성. 한 체계는 모순 없이 공허할 수 있다. 정합성은 부분들이 서로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며, 단지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응과의 관계: 안과 밖의 비교로 생각하기를 멈추자마자, 둘 다 동일한 검토의 측면들이다. 넓은 의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 자신에게 강요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과 들어맞는 것으로서 정합성은 대응을 포함한다. 대응의 검토는 정합성의 가장 까다로운 경우이다(11.3a장). 좁은 의미에서, 사고들 자체의 서로 들어맞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망상 체계조차 그 내부에서는 서로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개된 곳: 8장, 11장

참조: 대응, 저항, 통합

지식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보증될 수 있는 인식된 진리. 제시될 수 있는 근거들을 통해, 또는 많은 사례들에서 입증된 정확성을 통해.

두 형태: 명시적 지식은 해명할 수 있다. 경험 많은 사람의 내면화된 지식은 흔히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추측 이상이다. 그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9.1장).

의미하지 않는 것: 우연히 맞아떨어진 올바른 추측.

전개된 곳: 9.1장

참조: 인식, 확신, 진리

지양

유형: 일반 철학

설명: 모순의 해소로서, 양쪽의 정당한 점이 사라지지 않고 더 포괄적인 규정 속에 보존됩니다. 이 단어는 독일어에서 끝내기, 보존하기,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며, 세 가지 모두가 의미됩니다.

뜻하지 않는 바: 타협. 타협은 양쪽 모두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합니다. 지양은 각각의 측면에서 무엇이 정당했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그 대립이 생겨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새로운 입장이 왜 이전 입장들이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지의 여부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곳에서는 혼합이 있을 뿐입니다.

전개된 곳: 3.4장, 7장, 19장

함께 보기: 모순, 코끼리 원리; 사고 – 잃지 않고 정리하기 (2025), 용어집: 지양, 윤리학 – 우리가 이미 행하는 선 (2026), 용어집: 지양

지향적 다원주의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경직된 독단과 자의적 상대주의 사이의 태도.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방향이 있고 모든 길이 동등하게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길이 정상에 이를 수 있고 함께 탐구하는 이들의 다양성이 풍요이기 때문이다. 방향은 특정한 결과들이 아니라 검토의 방식으로 제시된다. 근거들, 관점들의 통합, 관통되어 처리된 모순들, 다른 이들에 의한 검토 가능성, 개정 가능성.

자기 제한: 정당화된 입장과 정당화되지 않은 입장, 열린 입장과 면역화된 입장이 있다.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 과정에서 스스로를 배제한다.

두 가지 다루는 방식: 부분적 발견들은 전체에 들어맞는지 검토된다. 전체를 보는 방식들은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그 진리의 몫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5장, 23.1장).

의미하지 않는 것: 게으른 타협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화시키는 것. 어떤 것들은 제한되거나 견뎌질 수 있을 뿐이다. 통합은 검토 후에 오며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23.1장).

전개된 곳: 23.1장

참조: 코끼리 원칙, 관점, 진리 과정

진리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이 책은 진리를 미리 정의하지 않고 실행 속에서 전개한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전제하는 물음이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참된 답을 원하고, 자신이 검토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검토한다(1장). 그 다음 진리는 단계적으로 드러난다. 많은 관점들을 함께 가져오는 가운데 사물 자체가 열어 보인다(5장). 함께 가져와진 것은 부분들이 서로를 규정하는 전체이지 무더기가 아니다(6장). 모순들은 폐기되지 않고 지양된다(7장). 모든 단서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8장). 그리고 우리의 바람에 저항하는 것도 이 연관에 속한다(11장). 진리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맞물리는 과정이다. 사실들과의 단순한 일치도 아니고 사고의 순수한 구성도 아니라, 그것들의 통합이라는 살아 있는 과정이다(11.7장).

"참된 것": 살아 있고 논리적으로 질서지어지며 전개하는 전체(16.4장). 알려진 문장들의 합이 아니라 부분들이 서로를 규정하고,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지 않으며, 탐구 속에서 더 전개하는 연관. 그 문장의 유래에 관해서는 부록 B4.

인식된 진리: 매 시점에서 도달된 것.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지만 마지막 말도 아니다. 더 나은 질서가 그것을 지양할 때까지 유지되며, 그 질서 속에 보존되어 남는다. 그것은 더 나은 질서만이 밝혀내는 오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도달된 통찰은 절반이 아니라 전체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다(23.5a장, 23.5장).

역전: 일단 한 질서가 발견되면, 설명, 보고, 개념도 그것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경우 참되다고 불리며, 마침내 사물 자체도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일 경우, 참된 친구, 무게를 지탱하는 의자, 성공적인 작품처럼 참되다고 불린다. 이 진리는 첫 번째 진리에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첫 번째 진리에서 생겨난다(13.3장, 23.5a장). 헤겔에게서 이것은 더 깊은 의미이다(부록 B2).

의미하지 않는 것: 합의.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참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지되는 것은 어떤 소망에도, 어떤 다수에도 굴하지 않는 것을 또한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전개된 곳: 책 전반; 요약은 16.4장과 23.5a장

참조: 진리 과정, 인식, 정합성, 대응, 저항

진리 과정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탐구, 발견, 더 나아간 탐구로 이루어지는 전체. 그 안에서 인식된 진리가 획득되고, 검토되고, 이월된다. 발견된 모든 질서는 더 나은 질서가 그것을 지양하여 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것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책이 진리로서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모순이 열린 채 남아 있거나, 단서가 자리가 없거나,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는 질서는 아직 전체가 아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 진리가 교환 속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은 어떤 소망에도, 어떤 다수에도 굴하지 않는 것을 또한 견뎌야 한다(11장).

알아보는 방법: 다음 검토에 대한 개방성으로. 도달된 것이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멈추었고, 모든 것이 여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

누가 참여하는가: 그 과정은 공유된다. 과학, 자유 언론, 독립 법원과 같은 제도들이 그 형태들이다(20.5장). 원칙적으로 정당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배제한다(23.1장).

전개된 곳: 1장, 11.3c장, 20.5장, 23.5a장

참조: 진리, 인식, 실천적 검증, 지향적 다원주의

진리의 여러 형태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한 판단이 자신이 참임을 입증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 - 경험적, 실존적, 문화적, 예술적. 그것들은 무엇에 대항하여 자신을 입증하는지에서 다르다. 진리 개념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남는다(부록 A, 알레테이아적 다원주의 참조).

범주 오류: 한 형태를 다른 형태의 기준으로 측정하는 사람은 둘 다 놓친다.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DE: „Die Erde ist unsere Mutter“)는 은유적 열어 보임으로는 유지되지만 생물학적 주장으로는 거짓이다.

의미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 실존적 진리와 문화적 진리도 그것들에 반대하여 말하는 경험들을 견뎌야 한다.

전개된 곳: 13장

참조: 실천적 검증, 해석

진영 사고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주장들을 그 근거가 아니라 그것이 나온 편에 따라 분류하는 것.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더 쉽게 믿어지고, 해가 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검토된다. 비판은 공격으로 해석되고 비판자는 반대편에 배정된다.

알아보는 방법: 비대칭성으로. 기울어진 필터는 자기 편을 교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반대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검토한다.

의미하지 않는 것: 모든 편들기가 곧 진영 사고라는 것. 진영 사고는 소속이 검토를 대체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유혹은 일반적이다: 그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편에서, 다른 이들에게 진영 사고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에 대항해 도움이 되는 것은 올바른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성이다. 다른 편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자기 편에 적용하되, 먼저 자기 진영에 적용하는 것.

전개된 곳: 21.1장, 21.2장, 21.8a장; 기울어진 필터에 관해서는 10a.3장

참조: 전도, 면역화, 지향적 다원주의

코끼리 원칙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서로 다른 관점들은 종종 동일한 사물 자체의 서로 다른 참된 부분 측면들을 포착한다.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 뱀, 기둥, 부채라는 양립 불가능한 기술들에 이르는 맹인들의 우화에 따른 말이다.

우화의 핵심은 각자가 올바른 무엇인가를 느꼈다는 데 이미 있지 않고, 코끼리가 있다는 데 있다. 코끼리가 없으면 그 기술들은 모순되지 않고 무관할 것이다. 코끼리에서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맞는지가 결정된다.

옳은 것과 그른 것: 각자는 자신이 느낀 것에 관해서는 옳고, 그것을 전체로 간주하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순간 그르다. 이런 의미에서 부록 B는 진리 이론들에 대해 그것들 모두가 옳다고 말한다.

두 종류의 관점: 어떤 관점들은 함께 비로소 사물 자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포착한다 - 단서, 측정값, 증언. 다른 관점들은 한 장소에서 전체를 포착하는데, 마치 산을 동쪽에서 또는 서쪽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전체를 보는 방식들을 부분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평가절하하고, 부분

들을 전체를 보는 방식처럼 격상시키는 사람은 모든 단서를 각자 고유의 진리로 만든다.

의미하지 않는 것: 모든 입장이 동등하게 많이 포착한다는 것. 어떤 만짐은 다른 만짐보다 더 많이 포착하고, 어떤 기술들은 단순히 거짓이다.

한계: 서로 다른 진술들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곳에서는 통합할 것이 없다. 진술이 단순히 부정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개된 곳: 5장; 부록 B에서 진리 이론들에 적용됨

참조: 관점, 통합, 탐정 원칙, 지향적 다원주의

탐정 원칙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설명은 편리한 단서들만이 아니라 모든 발견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 자신의 의심에 맞지 않는다고 단서를 제쳐두는 탐정은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다.

실천적 핵심: 맞지 않는 것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을 설명하든 마찬가지다. 모든 단서가 같은 무게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서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전개된 곳: 8장

참조: 코끼리 원칙, 정합성

토대의 위조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수행적 방법 자체의 남용. 위조는 진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는 무엇인가 - 검토하려는 충동, 불안, 의미에 대한 갈망 - 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던 결과로 이끈다. 결국에는 말을 건네받은 사람의 경험이 증거로 선언된다.

알아보는 방법: 진짜와 닮은 첫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들에서. 시험들은 묻는다. 검토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 대조 검토가 제공되는가? 시간이 있는가? 경험이 단서로 취급되는가 증거로 취급되는가? 누가 그것을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은 사람을 더 독립적으로 만드는가, 더 의존적으로 만드는가?

의미하지 않는 것: 검토 자체의 반박 불가능성. 그것은 드러나 있으며 대조 검토를 권유한다. 위조는 은신처를 필요로 한다.

전개된 곳: 22장

참조: 면역화, 전도, 수행적

통합

유형: 우리의 방법

설명: 서로 다른 관점들이나 발견들을 각각이 자기 자리를 갖는 연관 속으로 함께 가져오는 것. 통합은 수집 이상이다.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속하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의미하지 않는 것: 평균내기. 둘로부터 중간 입장을 만드는 사람은 각각에서 절반을 취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속하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전개된 곳: 5장, 8장

참조: 코끼리 원칙, 지양, 정합성

패러다임 전환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개별 가정들이 아니라 한 사고 건축물의 기본 개념들이 교체되는 전환. 그것은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을 보존하는 것처럼 옛 이론을 극한 사례로 보존할 수도 있고, 양자역학으로의 이행에서처럼 한 영역에 대해 그 기본 개념들을 전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모든 전환은 격변을 포함하여 지양이다. 그것은 현상들을 보존하고 그것들의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규칙: 모든 전환은 현상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옛 패러다임이 설명한 것을 설명해야 하고, 더하여 그것이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해야 한다. 처음에는 태양 중심 모형이 처음에는 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점에서 여전히 뒤처질 수 있다.

의미하지 않는 것: 근거 없는 전환. 패러다임들이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환을 자의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전환은 일상적 연구와 동일한 진리 탐구의 원리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전개된 곳: 19장

참조: 현상 구제, 지양, 실천적 검증

해석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인간이 산출한 것들 - 텍스트, 이미지, 법, 도구, 행위 - 에 대한 이해. 그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어난다. 문장을 읽을 때도, 미소를 읽을 때도. 정신의 산물을 자연의 산물과 구별하는 것은 의식적 목적이다. 따라서 해석은 텍스트에 관해서는 그 의도를, 기관에 관해서는 그 기능을, 단순한 자연 과정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묻는다.

차원들: 산출된 것은 목적에서 생겨나므로, 해석은 그것의 생성 과정을 재구성한다. 재료, 산출자, 수단과 절차들, 목적과 작용. 위대한 작품의 경우에는 세계의 열어 보임이 더해진다.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경험에 형식을 부여한다.

텍스트의 종류와 진리: 텍스트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검토한다. 보고서에서는 그것이 목표를 맞추는지, 법에서는 그것이 목적을 충족하고 다른 법들과 일치하는지, 편지에서는 성실성, 시에서는 그것이 참된 친구에 대해 말할 때의 다른 의미에서 참된지, 즉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 의미에서의 참 또는 거짓은 여기서는 그 텍스트에 대한 판단들이다(15.13장).

의미하지 않는 것: 작업으로 처리되는 목록. 각 차원은 그것이 빠질 때 생겨나는 맹점에서 드러나고, 작품의 목적이 무엇이 가장 큰 비중을 지니는지 결정한다.

전개된 곳: 15장

참조: 진리의 여러 형태, 관점, 살아 있는 완전성

현상 구제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모든 진정한 관찰이 설명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 이 표현은 그리스 천문학에서 유래한다(*sozein ta phainomena*). 관찰들은 거의 결코 전적으로 거짓이 아니다. 거짓일 수 있는 것은 해석들이며, 그때 이것들은 통합되지 않고 거부된다.

그것에 속하는 것: 구제한다는 것은 아직 설명될 수 없는 것을 보존하고, 속임수마저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누군가가 거짓 단서를 놓았다는 것 자체가 단서이다.

전개된 곳: 8.2장, 19.4장

참조: 탐정 원칙, 패러다임 전환, 지양

확신 **(Gewissheit)**

유형: 일반 철학적

설명: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는 정도 - 최선의 경우 근거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정도. 확신은 우선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발견이다. 교정은 둘을 일치시킨다.

의미하지 않는 것: 진리. 어떤 사람은 확신하면서도 오류일 수 있고, 의심하면서도 옳을 수 있다.

정도와 종류: 확신에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정도들과 그것이 어떻게 검토되는지를 말해주는 종류들이 있다. 재계산을 통해, 동일한 발견에 이르는 독립적인 경로들을 통해, 어떤 사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실행 자체를 통해. 하나의 척도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 종류들을 나란히 놓는다.

전개된 곳: 2장, 10a.3장

참조: 지식, 진리